



김효주... JTBC 파운더스컵 우승

한국계 LPGA 투어 6연승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이투데이 www.etoday.co.kr

## ‘코스닥의 봄’... 700고지까지 넘본다

外人 매수세로 640선 돌파 6년9개월만에 최고치  
코스피도 52주 신고가 속출... 펀드 환매는 늘어

주식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코스피에서는 52주 신고가 종목이 속출하고, 코스닥은 6년 9개월 만에 640선을 돌파하는 등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과열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외국인 유동성이 지수의 어깨를 끌어올렸다. 전문가들은 코스닥이 단기과열에 따른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반면 코스피는 펀드 환매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한다.

23일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47포인트 오른 643.55포인트에서 장을 시작했다. 지난 20일 6년 9개월 만에 640고지를 되찾은 이후 이를 연속 640대를 이어가는 중이다. 코스닥은 지난달 5일 600선을 돌파한 데 이어 620선, 630선, 640선을 차례로 돌파했다.

반면 지난주 연속 최고점(2047포인트)을 경신했던 코스피 지수는 이날 2043.22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지만 이내 하락 반전하며 보합권에 머물고 있다.

시장의 관심은 향후 코스닥 지수의 방향이 어느 쪽을 향할지 여부다. 전문가들

은 코스닥이 기술적으로 단기과열 상태라는 데 큰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 조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대비 시가총액 비중이 14%를 넘어 2003년 IT버블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 있다”면서 “지수 상승세의 기술기조 과거의 이동 평균선을 크게 이탈해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가파르게 상승한 코스피가 펀드환매 압력에 시달리고 있지만, 코스닥은 오히려 반사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펀드 투자자들은 코스피 지수의 장기저항선 근처에서 환매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 2006년 이후 주식형 펀드는 2000-2050 구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환매가 일어났다.

실제 최근 코스피가 2030선까지 오르

면서 국내 주식형 펀드는 나흘 연속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18-19일에는 2000억원 이상 빠져나갔다.

김정환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펀드 환매로 코스피 지수가 장기 저항선 도달에 실패하면 중소형주 중심의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스닥이 단기적 조정을 받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수가 얼마가 됐으니 코스닥이 부러질 거다라는 식의 분석은 맞지 않는다”면서 “코스닥이 코스피의 상승국면에서 잠시 쉬어 갈 수는 있지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둘 다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 경남기업 임원 명의 땅 구입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

충남 예산 골프장 건설 부지  
임원이 취득 후 20억 주고 매입  
회사 재무제표엔 거래내역 없어

경남기업이 계열사 임원 명의로 사업 부지를 취득한 후 명의를 넘겨 받은 것으로 확인돼 부동산실명제법에 저촉되는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관련기사 6면

23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지난 2005년 충청남도 예산군 봉림리 일대에 골프장 건설을 위해 대규모 임야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기업이 취득한 임야는 모두 5필지로 151만1347㎡(45만 8000평)다. 이 중 4필지인 121만8000㎡(36만7000평)는 계열사가 1990년대 말 취득한 임야로 경남기업이 회사서 흡수합병하면서 명목이 이전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30만915㎡(9만1186평)의 명의 이전 과정이 현행 부동산실명제법상 저촉될 소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임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지난 2005년 6월 28일 K씨가 매입해 명의를 넘겨 받았다. 또 하루 뒤인 같은 해 6월 29일 경남기업이 K씨로부터 20억 여원을 주고 매입해 명의를 넘겨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분지 확인 결과 K씨는 경남기업의 계열사인 온양관광호텔의 고위

임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등기부등본상으로는 보면 계열사 임원이 현지 주민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후 하루 만에 경남기업에 넘긴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남기업이 회사 돈을 이용해 계열사 임원 명의로 취득한 후 다시 등기부등본상 명의를 변경했을 가능성이 커 부동산실명제법을 무시한 편법적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부동산실명제법은 부동산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타인의 명의로 하는 약정을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회사 감사보고서 등 재무제표에 관련된 거래 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자금 흐름에 대한 의구심도 낳고 있다. 경남기업의 2005회계연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역과 토지취득 등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남기업 측도 봉림리 임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임원의 명의를 잠시 빌린 부분을 인정했다. 회사 관계자는 “임야 매입 당시 전 토지 소유자가 회사와의 거래를 꺼려해 계열사 임원 명의로 우선 매입한 후 회사로 넘겨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매입 자금 거래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른다”고 말했다.

현유섭 기자 hyson0214@

### 리관유 전 싱가포르 총리 타계



리관유(李光耀) 전 싱가포르 총리가 폐렴 치료를 위해 입원한 싱가포르중합병원 앞에서 한 시민이 22일(현지시간) 그의 재유를 받고 있다. 이 같은 국민들의 기원에도 불구하고 리 전 총리는 이날 오전 3시 18분경 향년 91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1959년 35세의 나이에 자치정부 총리에 올라 반공적인 싱가포르를 동남아시아의 부국으로 끌어올리는 등 기적과 신화를 이룬 인물로, 아시아의 대표적 지도자로 평가받아 왔다. ▶관련기사 11면

## KT&G, 국세청 조사국 상대 대대적 로비

세무조사 편의 명목 역대 금품 제공... 검찰, 뇌물 윗선 전달여부 수사

국내 최대 담배 제조사인 KT&G가 전 직원의 탈세비리 폭로로 곤혹을 치른 데 이어 이번에는 세무조사 편의 명목과 관련해 국세청 직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3일 국세청과 검찰 등 사정기관에 따르면 인천지검 외사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과 일선 세무서 소속 직원 5-6명을 긴급 체포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KT&G와 또 다른 패션업체 A사를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 편의 명목으로 각 1억2000만원과 1억원 등을 받아 챙긴 후 조사반 전원이 각각 수천만원씩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해당 금품 전달 과정에서 전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관여한 정황도 확인했으며, 조사국 직원들이 세무조사 업체로부터 뇌물을 상납받은 후 이를 윗선에 전달했는지 여부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같은 날 검찰에 긴급 체포된 일선 세무서 사무관은 검찰 조사에서 금품

을 수수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지난 20일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국세청 조사국 세무비리가 폐쇄적 세무조사 과정과 세무공무원들의 과도한 재량권이 비리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세무공무원 개인 비리가 아닌 팀 전체가 세무조사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례가 지난 2013년 이후 벌써 두 번째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해 경정청 징병범죄수사대는

서울국세청 조사국의 전·현직 직원 9명이 2009년 9월부터 1년여간 7개 기업으로부터 총 3억1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이후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탐장급 7씨(54) 등 3명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신청한 반면 400만~2700만원을 수수한 탐원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13년 3월 KT&G를 대상으로 심층(특별)세무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세무조사는 KT&G 재직 시 재무실 산하 세무부에서 과장으로 근무한 씨씨가 탈세 제보를 빌미로 (KT&G로부터) 5억원을 수수한 후 또다시 5억원을 요구했지만 묵인되자, 이를 국세청에 제보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김문수 기자 tearand76@

## 농협금융 새 회장에 김용환 내정

회추위, 단수 후보 추천

차기 농협금융지주 회장에 김용환(사진) 전 수출입은행장이 내정됐다. 김 회장 내정자는 금융 경험이 있는 관료 출신 중에서 금융정책과 은행 실무까지 두루 경험한 최적의 인물이라는 평가다.

23일 농협금융에 따르면 이날 오전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김 전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했다. 회추위는 임종룡 전 회장이 올린 경영 성과와 바탕으로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차기 회장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금융 고위 관계자는 “다른 경쟁자 없이 단수 후보로 추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14년 2월 퇴임한 김 전 행장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임제한기간(퇴임 후 2년)을 채우지 못해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김 회장 내정자는 상대를 배려하는 성

품과 친화력을 바탕으로 주위의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1년 수출입은행장에 취임해 3년 임기를 마친 후 현재 금융연구원 특임연구실 초빙 연구위원으로 지내고 있다. 수출입은행장 시절 당시 64조원 규모의 여신규모를 75조원까지 끌어올렸고 글로벌 수출신용기관, 국제상업은행 등 총 75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를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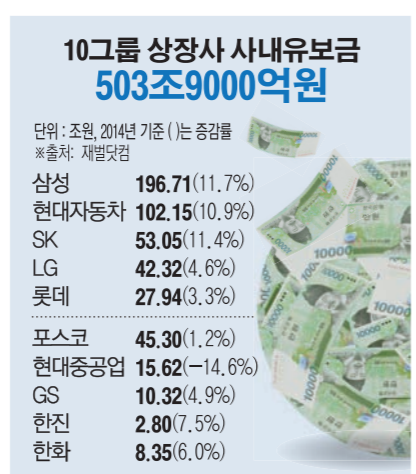
김 회장 내정자는 충남 보령 출신으로 서울고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23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 증권감독과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했다.

안철우 기자 acw@

### 데이터 뉴스 Data News

#### 10대그룹 사내유보금 1년새 40조↑

국내 10대 그룹 상장기업이 96개의 사내유보금 총액이 50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40조원가량 늘었다. 23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개별재무제표 기준 대규모 적자를 낸 현대중공업그룹을 제외한 9개 그룹의 사내유보금이 증가했다. 그중 삼성그룹 18개 상장기업의 사내유보금이 196조71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조6500억원(11.7%) 증가해 유보금 규모와 증가폭 모두에서 최고치를 나타냈다. 정다운 기자 gamja@



초단시간 근로자 120만명 넘었다

주당 근로시간이 18시간을 밑도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120만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주당 1~17시간 일한 근로자는 지난해 117만7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2월 초단시간 근로자 수는 120만8000명이다. 2010년 초단시간 근로자는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2011년에는 110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5.7% 감소했으나, 2013년 117만2000명(6.4%)으로 다시 늘어났다.

박상영 기자 sympark@

하루 한생각 坎而後止 (김이후지)

구멍이에선 물이 넘치기를 기다려라 ▶14면

IT 통신시장 5G 각속전 ▶17-18

아웃도어 패션 ▶20

생활기능을 입었다

서정진 회장 ▶2 차상남 대표 ▶13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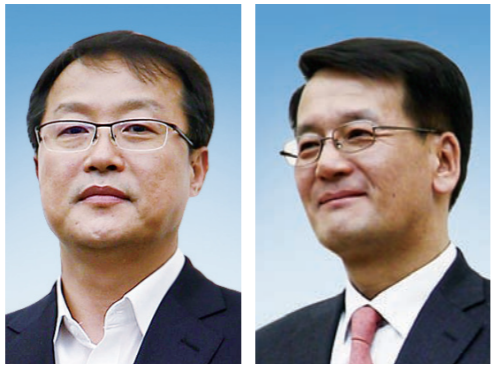
스마트폰을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셀트리온 '전문경영인' 체제로...

# '소유·경영 분리' 소신 실천한 서정진

기우성·김형기 공동 대표이사로 각각 임상허가와 경영관리 담당 서회장 미래비전 구상 집중키로 헬스케어·제약도 신규선임 전망



기우성 대표 김형기 대표

"기업 소유와 경영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랜 소신이다. 적절할 시기가 오면 경영권을 전문경영인에게 넘겨주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실천하겠다."

셀트리온이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했다. 셀트리온 창업주 서정진 회장은 '축성의 시기가 완료되고 수성의 시기로 전환되는 2015년이 되면 전문경영인 체제로 바꾸겠다'던 오랜 약속을 지켰다.

셀트리온은 지난 20일 제24기 정기 주주총회 이후 열린 이사회에서 서정진 대표이사의 후임으로 기우성·김형기 두 사장을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서 회장이 대표에서 물러나고 공동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되는 것이다.

기우성 선임 대표는 셀트리온 설립 초기부터 생산·임상 및 허가부문을 담당해 온 현장형으로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시밀러 '렘시마'의 유럽 허가를 진두지휘했다. 김형기 선임 대표는 전략기획 및

재무팀으로 '테마섹' 등의 해외 투자유치를 주도하는 등 각 분야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

공동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되면 기우성 사장은 생산·품질·임상허가 부문을, 김형기 사장은 경영관리·재무·연구개발 등을 담당하게 된다. 선임 대표로 선임된 기우성 사장과 김형기 사장은 셀트리온 장립 멤버로, 장립 초기부터 서 회장과 한 배를 탄 '창업 동지'다.

서정진 회장은 "오너가 회장을 하고 전문경영인을 대표이사로 전진 배치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2명의 사장은 저와 함께 변함없이 회사 발전과 주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서 회장은 이사회 회장으로서 그룹의 미래 비전 및 중장기 전략 구상 그리고 해외 네트워크 강화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02년 셀트리온 창업 초기부터 대표이사를 맡아 온 그는 회사의 사업모델이 완성되고 안정적 성장단계로 접어드는 2015년에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오래전부터 밝혀 온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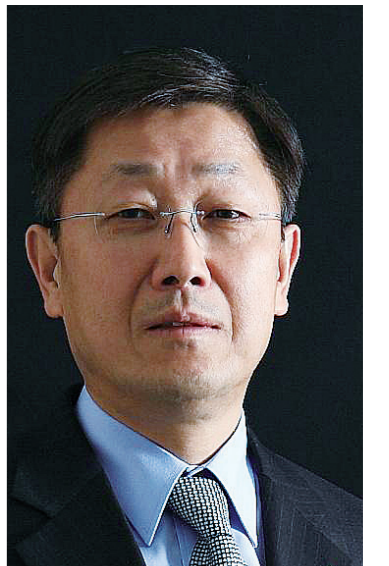
특히 이번 인사는 셀트리온그룹이 오너 경영체에서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함을 알리는 시작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그룹은 셀트리온에 이어 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 등 주력 회사의 대표이사도 신규 선임할 계획이다.

셀트리온그룹 관계자는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제약도 이달 중 각각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전문경영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라며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의 연구개발을 총괄하다 지난해 말 셀트리온헬스케어로 옮긴 홍승서 사장을, 셀트리온제약은 2013년 9월부터 회사운영을 총괄해 온 김만훈 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문경영인 체제로의 전환은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시스템을 안정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 초기에는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지만, 안정기에 접어들면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인호 기자 kangin@

## 긴급이사회 연 LIG손보 의장 '김병헌→남영우' 왜



남영우 LIG사장

LIG손해보험 이사회 의장이 김병헌 사장에서 남영우(주)LIG 사장으로 전격 교체됐다. 통상 대표이사 사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는 경우가 많아 이사회 의장 교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LIG손보는 지난 20일 정기 주주총회 이후 긴급 이사회를 열어 LIG손보 이사회 의장을 김병헌 사장에서 남영우(주)LIG 사장으로 교체했다.

김 사장은 이사회와 직원들에게 "이사회 의장직과 대표이사직을 같이 수행하는 것이 경영상 좋지 못하다고 판단했다"며 "경영의 독립성을 위해 이사회 의장직을 사퇴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이사 사장이 의장직 맡는게 관계 교체 배경에 관심

'LIG손보 지분 매각' 남 사장 책임자로 마무리 작업 나설듯

이사회 의장은 회사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이사회의 수장이자 이에 내부 직원들도 의아스러워하는 상황이지만 김 사장은 "경영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LIG손보 내부에서는 김 사장이 이사회 의장직은 사퇴하지만, 이사회 의장의 신임을 받고 있어 경영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LIG손보 이사회 의장이었던 김우진 전 부회장은 지난해 3월 14일 주주총회에서 일신상의 이유로 이사회 의장과 이사에서 물러났다. 이사회 의장을 사퇴한 후 회사 경영에서 손 떼고 고문으로 남았다.

남영우 이사회 의장은 지난해 2월 기타 비상무이사로 선임돼 활동하고 있다. 특히 남 사장은 (주)LIG의 대표로 사실상 LIG그룹의 LIG손보 매각 작업을 도맡아 온 인물이다. 그는 1999년 LG그룹의 구조조정본부 부사장을 역임하면서 인수합병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남 사장이 LIG손보 이사회 의장을 맡은 것은 매각 작업 마무리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사회 의장이 회사의 중요 경영 사항을 주도하는 만큼, 남 사장을 통해 LIG그룹이 LIG손보에서 정리해야 할 작업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강구기 기자 kkk@



김병헌 LIG손해보험 사장

대한민국 행복발전소 POWER KOMIPO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 3.0 경제영인 30년 혁신 30년의 상징

# 한국중부발전은 소를 키웁니다

한국중부발전은 불을 먹으며 자라는 여섯 개의 발전소를 키웁니다.

오랜 노하우와 기술력으로 국내 최초 화력발전소에서 국내 최대 화력발전소까지

우직하고 든든한 에너지 발전소, 한국중부발전이 키웁니다.

전기에너지를 만듭니다 한국중부발전



## '투잡'에 발목잡힌 김정관 삼성생명 사외이사 사임



김정관 무형협회 상근 부회장

김정관 무형협회 상근 부회장이 삼성생명 사외이사에 선임된 지 1주일 만에 사임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앞서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반대표에도 불구하고 재선임하는 안건이 통과됐지만 자진해서 사임한 것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삼성생명은 김정관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 퇴임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삼성생명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에 선임된 지 1주일 만이다.

김정관 부회장은 산업자원부 자원정책과장,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에 이어 2차관을 역임했다. 이후 지난 2012년 6월 삼성생명의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 부회장은 삼성생명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임기가 끝나는 올해 연임이 점쳐지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김 부회장은 지난해 3월 LG상사의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된 뒤 지난 2월 무형협회 상근 부회장에 선임됐다.

문제는 김 부회장이 삼성생명 사외이사를 연임하면 상법상 사외이사 겸직 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현행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7호는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는 "해당 상장회사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자"로 정하고 있다. 즉,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당해 회사 외에 1개 회사의 임원 겸직만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 13일 열린 삼성생명의 주총 당시 지분 0.04%를 보유한 KTB자산운용이 김정관 부회장의 사외이사 임명 반대결정을 행사한 바 있다.

삼성생명은 김 부회장이 주총 직후 열린 이사회에서 사퇴의사를 표명했고 현재로서는 추가적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 계획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일단 4인의 사외이사 체제를 유지하면서 임시 이사회를 열어 사외이사의 재선임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재현 기자 nfs0118@



한국중부발전의 새로운 이를 소개합니다

우리의 비전(Global Top Class Energy Company)을 전달하고자, '지구 형상'을 모티브 하여 '에너지'와 '빛'의 이미지를 담았습니다.

국내 전력공급의 10%를 담당하는 한국중부발전은 한 세기에 이르는 발전소 운영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發電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여러 해외시장을 개척하며 발전소 건설·운영부터 신재생에너지원 개발까지, 에너지생태계를 리딩하는 글로벌 에너지 공기업입니다. [www.komipo.co.kr](http://www.komipo.co.kr)

# 거침없는 코스닥... 지속성장 신호인가, 단기과열 경고인가

## 기대

지난주 기관 순매수 전환 이어  
외인도 이틀간 1000억 순매수  
전문가들 “상승세 이어갈 것”

올 들어 100포인트 가까이 오른 코스닥 시장 상승세에 대한 우려와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다.

우선 불과 3개월 만에 100포인트 이상 오른 만큼 ‘단기과열’이라는 경계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반면 ‘지속성장’을 낙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코스닥 지수는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왔다. 지난해 연말 542.97로 2014년을 마무리했던 지수는 새해 개장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지난 20일에는 640포인트를 넘어섰다. 지난해 증가 대비 100포인트 가까이 오른 것이다.

3월 들어 기관이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지만 지난 20일 343억원 순매수로 돌아선 것도 긍정적이다. 다만 일시적인 순매수인지, 지속적으로 순매수에 나설 것인지가 관건이다. 외국인도 지난주 19일과 20일 1000억원 가까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3개월이 채 안되는 기간 동안 100포인트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자 ‘단기과열’이라는 우려감도

## 우려

상장사 흑자기업 비중 감소추세  
작년 상반기 68%...5년 내 최저  
“시총 비중 12% 육박 과열조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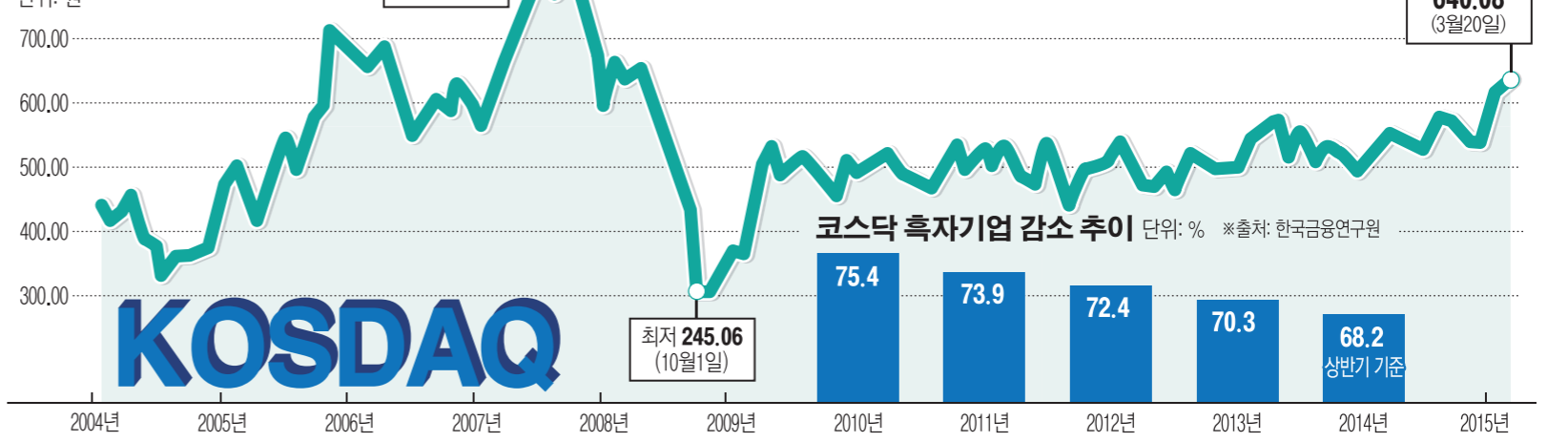
팽배하고 있다. 특히 코스닥 상장기업 중 흑자기업 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더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코스닥 시장 현황과 관련해 “코스닥의 체질 개선과 대형화라는 긍정적 요인이 시장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다”면서도 “상장기업의 수익성은 검증되지 않은 측면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코스닥 상장사 중 흑자를 내는 기업은 70%에 못 미치고 있다. 2010년 75.4%였지만 이듬해인 2011년 73.9%로 하락했다. 이어 2012년과 2013년에도 각각 72.4%와 70.3%로 떨어지면서 흑자기업 비중은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이 비중이 68.2%로 떨어지면서 최근 5년 새 가장 적은 수치로 내려갔다.

임노중 아이엠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 역시 “코스닥지수가 계속 오르고 있지만, 연초만큼 가파르게 상승하지는 못하고 있다”면서 “가격 부담과 버블 우려 때문에 시장으로 유동성이 크게 유입되지 못하는 상

## 최근 10년 코스닥 추이



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주식시장 전체 시총에서 코스닥이 차지하는 비중이 12%에 육박한다는 것도 우려의 목소리를 뒷받침한다. 이는 닷컴 열풍과 함께 코스닥시장이 활황이었던 1990년대 후반~2000년 초반의 ‘IT 버블’ 이후 최고치다.

남기운 동부증권 연구원은 “코스닥이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10여년래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시장 과열을 알리고 있다”며 “긍정적 측면과 함께 부정적 신호도 존재하고 있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선택이 중요한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같은 우려와 함께 긍정적인 전망도 만만치 않다. 코스닥에 유입된 자금이 다른 투자처로 급속하게 빠

져나가거나 유가증권 소행주에 몰릴 가능성은 작다는 게 이유다. 시중에 풀린 자금이 구체적인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코스닥 향후 전망에 조심스럽게 긍정론을 보태고 있다. 외국인이 힘을 보태는 것도 코스닥 시장의 호재다.

마주옥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국내 주식시장은 외국인 수급 상황이 다소 개선되면서 반등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다만 코스피보다 유동성 환경에 민감한 코스닥시장의 상대적 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흑자기업이 줄었지만 그만큼 향후 성장세를 감안한다면 자금이 투자의 적기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단기적인 조정 영향은 존재하지만 장기적인

성장세를 지켜야 한다는 논리다.

김술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도 코스닥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유가증권시장보다 크다”며 “코스닥과 중소형주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나이가 신성장 사업에 발빠르게 뛰어드는 코스닥 업체가 많은 만큼 향후 기대감은 더욱 커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대형주에서 투자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자 중소·소형주가 선택적 관심을 받고 있다”며 “코스닥 시장이 과거에 비해 질적으로 개선됐고, 신성장 사업이 연결된 종목이 많은 만큼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 어떤 종목이 오르고 내렸나

### 바이오시밀러·제약·핀테크

### 디지털콘텐츠·IT 소프트웨어

올 들어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시밀러 및 제약, 핀테크(Fintech·금융과 IT 융합 산업) 업종이 지수를 견인했다. 여기에 실적이 부진했던 부품주들이 주목을 받았다. 반면 디지털콘텐츠, IT S/W 업종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한 달 사이 바이오 및 제약 업종 지수는 7.3% 상승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 셀트리온, 메디톡스, 내슈렐엔도텍 등 3개 종목이 바이오 관련주다. 셀트리온의 경우 코스닥 지수가 고점을 경신한 지난 17일 시총 1위를 탈환했고, 내슈렐엔도텍은 이달 들어 시총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바이오 업종의 경우 한국 거시경제 측면의 당위성과 글로벌 인구 고령화라는 메가 트렌드를 업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 긍정론에는 흔들림이 없다”라며 “글로벌 바이오·헬스케어 섹터 투자심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증시에서

도 시장 대비 바이오 업종의 강세 흐름이 뚜렷하다”라고 설명했다.

정부 정책으로 코스닥에서 두각을 보인 업종은 ‘핀테크’ 관련주가 원조다. 핀테크 대장주인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페이’, ‘뱅크월렛카카오’ 등으로 핀테크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음카카오를 필두로 다날, 한국사이버결제, KG이니시스 등이 연초 높은 주가를 기록했다.

부품주의 상승도 두드러진다. 지난 2013~2014년 부진했던 실적을 털고 올 들어 신고가를 세우는 등 눈부신 활약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6’의 선전으로 부품주의 실적 개선이 예상되면서 주가도 오르는 모습이다.

파트론은 증권사에서 업종 내 품으로 꼽히고 있고 알에프텍, 이노칩, 세코닉스, 유아이엘 등도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거론된다.

황윤주 기자 hyj@

## 아픈 반전의 역사

- 2000년 IT버블에 2925까지 치솟아... 1년 만에 추락
- 2007년 호황 누리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4분의 1 토막

최근 코스닥시장의 상승 국면에서 과거 상승기를 떠올리는 투자자들의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상승세를 과거와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1996년 코스닥 시장 개장 이후 황금기로는 1990년대 말부터 2000년까지와 2007년 말 무렵의 두 시기가 꼽힌다.

1998년 말부터 인터넷 열풍을 바탕으로 미국 나스닥 시장이 상승세를 타면서 코스닥에도 첫 번째 황금기가 찾아왔다. 1999년 한해 동안만 국내에 벤처기업 1만개가 설립됐다. 1998년 11월 600포인트 초반에 머물던 코스닥지수는 약 1년 5개월 만인 2000년 3월 10일 장중 2925.5포인트로 5배 가까이 폭등했다. 그러나 나스닥 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벤처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거품이 순식간에 빠지면서 이듬해 1월 502포인트로 떨어졌다.

두 번째 코스닥 황금기는 2007년 하반기 무렵이다. 중국, 인도 등 이머징 국가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주요 선진국의 저금리 기조를 바탕으로 세계 증시가

활황을 띠었다. 2007년 7월 13일 코스닥지수는 장중 841.09포인트를 기록하면서 다시 한 번 부활의 날개를 펼쳤다. 그러나 그해 10월 미국발 금융위기가 대두되면서 석 달 만에 245.06포인트로 하락해 4분의1 토막이 됐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2000년도에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부실주가 많아 한해 동안 전체 코스닥 상장사의 15.89%에 해당하는 96개 기업이 상장폐지됐다”며 “최근 코스닥 상장 폐지율이 1.41%로 낮아 시장 건전성이 높은 상황과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과거와 달리상황이나 투자환경도 다르다는 분석이다. 신중호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닷컴버블이 붕괴될 당시에는 금리가 오르면서 코스닥 지수가 부러졌지만 최근 금리는 국내 사상 유례 없는 1%대”라며 “유가증권시장이나 부동산시장 수익도 저조해 코스닥에 대한 투자수요가 지속되면서 과거처럼 주가가 주저앉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다운 기자 gamja@

Made in XGI

## 당신을 떠올리면, 자이가 생각납니다

늘 가족의 행복이 우선인 사람,  
남보다 앞선 내일을 사는 사람,  
당신을 생각하면  
자이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앞선 행복은 자이로 기억됩니다

신도시를 두배로 누리다

한강센트럴자이 2차

전분주택 개관중

- 한강신도시의 풍부한 생활 인프라/김포도시설도 (신대)
- 4.079세대 중소형 대단지 자이 프리미엄
- 총 4.079세대 중 60% 이상 94 / 100㎡
- 시공 : 영보부동산 / 시공 : GS건설 / 유틸리티 : 세제관리사업

1644-1988

미사의 가치에 한강을 더하다

미사강변리버뷰자이

3월 분양 예정

- 모두가 꿈꾸는 한강조망(일부세대), 한강생활
- 대규모 개발 계획으로 미래까지 상승
- 총 5554세대 91 / 98 / 102 / FH 128, 132㎡
- 시공 / 시공 : GS건설

1644-7171

오산과 동탄을 가깝게 누리다

오산시티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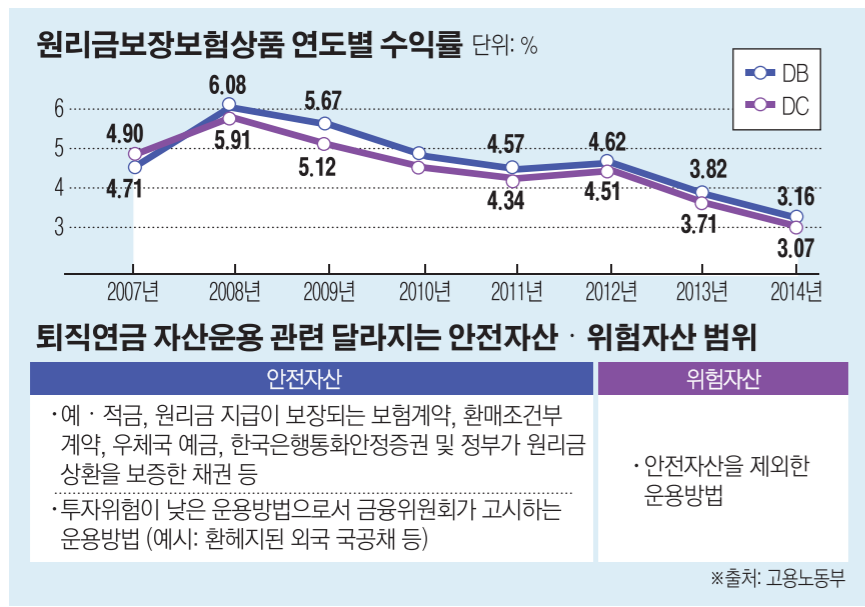
4월 분양 예정

- 동탄신도시와 오산시 도심을 누리는 편리한 생활
- 오산 최대 3230세대 미니신도시 자이프리미엄
- 총 3,230세대 중 1단계 2,040세대 59 / 78 / 84 / 101㎡
- 시공 : 이케이건설주식회사 / 시공 : GS건설

031)372-0000

순환 하나로 컨트롤되는 홈 빅데이터 | 지구까지 생각하는 그린스마트시스템 | 단지 내 원스톱 커뮤니티 자이센터 | 입주인 헬스케어를 위한 CS전용 콜센터

GS건설



## 저금리에 퇴직연금도 규제 완화 5월부터 DC형·IRP 위험자산 투자한도 70%로

### 고용부, 적립금 운용 자율성 확대

정부가 저금리 기조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관련 자산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이를 위해 오는 5월부터 주식, 펀드 등 위험자산 보유 한도가 40%로 묶여 있는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의 총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확정급여형(DB형) 수준인 7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자율성 확대를 골자로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DC형 및 IRP 위험자산 총 투자 한도가 근로자별 적립금의 40%에서 70%로 완화된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중위권, 중수익을 추구하는 근로자들이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높일 수 있게 돼 적립금의 자율적 운용이 가능해졌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구분도 명확해진다. 예·적금, 원리금 지급이 보장되는 보

험계약, 환매조건부 계약, 우체국 예금,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 또 환헤지된 외국 국공채 등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운용 방법 중 투자위험이 낮은 것을 '안전자산'으로 규정된다.

그 외의 운용방법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된다. 그동안 위험자산이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투자 한도와 함께 금융위 고시로 명시돼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가 안전자산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고용부는 또 복잡한 자산운용 규제를 단순화하고 개별 상품 유형별로 규정된 투자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대신 금융위와 협의해 사모펀드, 후순위채 등 운용 위험성이 높은 자산 유형을 구체적으로 투자금지 대상으로 명시하고 그 외의 투자 가능 자산은 전체 투자한도 70%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마련해 소비자 보호에 힘쓰고 상반기 중으로 퇴직연금제도에 적합한 투자권유준칙도 만들어 투자상품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민경 기자 puri21@

## 칭찬합니다 도종환 의원이 추천한 김세연 의원

### “격이 있는 차세대 리더로 충분”

역사인식 높이 평가...“반듯하면서 유연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은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에 대해 “원칙과 기본을 지켜야 할 부분에 있어선 양보 없이 단호한, 그러나 상대의 견해에 귀 기울일 줄도 아는 반듯하면서 유연한 의원”이라고 말했다. 도 의원은 김 의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부 활동을 잠시 같이했고, 현재 동북아역사협력위원회에 함께 몸담고 있다. 도 의원은 상임위 활동을 함께한 김 의원에 대해 “차세대 리더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며 후한 점수를 줬다.



특히 도 의원은 김세연 의원의 여당 간사에 이어 위원장을 맡은 동북아역사협력위원회의 활약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김 의원이 간사를 맡으면 상임위 전체가 잘 돌아간다. 야당도 김 의원의 일하는 방식을 좋아한다”면서 “의회주의자, 민주주의자이면서 실력도 있고 꼼꼼하다. 역사 인식 역시 분명한 분”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지난 18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 제정을 주도했던 점도 언급. “선진화법이 발현돼 국회 전체의 품격이 한 단계 올라가게 된 건 김 의원의 중요한 공로”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이자면 김세연 의원처럼 격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미영 기자 bomnal@

### 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춘계학술대회



2015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춘계학술대회가 2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이 행사장에 전시된 의료기기 등을 둘러보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 英연방·중국·중동 ‘뿔’ 대대적 홍보나선 차정부

# 위기 때마다 ‘해외카드’...성과는 ‘글썸’

‘제2 중동뿔’ 위해 5조 투자 스위스 ‘일·학습 병행제’ 도입... 실적·투자 과장 지적 잇따라 정책실효성 상실 문제점으로 경기불안 타개용 ‘대중요법’도

박근혜 정부가 위기 때마다 ‘국외순방’ 카드를 내밀었지만 정작 실적은 빈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달 초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방문을 통해 현장에서 9억 600만 달러의 수출·수주 계약 실적을 올렸다고 적극 홍보하며 향후 5조원가량의 후속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외순방 실적과 투자계획이 과장되거나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의 중동 순방 성과로 소개된 사우디아라비아 수출 실적의 경우 정부는 한국과 사우디 제약기업 간에 향후 5년간 2000억원 규모 ‘플랜트(plant) 양해각서(MOU)’와 의약품 수출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지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단순히 구두상의 계약일 뿐더러 액수 또한 과다한 데다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

정부의 후속투자 계획 또한 투자에 따른 후속 성과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 주요 해외순방 일지 및 후속결과

일시(국가)	주요내용	후속결과
2014년 1월 (인도)	·쌍용차 투자 요청	·마힌드라 실적적 투자 미약
1월 (스위스)	·고용률 70% 정책 위한 직업교육제도 벤치마킹 추진	·청년실업률 최악
6월 (중앙아 3국)	·우즈베키스탄 경제협력 강화, 카자흐스탄 사업계약	·우즈베키스탄 태양광발전사업 지지부진, 카자흐스탄 발전소 국민연금 투자 논란
11월 (중국)	·한중 FTA 타결	·낮은 FTA 타결 수준, 신장타이 정책 이후 후속 조약 재조정 가능성
2015년 3월(중동)	·1조원 가치적 성과 발표	·사우디아라비아 의료 성과 땀띠기 논란

세부 투자계획조차 분명치 않아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에 그쳤다는 분석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정부의 해외순방 실적과 ‘뿔’은 박근혜 정부 들어 줄곧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1월 인도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인도 대기업을 마힌드라에 ‘쌍용차 1조원 투자’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1년이 넘는 지금까지 마힌드라에선 1조 원 투자 재확인이란 구두 약속만 남발하고 있다.

같은 달 방문한 스위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고용률 70%’ 정책으로 스위스의 직업교육제도를 도입해 일·학습병행제 등

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까지 청년실업률은 최악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6월 중앙아시아 3개국을 방문한 박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태양광발전사업 참여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중앙아시아 순방길에 동행한 한화큐셀코리아는 3억 달러 규모(100MW)의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태양광발전소 프로젝트 입찰을 지난해 11월 포기했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측이 ‘회사 연혁 6년 이상’이라는 요구 조건을 명시하며 사실상 우리 기업 참여에 어긋났을 상황이라 경제협력 강화를 전명하고 돌아온 박

대통령의 입지가 난처해졌다.

지난해 11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또한 박 대통령의 치적으로 남았지만 APEC에서 한중 정상 간 조우시기를 맞추고자 낮은 단계의 협상에 치중한 데다 중국의 신장타이 정책 이후 후속 협약의 재협상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사실상의 실적이 무색해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세일즈 외교’를 표방하면서 지난해 10월 기준 총 18회에 걸쳐 22개국을 72일간 방문했지만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 순방 성과로 꼽았던 해외자본 투자유치 8000억원 중 실제 투자로 이어진 금액은 4.5%인 360억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특히 해외순방의 경제 성과 과장에 집착하는 것은 떨어지는 지지율과 국민전환의 측면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한국개발에 따르면 2014년 1월 인도-스위스 순방 시 2%포인트, 3월 네덜란드-독일 순방 때 3%포인트, 9월 두 번째 북미 순방 시 5%포인트 지지율이 상승한 점이 이를 방증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확정되지 않은 성과를 남발하면서 정책 신뢰성을 상실하고 있는 점을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그러면서 국내 경기침체를 이 같은 방식으로 호도하면서 향후 정부 경제정책의 부담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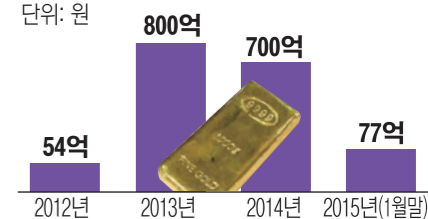
김희준 기자 h9913@

### 모델하우스 ‘북적북적’...부동산시장 불 왔다



22일 서울 왕십리뉴타운 센트럴 모델하우스에서 주택구입예정자들이 입장을 위해 줄을 서 대기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3월 넷째 주부터 전국 13곳에서 청약의 접수하고 15곳에서 건보주택이 문을 여는 등 종전보다 더 많은 물량이 분양시장에 쏟아진다. 연합뉴스

### 조폐공사의 골드바 매출액



## 조폐공사 골드바 매출 2년새 54억 → 700억 작년 총 매출액 16% 차지

한국조폐공사의 지난해 ‘골드바’ 매출액이 700억원에 달해, 2년 전 54억원보다 1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조폐공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폐공사가 골드바 판매 사업을 시작한 지난 2012년엔 금융권 및 전자소품 등 제한적인 판매망을 통해 소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매출액이 54억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듬해부터 판매망 확대 등으로 사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2013년 800억원, 2014년 700억원으로 매출 실적이 올랐다. 지난해 기준으로 골드바 매출 비중은 조폐공사 총 매출액(4276억원)의 16.4%를 차지한다.

하지만 조폐공사의 골드바 판매로 귀금속업계에서는 공기업이 직접 판매시장에 들어오면서 기존 중소기업이 도산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조폐공사는 지난해 9월 기준 업계 외의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하고 저렴한 가격에 공사의 골드바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사)한국금협회 등을 통해 협회 회원사에 공급한 실적이 3억6800만원으로 지난해 판매실적의 0.5%에 불과한 반면 효소핀 등을 통해 판매한 금액은 251억원(36%)이나 돼 상생협력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조폐공사는 지난해 골드바 판매량이 1.6톤으로 국내 총거래량인 150톤의 1% 정도로 추정돼, 국내 금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수준이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하경제 양성화 일환으로 2013년 7월 정부에서 발표한 ‘금거래 양성화 방안’에 따라 2014년 3월 한국거래소에 ‘KRX 금시장’이 개장되면서 조폐공사는 금 품질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금 품질인증사업으로 거둬들이는 수입은 지난해 고작 2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미영 기자 bomnal@

## 뉴질랜드, 한국 14번째 FTA 영토로

오늘 정식서명...농림수산·인적교류 상생협력 틀 마련키로

우리나라와 뉴질랜드 간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이 완료됐다. 한-뉴질랜드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4번째 FTA로, 이번 서명을 통해 연방방 3개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과 FTA를 마무리 짓게 됐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팀 그로서 뉴질랜드 통상장관은 23일 서울에서 한-뉴질랜드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 한-뉴질랜드 FTA는 상생협력을 통해 양국의 강점을 공유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틀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뉴질랜드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 이상인 부국인 데다 우리나라와 상호 보완적 산업·무역구조를 갖고 있어 한-뉴질랜드 FTA가 발효되면 협정을 통한 교역 및 투자, 인적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 양국의 교역규모는 약 32억6000만 달러로, 우리나라는 승용차, 건설중장비, 화물자동차 등을, 뉴질랜드는 원자재, 목재, 낙농품, 육류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한-뉴질랜드 FTA를 계기로 동물질병

### 한-뉴질랜드 FTA 협상시작부터 정식서명까지

일시	내용
2009년 6월	협상 개시(제1차 협상 개최)
2009년 9-2010년 5월	제2-4차 공식협상 이후 상품시장 개방 수준 및 이익균형 확보 방안에 관한 임축 입장지대로 협상 중단
2013년 7월	FTA 현황점검회의 개최 및 양국 정상회담 계기로 협상 재개 공감대 형성
2013년 11월	한-뉴질랜드 FTA 비공식회의 개최
2013년 12월	양국 통상장관회담 계기로 FTA 공식 협상 재개 합의
2014년 2월	제5차 공식협상 시작
2014년 3-10월	제6-9차 공식 협상
2014년 11월	협상 타결 선언
2014년 12월	한-뉴질랜드 FTA 가서명
2015년 3월	한-뉴질랜드 FTA 정식서명

위험 분석, 수산과목, 임업협력 등 농림수산분야에서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뉴질랜드의 선진 경쟁력을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뉴질랜드 현지에서 교육·훈련이 추진된다. 또 매년 150명씩 8주간 우리 농어촌 청소년들의 뉴질랜드 영어연수 기회가 마련되고 세계적 영농 활영지로 각광받고 있는 뉴질랜드와 영농, 에니메이션, 방송 프로그램 등 두 나라의 시장과 공동 제작물에 대해 국내 제작물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교육·문화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는 별도로 양국 장관은 워킹홀리데이 제도 개

선, 일시고용임금비자 및 농축수산업훈련비자를 도입해 양국 간 인력이동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별도 서한으로 합의했다. 정부는 현재 대외경제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을 참여시켜 한-뉴질랜드 FTA 협상 결과를 반영한 경제적 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며, 이번 시일 내 마무리해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양국은 아울러 한-뉴질랜드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국회 비준동의를 포함한 후속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전민경 기자 puri21@

# 보험사 “자작극” vs 차주 “알고보니 지인일뿐, 사기 아냐” 람보르기니 충돌... 진실은?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람보르기니 충돌 사고가 보험금을 노린 자작극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차주가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해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4일 거제시 교현동 한 도로에서 SM7 승용차가 앞서 가던 A씨의 람보르기니 가야르도를 뒤에서 들이받으면서 벌어졌다. 당시 SM7 보닛과 람보르기니 뒷범퍼 등이 파손됐다.

람보르기니 수리비는 1억4000만원이고 수리에 따른 렌트 비용만 하루 2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조사에 나선 동부화재는 이번 일이 보험금을 노린 두 차량 운전자가 짜고 낸 사고로 결론내렸다. 동부화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난 18일 오후 ‘고의성이 있는 사고’란 내용이 담긴 합의서와 보험금 청구 포기서서 A씨의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람보르기니 차주 A씨는 “사고가 나고 보니 광고롭게도 상대 차량 운전자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었다”며 “좁은 지역사회에서 얼굴만 아는 사이일 뿐 서로



추돌사고 고의성 여부 팽팽 경찰, 당사자 소환조사 방침

연락처도 모르는 관계인데 보험사기로 몰리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고가 크게 화제가 된 것에 부담을 느꼈고 상대 차량의 지인이 적절한 수준에서 잘 마무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이었다”며 “고의성 여부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서명했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SM7 차량 대물보험 한도가 1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금을 노렸다면 한도가 훨씬 높은 차량을 골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량 관리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수백만원 정도 비용으로 차량 수리를 거의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동부화재 측은 두 차량 운전자의 관계를 떠나 사고 정황상 자작극이라며 A씨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회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는 토요일 낮 12시께 관동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에 발생했다.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이고 속도를 낼 수가 없는 구간인데 SM7 차량의 에어백이 터질 정도로 사고 충격이 컸다.

그럼에도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도로 표면에 차량 급정거 흔적의 스키드마크도 없었다는 것이다.

관할 거제경찰서는 동부화재 측에 이번 사고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했다.

경찰은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당사자들을 불러 사기미수 혐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유혜은 기자 euna@



다시 깨내 입은 겨울

꽃샘 추위로 초겨울의 쌀쌀한 날씨를 보인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 서 시민들이 몸을 움츠린 채 출근길을 재촉하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 바뀌는 삼성고시에... 또 10만명 넘게 몰렸다

무스펙 SSAT 올해로 끝나... 최대인원 응시예고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삼성직무적성검사(SSAT) 마지막 기회에 도전하는 삼성 대졸 공채 지원자가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은 인터넷을 통해 진행된 16개 계열사 상반기 3급(대졸) 신입사원 지원서 접수를 20일 오후 5시 마감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16개 삼성그룹 계열사는 공채채용 지원서를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받았다.

이번 채용 과정에서는 동일 계열사에 3회까지만 지원할 수 있는 횟수 제한을 철폐했다. 또 에세이를 먼저 제출받는 방식으로 채용제를 손질했다. 채용 필기시험인 삼성직무적성검사(SSAT)는 다음 달 12일 서울·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5개 지

역과 미국 뉴욕·로스앤젤레스, 캐나다 토론토 등 외국 3개 지역에 서 치러진다. 삼성은 임원면접과 직무역량면접을 거쳐 6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 채용은 학점이 3.0 이상에 영어회화시험 점수만 있으면 누구나 SSAT에 응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여서 예년보다 경쟁이 더 치열할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 신입사원 공채 지원자는 2013년 하반기에 처음 10만명을 넘어섰고, 2014년에는 연간 SSAT 응시자가 20만명에 육박했다.

삼성엔 올 하반기부터 직무적합성평가를 통과해야만 SSAT 응시 기회를 주는 새 채용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한다. 채용 과정도 '직무적합성 평가-SSAT-실무면접-창의성면접-임원면접'의 5단계로 늘어난다.   
권태성 기자 tskwon@

## 檢, 포스코건설 前 베트남법인장 체포

정동화 前 부회장도 소환조사 예정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지난 21일 전직 포스코건설 베트남법인장(상무) 박모씨를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9~2012년 진행된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공사대금을 부풀려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40억여원을 가로챘 혐의를 받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이에 앞서 내부 감사를 통해 박씨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박씨가 비자금을 현지 리베이트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해 자체 징계만 내린 뒤 형사 고발하지 않았다.

검찰은 그러나 박씨가 조성한 비자금 중 상당액이 용처를 알 수 없는 곳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차례 박씨를 불러 조사한 뒤 전날 밤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23일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르면 이번 주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포스코건설 감사실에 근무하

는 관계자들을 최근까지 잇따라 불러 비자금 조성 경위와 함께 정준양 전 회장의 배임 의혹을 조사하고 벌리 검토에 나섰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과 사용 등에 정동화 전 부회장과 정준양 전 회장 등 고위 경영진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준양 전 회장이 재임 중 회사에 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에 나섰는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정준양 전 회장 재임 때 포스코 계열사는 41곳 늘었지만, 절반 가까운 18곳이 자본잠식되며 경영이 악화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포스코 측은 이와 관련해 사업 다각화의 일환이었고 적절한 평가를 통해 인수합병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인수합병으로 수조원에 이르는 포스코의 현금성 자산이 사라지는 과정에 정준양 전 회장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정동화 전 부회장을 이번주 조사한 뒤 이르면 다음달 초 정준양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좌영길 기자 jy97@

## 감사원, KAI 로비의혹 등 방산비리 감사

환전차익으로 10억 불법자금 조성 의혹

감사원이 국내 최대 방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방산 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일 감사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방산비리특별감사단이 KAI를 상대로 기동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은 KAI 운영 전반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AI는 지난해 전력화된 경공격기 FA-50과 고등훈련기 T-50, 기동헬기 수리온 등을 개발한 국내 최대 방산기업으로, 2014년 매출 2조3149억원, 영업이익 1613억원, 당기순이익 1111억원을 기록했다.   
김익중 기자 zerg@

감사원은 2개팀 10명의 감사 인력이 투입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KAI가 환전 차익을 회사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식으로 자금을 빼돌렸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 업계에서는 KAI가 이 같은 수법으로 10억원 상당의 불법 자금을 조성하고 로비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KAI가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의 무기획득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정·관계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익중 기자 zerg@

## 공정위, 가맹금 예치·보험가입 안한 ‘알파문구’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사업자와 계약을 하면서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피해보상보험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대형 문구 유통업체인 알파에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파는 2011년 10월부터 2014년 7월까지 72개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하면서 총 3억1170만원의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가맹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피해보상보험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   
가맹거래법은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가맹금을 은행에 예치해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알파의 가맹금 미예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을, 관련 제도 등을 몰라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가능성을 제거하고자 주요 임직원에게 교육 실시 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문구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공정위 최초의 가맹사업법 위반 제재 사례”라며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가맹금 미예치 행위를 포함한 가맹사업법 전반에 대한 지속적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



**어떤 아웃도어 스포츠 활동에도**

<b>배운유지</b> 통기성까지 갖춘 구스다운 보온능력	<b>활동성</b> 움직임까지 가볍도록 더 얇고 더 가벼워진 기술	<b>쾌적함</b> 속건성, 수분조절 기능으로 늘 쾌적한 컨디션 유지 가능
--------------------------------------	--	---

**VX DYNAMIC HYBRID JACKET NFJ3NG00 189,000원**

● BLACK ● PASTEL BLUE ● LIGHT GRAY ● DARK NAVY

\*본문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QR 코드 접속 상세서 노스페이스 '더 북페이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제품명: VX DYNAMIC HYBRID JACKET | 품명: 아웃도어 스포츠 자켓 | 색상: 파스텔 블루 | 소재: 100% 폴리에스테르 | 사이즈: M, L, XL, XXL | 가격: 189,000원 (배송비 별도) | 문의: 1577-0100 | 홈페이지: www.thenorthface.com

# 등돌리는 채권단...경남기업 법정관리?

완전자본잠식·압수수색 겹쳐...자금지원에 부정적  
주채권은행 신한, 기관에 동의여부 26일까지 접수

성완중 경남기업 회장이 경영권과 자본까지 포기했지만, 회사는 상장폐지와 함께 법정관리가 유력해지고 있다. 이미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데다 검찰 압수수색까지 겹치면서 채권단 분위기가 추가 자금 지원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특히 경남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과 가장 많은 여신을 가지고 있는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추가 자금지원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 경남기업에 대한 3번째 워크아웃

에 대한 감사원 결과 발표가 임박해지면서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잔뜩 움츠리고 있다. 지난 1999년 12월부터 진행된 3차례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시장·경제적 논리보다는 성 회장을 필두로 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깊숙이 개입되면서 금융당국과 채권단에 이어지는 불편한 연결고리가 형성됐다. 23일 경남기업 채권단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은 경남기업이 요청한 2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지원과 기존 전환사채(CB) 출자전환에 대한 각 채권기관 동의 여부를 오는 26일까지 접수하기로

했다. 경남기업이 채권단 자금지원 등을 받기 위해선 의결권 기준으로 채권단의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실사를 거쳐 산정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경남기업에 대한 의결권 비율은 수출입은행(26%), 서울보증보험(19%), 신한은행(18%), 무역보험공사(11%), 산업은행(6%), 국민·농협·우리은행(각 4%) 등이다. 그러나 채권단 내부에선 경남기업의 추가 자금 지원 요청에 '급한 불 끄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까지 경남기업에는 2조2000억원에 이르는 자금이 투입됐다. 지난 2013년 10월 세 번째 워크아웃을 신청한 이후 투입된 지원 자금만 총 5800억원에 달한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재 드러나

지 않은 부실이 또 있을지 판단이 서지 않아 추가자금 지원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채권단 분위기가 냉랭해지면서 주채권은행 신한은행에 대한 책임론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 2014년 2월 채권단으로부터 대규모 지원을 받은 경남기업에 1년 만에 또 다시 2000억원 지원을 요청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됐는데, 이를 사전에 점검하지 못하는 등 리스크관리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신한은행으로부터 경남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금융거래 내역 일체를 받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은행권의 특혜 의혹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안철우 기자 acw@

## 이성락 사장 "2018년 일품신한 달성"



이성락 신한생명 사장은 지난 21일 신한생명 창립 25주년을 맞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변화와 시작, 한마음 비전' 대회에서 중장기 전략목표로 '2018 일품(一品)신한'을 선포했다. 신한생명은 일품신한의 '일'은 생보업계에서 가치경영으로 주목받는 일류 보험사가 되자는 의미이며, '품'은 업계 표준의 자격을 갖추자는 뜻과 함께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자는 '따뜻한 품'의 의미를 함께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 신한생명

## 속터지는 '액티브X' 이젠 안갈아도 된다

카드사, 26일부터 대체 프로그램

이달 말부터 온라인 쇼핑시 신속한 결제의 걸림돌이 됐던 보안프로그램 액티브X(Active-X)가 완전히 사라진다. 또한 내달 말부터는 미국 페이팔이나 아마존과 같은 방식으로 전자상거래에서 카드 결제를 할 경우에 보안프로그램이 아예 필요없는 간편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23일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신한·현대·롯데·삼성·하나카드 등 5개 전업계 카드사와 NH농협카드는 26일부터 액티브X를 없애고, 대체 프로그램을 론칭한다.

신한·현대·NH농협카드는 26일 'exe'방식의 보안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롯데카드는 28일, 삼성과 하나카드도 각각 30일 액티브X 대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작년 12월과 2월 BC카드와 롯데, 우리카드가 이를 우선 시행한 데 이어 이제 모든 전자상거래상에서 액티브X가 사라지게 됐다.

액티브X는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서만 내려받을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으로, IE를 많이 사용하는 국내에서만 유통 표준화돼 대표적인 규제로 꼽혀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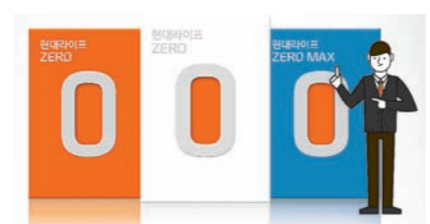
카드사들은 액티브X 폐지에 이어 내달부터는 보안프로그램이 아예 필요없이 아이디(ID)와 패스워드(PW)만으로 결제 가능한 간편결제를 시작한다.

이재현 기자 nfs0118@

## 사회초년생 한살이라도 젊을때 '보장성 보험' 현대라이프ZERO 종신보험 특약 없애 월 1만원대로 저렴

처음으로 고정수입을 갖게 된 직장 새내기들은 소비 유혹에 빠지기 쉽다. 현명한 새내기라면 철저한 소비계획과 앞으로의 경제활동기를 보다 안전하게 지켜 나갈 수 있는 노후가 필요하다. 새내기 직장인들의 재무설계에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보험 역시 마찬가지다. 먼저 보장성 보험의 경우는 한살이라도 젊었을 때 가입하는 것이 좋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금액으로 가입해야 한다. 새내기 직장인들을 위한 맞춤 보험상품으로 현대라이프 ZERO 종신보험이 있

다. 현대라이프ZERO 종신보험은 과감하게 특약을 없애고 사랑이라는 핵심보장에 집중해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35세 남자가 보험납입기간 20년, 가입금액 1억원, 60세형으로 가입 시 월보험료는 11만7000원이다. 또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집중보장 받을 수 있도록 60세형, 70세형, 80세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령 60세형을 선택할 경우 보험 가입시점부터 60세까지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장받고, 이후 종신까지는 보험가입금액의 50%를 보장 받게 된



다. 이는 종신보험을 가입 후 많은 사람들이 중도 해지하는 이유를 반영한 것으로서, 필요한 시기에 집중보장하고, 경제적으로는 보험료 납입의 부담을 줄이게 한 것이다. 이재현 기자 nfs0118@

# 소송충당금 확 줄인 은행 "승소 자신" vs "안일 대처"

작년 5곳 564억... 82%나 줄여  
금융사고 후 리스크관리 강화

현재 계류중인 소송 사건에  
국민 0.7%·우리 2% 준비 그쳐

은행	2013년	2014년
국민은행	32억5700만	26억2200만
신한은행	947억3500만	222억3000만
하나은행	187억5500만	124억5700만
우리은행	2067억4500만	163억4300만
기업은행	33억7200만	27억6900만

지난해 은행들의 소송 리스크가 큰 폭으로 줄었다. 각종 금융사고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데 따른 결과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지나치게 소송 패배 가능성을 낮게 보고 배상액을 자의적으로 추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송에 패소했을 경우 내어줘야 할 재무적 준비가 충분치 않다는 얘기도.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기업은행 등 5개 주요 은행의 지난해 소송충당부채는 564억2100만원으로 전년(3268억 6400만원) 대비 82% 줄었다. 절대적 규모가 가장 크게 줄은 곳은 우리은행이었다. 우리은행의 지난해 소송충당금부채는 163억4300만원으로 전년 2067억4500만원대비 90%나 급감했다. 신한은행 역시 지난해 222억3000만원으로 전년 947억3500만원에서 76%나 줄었다. 이 밖에 하나은행 33%(187억5500만원→124억5700만원), 국민은행 19%(32억5700만원→26억2200만원), 기업은행 17%(33억7200만원→27억6900만원) 소송

충당부채가 감소했다. A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각종 금융사고 이후 리스크관리를 더욱 강화하면서 소송 리스크가 줄었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은행들이 소송 패소에 대한 재무적 준비가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민은행이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179건이다. 소송금액만 3415억60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단 0.7%만을 충당금으로 쌓았다. 우리은행 역시 475건, 8412억7800만원의 피고 계류 소송에 대해 단 2%만을 재무적 준비를 마쳤다. 하나은행은 8.7%(130건, 1431억5300만원), 신한은행 7.4%(134건, 2998억3900만원), 기업은행 3%(188건, 916억5000만원) 역시 사정은 비슷했다. 이같은 은행들의 소극적 대비에 대해 일각에서는 소송 패배에 대한 보상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B은행 관계자는 "충당금을 적게 쌓는다고 보상 의지가 낮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 신보, 기업 신용리스크 컨설팅 확대 올해 1000개로... 빅데이터 기반 재무상황 진단·분석

신용보증기금은 보증기업의 신용도 향상을 위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Credit Risk Control 컨설팅(이하 CRC컨설팅)을 전면 확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신보는 CRC컨설팅을 올해 1000개 기업으로 확대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CRC컨설팅은 신보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거래처 관리 및 재무 상황 등 기업의 내외부 신용 리스크를 진단·분석해 기업경영에 필요한 신용위험관리 기법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기신용관리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을 것으로 신보는 내다보고 있다. 신보는 최근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지수 고공행진으로 기업의 신용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중소기업의 신용등급을 끌어 올리기 위해 CRC컨설팅 확대에 나섰다 설명했다. 특히, 신보는 CRC컨설팅을 받은 기업은 신용도 향상으로 인한 금융비용 절감이라는 혜택을 얻게 되고 신보는 신용리스크 감소로 부실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구기 기자 kkk@



건강한 원물로 만든 농장과자

# 팜온더로드

천혜의 환경을 가진 농장에서 직접 찾은 건강하고 맛있는 원물을 독특한 레시피로 맛있게 담다



우리의 대표 브랜드-삼성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4-08097호 (2014.12.03 ~ 2015.12.02)  
Stay Ahead는 고객을 위해 늘 한 발 앞서 있겠다는 삼성자산운용의 의지입니다

Stay Ahead™

# 중국투자의 大路가 열렸다! 준비된 삼성자산운용과 함께 나가십시오



후강통으로 더욱 뜨거워진 중국시장! 지속적인 투자와 준비로 중국시장을 리드해온 삼성자산운용과 함께 하십시오. 국내 운용사 중 최대 중국본토 A주 투자(QFII)는 물론 본사, 홍콩 현지법인, 상해 리서치센터를 통한 전문 운용 체제! 투자 성향별 맞춤형 투자가 가능한 다양한 중국 펀드 라인업까지! 중국 투자는 단연 삼성 펀드입니다.

중국 본토투자 (본토 A주 중심)	삼성 China2.0 본토 증권 펀드 [주식] 삼성 중국본토 중소형 Focus 증권 펀드 [주식] 삼성 중국본토 레버리지 증권 펀드 [주식-파생재간접형]
중화권 투자 (중국, 홍콩, 대만 등)	삼성 차이나 증권 펀드 [주식] 삼성 누버거버먼 차이나 증권 펀드 [주식-재간접형] 삼성 차이나 컨슈머 증권 펀드 [주식]
중국 투자 ETF	KODEX 중국본토 A50 ETF KODEX China H 레버리지(H) ETF

홈페이지([www.samsungfund.com](http://www.samsungfund.com))방문 또는 콜센터 080-377-4777에 문의하시면 삼성자산운용의 다양한 중국 펀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 방법, 보수 및 A주 과세 관련 사항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외화자산은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 파생상품 투자시 높은 가격변동성으로 단기간에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잃을 수 있으며,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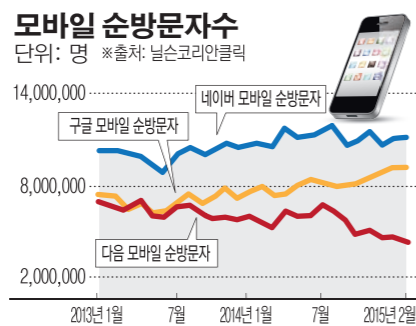
삼성자산운용



## 모바일 검색시장, 포털업계 엇갈린 명암

# 네이버 '굳건' 다카 '위기' 구글 '약진'

네이버, 점유율 75% '1위'  
'상품검색' 강화 선두 드라이버  
구글, 석달째 다음카카오 제쳐  
다음, 전용 검색 서비스 돌파구



지난해 12월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 '모바일 퍼스트(Mobile First)' 시대를 넘어 '모바일 온리(Mobile Only)' 시대가 왔다고 선언한 가운데, 모바일 검색 시장을 둘러싼 포털 업계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모바일 검색 점유율에서 구글이 다음카카오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날스코리아가 최근에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기준 네이버의 모바일 쿼리는 74.8%로 1위 자리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구글의 모바일 쿼리는 14.3%

로, 지난해 12월 이후 석달 동안 모바일에서 다음카카오를 제치고 2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구글이 모바일에서 석달 연속 다음카카오를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글을 눈여겨 봐야 할 이유다.

이에 반해 다음카카오의 모바일 쿼리는 10.9%로 브레이크 없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각 사는 나름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네이버는 '상품검색 강화'를 선택했다.

네이버 검색창에 입력되는 검색어의 34%가 쇼핑관련 키워드이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모바일에서 끊김없는 쇼핑경험을 제공키 위해 상품검색을 대폭 강화하고 '네이버페이'라는 이름의 간편 결제시스템을 새로 도입했다. 이 같은 서비스 변화는 올 상반기 네이버 페이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또 리뷰글 노출 로직 등 검색 서비스 전반을 점검해 올 4월부터 대가성 리뷰글이 사용자들의 검색 결과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위기감은 비단 네이버 뿐만 아니라, 구글도 마찬가지다. 실제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은 잠재적 경쟁자를 같은 검색엔진 기업이 아니라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상품관련 검색이 급증함에 따라, 첫번째 검색 엔진으로 구글이 아니라 아마존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글 역시 검색 환경을 모바일에 최적화하고 상품 검색도 강화하는 추세다. 특히 질문에 대한 정답만 밝혀줄 뿐 보여주는 네이버의 전매특허 '콘텐츠 검색'을 '유니버설 서치'라는 이름으로 벤치마킹 하는 등 검색기법에 대한 합종연횡도 서슴치 않고 있다.

하지만 국내 모바일 검색시장에서의 성장은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한 검색엔진 선(先)탐체(Preload)가 주요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다음카카오 역시 검색기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카카오와 합병하기 전부터 검색 품질 향상을 위해 스랑금곡 스바로 이거 스우사 이미지를 걸러주고 이용자의 성향을 결과에 반영해주는 '이미지 검색 개편' 등 다양한 서비스와 툴들을 도입한 바 있다. 다음카카오는 여름에 모바일 전용 검색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계획인 만큼 구글을 따라잡을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성태 기자 psi@

### 중국형 신형 '쏘나타' 대륙 누빈다



베이징현대차 관계자들이 20일(현지시간)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서 위치한 대운체육관에서 '중국형 신형 쏘나타'의 신차발표회를 갖고 본격 판매에 돌입했다. 중국형 쏘나타는 1.6L 터보 GDI 엔진과 7단 DCT(더블 클러치 변속기)가 장착됐으며 현지 도로 상황을 반영해 전고로 10mm 높였다. 현대차는 이 차량을 연간 12만대 판매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연내 현지 판매점을 현재 920개에서 1000개로 확장한다. 한편, 중국 중형차 시장은 경제 성장에 따른 중산층 증가로 올해 전년 대비 8.3% 성장한 154만대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 AK플라자, 갤러리아 제치고 '백화점 4위'

작년 매출 2조1500억... 4% ↑  
1000억 앞서... 21년만에 탈꼴찌  
수원·평택 등 '지역 1위' 뒷심  
갤러리아 휴점·매각 손실 커



AK플라자 수원역점.

사진제공 AK

AK플라자가 백화점 시장 탈꼴찌에 성공했다. 롯데와 현대, 신세계백화점 등 '빅 3'에 이어 4.5위를 놓고 벌인 갤러리아와의 경쟁에서 승리. 지난해 처음으로 순위가 뒤바뀐 것이다. AK가 갤러리아를 제치고 백화점 순위 4위에 오른 건 1993년 백화점 사업을 시작한 이후 21년 만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AK플라자는 2조15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4위를 놓고 싸웠던 갤러리아(2조5000억원)에 1000억원가량 앞지르며 4위 자리를 꿰찼다.

AK의 이번 4위 등극에 업계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불황에 따른 소비 문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4%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AK플라자는 2012년 1조9500억원, 2013년 2조7000억원, 2014년 2조15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비약적인 성장을 보였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

해 2012년에는 11.5%, 2013년 8.7%, 2014년 3.9%로 3년 평균 8%를 기록했다.

반면 갤러리아백화점은 2013년 2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5000억원으로 2% 역성장률 기록해 꼴찌로 주저앉았다.

AK의 성장세는 빅3에 비해서도 월등하다. 업계 1위인 롯데백화점의 매출은 2012년 13조원에서 2013년 13조7000억원(5.4%), 2014년 14조2000억원(3.6%)으로 성장률은 평균 4%대에 머물렀다. 현대백화점 역시 2012년 6조7800억원에서 2013년 6조9000억원(1.8%), 2014년 6조9800억원(1.2%)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AK플라자 관계자는 "성장을로만 따져 봤을 때 다른 백화점이 1~2%대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8%대의 성장세를 기록하며 1위를 놓치지 않았다"며 "규모 분점과 수원, 분당, 평택, 원주 등 일부 지역에서 계속 1위를 유지한 것도 이번 4위 도약에 힘이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AK플라자에 4위를 내준 갤러리아는 지난해 명품관 웨스트의 휴점과 점포 매각이 빠아졌다. 2개월간 휴점을 한 데 따른 매출 손실과 부산 동백점 매각으로 성장률 감소에 영향을 줬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윤철규 기자 yoonck@

### 말로만 중견기업 인력지원

#### '정부표' 채용앱 2년째 방치

중견기업 인력지원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정부표' 채용 어플리케이션이 구축 2년째 방치되고 있다. 정권이 바뀌고 조직개편이 진행되면서 사업 주체가 혼란을 빚자 자연스럽게 관심에서 멀어졌다는 지적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식경제부(현 산업부)가 2012년 구축한 중견기업 채용 앱 '유레카매거진'의 올해 3월 기준 다운로드 수는 약 1만2000건이다. 2013년 1월 앱 구축 2개월 만에 다운로드 1만건을 돌파했던 것을 감안하면, 2년여동안 불과 2000여건 늘어난 셈이다. 유레카매거진이 그동안 관심 밖에서 방치돼 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유레카매거진은 지경부가 중견기업육성을 신실하며 중견기업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당시의 산물이다. 융성직 산업부 장관이 지경부 1차관 시절에 야심차게 선보인 앱으로, 당시 "앱 공개 2개월 만에 다운로드 1만건을 돌파했다"며 기자들에게 유레카매거진을 적극 어필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개 2년여만에 유레카매거진은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 저조한 다운로드 수는 물론, 실제 유레카매거진을 이용하는 대학생이나 기업들도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구축 초기 정부가 중견기업 인력지원의 새로운 수단이라며 떠들썩하게 홍보했던 것이 무색할 정도다.

정부는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고 조직개편으로 사업 주체가 자주 변동되면서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탓도 있다"고 말했다.

김정유 기자 thec9@

## PHEV 국내 출시 봇물

BMW 26일 'i8' 론칭행사  
올 충전기 400개 설치 계획

현대차 '쏘나타' 6월 판매  
아우디 하반기 'A3 스포트백'



이달 말부터 국내 시장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PHEV)'이 대거 등장한다. BMW코리아를 시작으로 현대자동차와 아우디코리아가 올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PHEV를 내놓고 친환경차 라인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현대차, BMW코리아, 아우디코리아 등 3사는 PHEV를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 올해 정부가 친환경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자, 업체들이 앞다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출시하고 있는 것.

가장 먼저 시장에 진입하는 업체는 BMW코리아다. 이 회사는 오는 26일 PHEV인 'i8' 론칭행사를 갖는다. i8은 리터당 복합효율이 유럽 기준으로 47.6km에 달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km당 49g에 불과하다. BMW코리아는 i8을 연간 185대 판매할 계획이다. 이미 100여대는 사전 계약을 마쳤다.

이 회사는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400개 충전기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현대차도 오는 6월 '쏘나타 PHEV'를 출시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4월 열리는 '2015 서울모터쇼'를 통해 쏘나타 PHEV를 국내 시장에 처음으로 선보인 뒤, 6월 신차발표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위부터 현대차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BMW i8, 아우디 A3 스포트백 e트론.

국내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쏘나타 PHEV는 최고출력 154마력의 누우 2.0 GDI 엔진과 50kW 전기모터 등으로 시스템 최대출력 202마력의 동력성을 발휘한다. 순수 전기차 모드만으로 35.4km를 주행할 수 있다. 연비는 전기차 모드 주행시 리터당 39.5km, 하이브리드 모드시 리터당 17.0km에 달한다.

아우디 역시 서울모터쇼를 통해 PHEV 모델인 'A3 스포트백 e트론'을 선보이고 올 하반기 판매에 돌입한다.

김범근 기자 nova@

### 가보니 CJ제일제당 진천 유가공 공장

## 2년 개발 0.8mm 슬라이스햄 폭신한 식감 위해 신기술 적용

'저온 완만 해동' 육즙 손실 줄여  
클린룸, 국내 식품업계 최고수준  
청결 유지로 무첨가 콘셉트 구현



면도날로 얇게 깎은 듯한 햄이 컨베이어 벨트 위로 떨어진다. 물결 모양으로 포개진 햄은 포장대로 향했다. 지난 20일 방문한 충북 진천 CJ제일제당 육가공공장에서는 2년여간의 연구개발 끝에 완성된 0.8mm 두께의 슬라이스햄이 실재없이 쏟아져 나왔다.

더 건강한 브런치 슬라이스는 브런치를 즐기는 식문화 트렌드에 발맞춰 야심차게 준비한 신기술 슬라이스햄이다. 풍성하고 폭신한 식감을 위해 초박(Ultra-thin) 셰이빙 기술을 적용했다.

초박 셰이빙 기술은 마치 면도를 하는 것처럼 고기를 자르지 않고 얇게 깎는 질감을 구현하는 기술이다. 기존 슬라이스햄의 두께가 1.2mm에서 2mm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수준인 셈이다.

더 건강한 햄은 까다로운 과정을 통해 원료를 관리하고 있다. 원료육은 냉동 상태로 입고되기 때문에 해동하는 과정에서 육즙 손실이 발생한다. CJ제일제당은 고기 맛을 좌우하는 육즙 손실을 최소화하

기 위해 국내 최초로 '저온 완만 해동기술'과 '저온 텀블러 해동기술'을 도입했다.

진천 육가공공장은 합성첨가물을 줄이고 유통기한이 짧은 신선제품을 다루는 만큼 국내 식품업계 최고 수준으로 클린룸(Clean Room)을 설계했다. 관리 등급은 다르지만 반도체 공장처럼 무균상태로 관리해 대장균, 가스, 먼지를 최소화하는 청결을 유지한 것이다. '무첨가' 콘셉트를 구현할 수 있는 것도 이 같은 미생물 제어 장치 덕이다.

CJ제일제당은 더 건강한 브런치 슬라이스에 이어 오는 7월 출시 예정인 수제맥주와 어울리는 '더 건강한 천연장류랑크(가장)' 등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후속 제품군을 준비 중이다. 내년에는 저나트륨 추세에 맞춰 나트륨을 줄이면서도 맛을 유지한 저나트륨 제품군을 확충할 계획이다.

조승호 기자 sysy@

### 육중 최태원 회장, 지배구조 개편 나서나

SK그룹이 총수인 최태원 회장의 부재에도 지배구조 개편에 나섰다. 그룹 내 주력 계열사인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완전 자회사로 두기로 한 것. 재계는 과거 최 회장이 육중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그룹 안팎의 위기감이 증폭하면서 직접 챙기게 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기

로 의결했다. 현재 SK브로드밴드 자본 50.56%를 보유한 SK텔레콤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주식 교환 방식으로 잔여 지분을 49.44%를 전량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양사가 합병 계획이 없다고 선언했었으나 업계에서는 SK그룹이 빠르게 변화하는 통신시장에 대응하려고 합병을 포함한 전열 준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조남호 기자 spdran@



삼성전자 전자동세탁기 '액티브워시' 나오기까지

# 개발팀이 직접 인도 현지 14가구 찾아 “주부 허리 펴게 하자” 아이디어 탄생

“올해 글로벌 세탁기 목표 판매량은 1000만대에  
서 많게는 1500만대입니다.”

지난달 삼성 서초사옥에서 열린 '2015 삼성 세탁  
기&에어컨 미디어데이' 무대에 오른 윤부근 CE(소  
비자거전)부문 사장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액티브워시'에 대한 윤 사장의 기대감은 남달랐다.  
그는 이날 전체 세탁기 판매의 20%에 달하는 200만  
~300만대의 실적을 액티브워시로 거두겠다고 선언  
했다.

윤 사장의 호언장담은 현실화되고 있을까. 지난달  
초 국내 출시된 액티브워시는 출시 3주 만에 1만5000  
대 판매를 돌파하며 전자동 세탁기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기존 전자동 세탁기 판매와 비교할  
때 3배가 넘는 실적이다.

무엇보다 주부의 시선에서 세탁기의 문제점을 고  
민한 것이 적중했다. 액티브워시는 세탁기 본체에 개  
수대와 빨래판을 설치해 애벌빨래부터 탈수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다. 구부러 앉아 애벌빨래를 해야 했  
던 주부들의 허리를 펴게 한 삼성전자의 액티브워시  
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액티브워시는 신기하게도 한  
국 주부보다 앞서 인도 주부들에게 열렬한 호응을

구부러 앉아 애벌·손빨래하는 습관

세탁기 본체에 개수대·빨래판 설치  
탈수까지 세탁의 모든 과정 한번에~

지난해 4월 첫선...인도서 먼저 돌풍

국내 출시 3주만에 1만5000대 판매

“올해 글로벌 시장 1500만대 목표”

받은 제품이다.

삼성전자는 2012년, 2014년 인도 시장 세탁기 라인  
업 교체에 의해 신모델 콘셉트 발굴에 착수했다. 삼  
성전자 경영진은 무엇보다 소비자 맞춤형, 현지화를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주 사용자인 주부의 입장에서  
제품의 본질을 처음부터 바꾸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현지팀과 함께 과제명 'Dhobi Ghat' 세탁기 개발에

돌입했다. 액티브워시 아이디어는 철저한 소비자 관  
찰의 결과물이다. 연구팀은 선정된 인도 현지 14가구를  
직접 방문해 세탁하는 모습을 면밀히 관찰했다.  
방문한 모든 가정에서 발견한 공통점은 세탁 전 셔  
츠 소매나 깃 부분을 애벌빨래하는 점과 세탁기에 넣  
을 수 없는 섬세의류는 욕실에서 별도로 손빨래하는  
점 두 가지였다.

연구팀은 수차례의 아이디어 회의 끝에 '케어 센터  
(Care Center)'라는 액티브워시의 초기 콘셉트를 완  
성했다. 세탁기가 애벌빨래나 섬세의류의 손빨래를  
완벽하게 해줄 수 없다면 '소비가 편리하게 손빨래  
를 하도록 공간과 도구'를 제공하자는 역발상 아이디  
어인 것. 연구팀은 손빨래가 가능한 싱크가 부착된  
콘셉트를 하드보드와 플라스틱을 이용해 간이 목업  
을 제작, 프레젠테이션했고 경영진은 구현성을 검토  
해 목표 제작을 지시했다.

콘셉트 발굴 이후 2013년 4월 애벌빨래 세탁기 액  
티브워시 상용화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삼성전자는  
마케팅, 디자인, 개발부서에 전담팀을 구성하고 콘셉  
트를 기존 세탁기 플랫폼에 적용하기 위해 인도와 한  
국을 수차례 오가며 협의를 진행했다.



삼성전자 모델이 서울 논현동 삼성 디지털프라자 강남 본점에  
서 출시 3주 만에 기존 신제품 대비 3배를 초과하는 1만5000  
대를 판매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애벌빨래 세탁기 '액티브워  
시'를 소개하고 있다. 작은 사진은 삼성전자가 올해 1월 'CES  
2015'에서 공개한 '액티브워시'에서 애벌빨래 하는 모습.  
사진제공=삼성전자

마케팅부서는 소비자에게 '의미있는 제품, 시장  
에서 차별화된 제품', 사업적으로 '이익을 실현하는 제  
품'이 되도록 삼박자를 모두 갖춘 제품 기획에 주력  
했다. 디자인부서는 수백장이 넘는 아이디어 스케치  
를 반복했고, 개발부서는 구현 극대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최종 디자인을 완료, 목업을  
제작한 뒤 임원 품평회 인도 4개 지역 대상 소비자 조  
사 등을 거쳐 디자인 개선이 이뤄졌다. 이후 경쟁사  
제품과의 비교 선호도 조사를 통해 제품 콘셉트에  
대한 시장성을 점검하고 최종 목업이 제작됐다. 경영

진은 각 부서의 노력이 결집된 액티브워시에 합격 사  
인을 내렸다. 액티브워시는 약 2년간의 상품기획과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해 4월 인도 시장에 첫 선을 보  
였고, 현지 시장에서 과거와 다른 큰 성공을 거뒀다.

삼성전자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갔다. 액티브  
워시의 글로벌 도입을 위해 소비자 조사를 추가로 진  
행했고, 그 결과물을 지난 1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15에서 공개했다. 액티브워시는 이달 말까지  
국내에 21·19·17·10·8 등 4종류의 라인업이 새롭게 출  
시된다. 다음 달에는 북미시장 공략도 본격 시작되  
다.  
김지영 기자 gujy@

## 올 뉴 투싼 1.7ℓ '돌풍'에...“2.0ℓ도 좋아요”

현대차, 누적계약 5800대 인기  
49% 차지...2.0ℓ 권유 진풍경도



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올 뉴 투싼 1.7ℓ 모델의  
인기는 소형 스포츠유틸  
리티차량(SUV)의 돌풍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  
다. SUV 중 가장 작은 차급인 B세그먼트인 쌍용자동  
차의 '티볼리', 르노삼성자동차의 'QM3'는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올 뉴 투싼은 B세그먼트보다  
는 한 단계 높은 C세그먼트지만 1.7ℓ 모델의 가세로 배  
기량 측면에서 충분히 맞상대가 가능하게 됐다.

“신형 투싼 2.0ℓ 모델도 좋습니다. 1.7ℓ대신 2.0ℓ을 고  
려해 보시지요.”

현대자동차가 지난 17일 출시한 '올 뉴 투싼(사진)  
'에서 새롭게 추가된 1.7ℓ 디젤 모델이 예상을 뛰어넘는  
인기를 끌고 있다.

현 추이라면 공급 부족이 우려될 정도. 이 때문에 최  
근 현대차 영업 현장에서는 1.7ℓ 모델 대신 2.0ℓ 구입을  
권하는 진풍경이 일어나고 있다. 현대차의 한 영업사  
원은 “아무래도 1.7ℓ에 고객이 몰리다 보면 공급이 달  
릴 수밖에 없는 만큼, 두 모델의 장점을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의 올 뉴 투싼은 20일 기준으로 총 5800대가  
누적 계약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중 1.7ℓ 모델  
의 비중은 절반에 달하는 49%에 달한다. 사실상 주력  
모델인 2.0ℓ보다 배기량이 낮은 1.7ℓ 모델이 전체 판매

실용적인 SUV를 원하는 20~30대의 증가도 올 뉴 투  
싼 1.7ℓ 인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대차에 따르면,  
올 뉴 투싼 사전계약 개인고객 중 20~30대 비중은 40%  
수준에 달한다. 이전 세대 투싼의 2030세대 구입 비중  
(31.2%)보다 크게 늘어난 셈이다. 국내 완성차 업계 관  
계자는 “과거 20대는 준중형 세단을 선호하고 SUV는  
40대 이상이 주로 구입했다”며 “최근 몇 년 사이 SUV  
시장이 커지면서 연령대별 차 구매 패턴이 빠르게 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 '붕~' 전세계 갑부 선박투자에 쏠리니 벌크선 용선료 90% '곤두박질'

하루 3000달러...작년 말 7분의 1로



글로벌 해운시장의 벌크선 용선료가 곤두박질 치고  
있다. 비수기에 선박량까지 넘쳐나다 보니 일어난 현  
상으로 추락폭은 최근 3개월 동안 무려 80~90%에 달  
한다.

23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벌크선(이  
하 케이프 사이즈 기준) 하루 용선료(스팟)는 3000달  
러대로 지난해 12월(2만 달러) 대비 7분의 1 수 준으  
로 급락했다. 해운업체인 A사 관계자는 “이처럼 바다  
를 친 적은 사상 처음”이라며 “업황이 좋을 때는 데일  
리 스팟이 4만 달러에 달했고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  
을 때도 7000~8000달러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었다”  
라고 위기감을 토로했다.

벌크선 일일 용선료가 하염없이 떨어지는 이유는 불  
황에도 불구하고 케이프 사이즈의 벌크선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 세계 부자들의 돈이 선박 투자  
에 몰리면서 지난 1~2년간 건조작업을 거친 배들이 현  
장에 쏟아지고 있는 것. 해운업계 한 전문가는 “경기가  
안 좋을수록 선박 투자에 돈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며  
서 “당분간 이미 주문했던 벌크선들이 계속 쏟아져 나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해 이같은 현상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실제 영국 해운전문컨설팅회사인 드루리 분석에 따  
르면 전 세계 벌크선 수는 2010년 921대에서 올해는

50%가량 늘어난 1381대에 달한 전망이다. 업계는 오는  
2019년에는 1600대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용선료가 급추락하면서 계약 기간이 길수록 일 평균  
용선료가 비싸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글로벌  
현대 시큐리티즈에 따르면 벌크선 1년 용선 계약에 대  
한 일 평균 용선료는 약 9850달러다. 반면 3년일 경우는  
1만1750달러로 집계됐다. 해운업계 B사 관계자는 “지  
금 시장가가 워낙 바닥(일 3000달러)이다 보니 향후 상  
승세(통상 2만~3만 달러)를 대비해 장기 계약식 할인혜  
주기보다 더 비싸게 용선료를 책정하는 현상이 나타나  
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시황이 상향 안정된다  
면 중전처럼 용선 계약 기간이 길수록 할인 폭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우리집 공기주치의  
코웨이 공기청정기

- 창문 열고 환기시키기 두려운 황사철엔 [황사 맞춤형필터]
- 새집증후군이 걱정된다면 [새집증후군 맞춤형필터]
- 유해바이러스, 집먼지진드기가 많을이라면 [한집증후군 맞춤형필터]
- 유해가스가 생기는 주방엔 [유해가스 맞춤형필터]

### 코웨이 맞춤공기 케어

4종 맞춤형필터로 계절, 환경, 공간에 따라 달라지는  
공기의 질을 완벽하게 관리하는 건 오직 코웨이 뿐입니다

렌탈 및 구입문의 1588-5200 www.coway.co.kr



생명을 책임지는 기술  
coway

# 역세권·중소형·교육... 多 갖췄구나

## 주목! 이곳

### 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 3차

반도건설이 특화 전략을 통해 '김포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3차' 공급에 나선다.

최근 동탄2신도시에서 청약 1순위 마감한 반도건설은 '김포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3차' 분양에 앞서 평면 특화 등 유보라만의 핵심 아이콘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단지는 김포한강신도시 AB17블록에 지하 1층, 지상 12층 14개동으로 전용면적 59~84㎡ 662가구로 구성된다.

59㎡ 타입은 4베이(Bay) 맞통풍 구조로 가변형 벽체 적용으로 입주만에 따라 다양한 공간활용이 가능하며, 기호에 따라 넓은 거실 또는 침실로 선택해 활용 가능하다. 주부들의 편리한 작업공간을 위해 'L'자 형태의 주방 설계, 벽 부분을 팬트리로 구성했고, 팬트리 문에도 철제 바스킷 등으로 수납을 극대화했다.

84㎡A 타입도 4베이 맞통풍 구조로 가변형 벽체 적용으로 거실+침실 확장 시 실현되는 약 7.7m 광폭 거실, 통풍과 환기를 극대화한 3면 개방 창 구조로 통풍 및 채광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2018년 개통 예정인 김포신도시시도시설도 마산역(가칭)에서 바라본 '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3차' 조감도.

사진제공 반도건설

전용면적 59~84㎡ 662가구

4베이 맞통풍 구조 '환기' 국

김포도시철도역 앞 알짜임지

지역내 첫 별동학습관 눈길

84㎡B 타입은 가변형 벽체 적용으로 거실+침실 확장 시 실현되는 약 7.7m 광폭 거실, 통풍과 환기를 극대화한 3면 개방 창 구조로 설계됐다. 특히 안방 내 드레스룸 안쪽 공간은 서재 또는 수납공간 등 부

부 독립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주부를 위한 수납공간과 팬트리 수납장까지 기본으로 제공해 맘스오피스, 자녀놀이방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알짜공간을 서비스 받는다.

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 3차는 용적률 100%가 넘지 않는 저밀도 공원형 아파트로 설계된다. 더불어 일부 가구 1, 2층에 테라스 설계를 적용해 약 50㎡(약 15평)가 넘는 규모의 서비스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반도건설은 동탄2신도시와 평택, 대구, 양산 등 전국 각지에서 쌓아온 차별화된 교육 특화를 적용해 전문 교육기관과 연계, 입주민의 교육여건을 한 단계 높일 계획이다.

초·중학교와 인접한 교육환경과 더불어 김포한강신도시 최초로 단지 내에 2층 규모의 별동학습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3040의 젊은 소비자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어린 자녀들과 입주민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김포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 3차는 '역세권 프리미엄'이라는 입지적 장점이 매우 크다. 김포도시철도(2018년 개통예정)의 마산역(가칭)이 단지 바로 앞에 있어 김포 공항역 환승을 통해 강남이나 여의도로의 진입뿐만 아니라 9호선을 통해 강남으로의 진입까지 교통이 편리해진다. M버스 정류장도 단지에 인접할 계획이다.

박태진 기자 tipjoo@

# 아파트 청약제도 완화 효과



최근 1순위 청약 마감된 경북 구미의 '문성파크자이' 모델하우스에는 지난 주말 2만3000여명이 몰렸다. 사진은 모델하우스에 입장하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 사진제공 GS건설

## 미분양의 무덤? 줄을 서시오~

아파트 분양시장에 청약제도 완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달 분양을 시작한 대다수 단지가 청약 1순위 마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데다 청라, 김포 등 미분양이 많았던 지역도 미분양이 줄며 수요 경쟁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3월 청약 접수가 마감한 단지는 지난 20일 기준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27개 단지에 달한다.

이 중 청약 1순위로 끝낸 단지는 '구미 문성파크자이' '청라파크자이' 더 테라스 LA1블록' 등 16개 단지로 전체의 60%에 달한다. 순위 내 마감이 안된 단지는 6개에 불과하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청약 미달 단지가 적지 않았지만 지난 2월 말부터 적용된 청약제도 1순위 자격 완화로 청약 1순위 자격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약제도 1순위 요건은 수도권 2년→1년

미분양 단골지역 순위내 마감 김포 '센트럴자이 2차' 2.7대 1 청라 '파크자이' 9.4대 1 기록

지난해까지만 해도 청약 미달 단지가 적지 않았지만 지난 2월 말부터 적용된 청약제도 1순위 자격 완화로 청약 1순위 자격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약제도 1순위 요건은 수도권 2년→1년

경기도 김포시는 지난해 5월 미분양 가구가 4200가구에 육박하면서 '미분양 무덤'으로 불렸다. GS건설이 지난해 같은달 분양했던 '한강센트럴자이 1차'는 당시 청약 기간에 총

7개 주택형 중 6개 주택형이 모두 미달했다.

하지만 지난 9일 청약접수를 완료한 '한강센트럴자이 2차'의 경우 평균 1.43대 1의 경쟁률로 순위 내 마감했다. 특히 72가구를 모집하는 100㎡ 타입에는 194명이 접수해 최고 경쟁률 2.69대 1을 기록했다.

김포와 함께 미분양 양대산맥을 이뤘던 인천 청라국제도시도 3월 들어서면서 분양시장 훈풍 기운이 돌고 있다. 지난 12일 청약을 시작한 GS건설의 '청라파크자이 더 테라스'는 평균 청약경쟁률 9.4대 1로 높은 인기를 보였다.

지방 분양시장 역시 청약제도 완화로 인해 분양 훈풍을 이어가고 있다.

이기간 건설이 지난해 10월 충남 아산 아산테크노밸리에 '아산 테크노밸리 이지더원 2차' 1254

가구를 선보였지만 1순위 청약접수 결과 경쟁률은 0.01대 1에 그쳤다. 그러나 최근 공급한 '아산 테크노밸리 이지더원 3차'에서는 8000여 가구의 대규모임에도 순위 내 마감했다.

합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분양시장은 성수기인 데다 청약제도가 바뀌면서 수요자들이 분양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며 "높은 전세가격에 피로감이 누적된 데다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 때문에 신규 분양시장으로 많이 몰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경진 기자 jungkj@

## 금주의 분양 캘린더

날짜	구분	시	구	읍면동	아파트명	연락처
3/23 (월)	계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서울한영해사안 (~3/25)	02)468-5558
				구로구	온수동 다정원시티 (~3/24) ▲	02)2613-1001
				용인시	구갈동 기흥역지웰부르지오 (~3/25)	03)281-8800
3/25 (수)	접수	경기	화성시	오산동	왕산리뉴타운3구역센트라스 1순위	1600-1170
				오산동	동탄2신도시세일원의뜰(A34) 1순위	03)221-4700
				오산동	동탄2신도시세일원의뜰(A34) 1순위	1800-0037
3/26 (목)	접수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2신도시세일원의뜰(A34) 2순위	03)221-4700
				오산동	세종3-2생활권제일동경제퍼스트&파크(L2) 1순위	1588-1291
				오산동	동탄2신도시세일원의뜰(A34) 2순위	1899-2006
3/27 (금)	접수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2신도시세일원의뜰(A34) 2순위	03)221-4700
				오산동	세종3-2생활권제일동경제퍼스트&파크(L2) 1순위	1588-1291
				오산동	동탄2신도시세일원의뜰(A34) 2순위	1899-2006

\*주1)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굵은 글씨로 표시  
\*자료: 부동산114

3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8개 사업장 665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왕산리뉴타운3구역 '센트라스' 2789가구, 동탄2신도시 '세일원의뜰' 489가구, '금성백조에미지' 451가구, 세종시 '제일동경제퍼스트&파크' 510가구를 눈여겨 볼 만하다. 당초 3월 분양예정 물량은 역대 월별 최대치(2007

년 12월 5만4843가구)를 갱신할 전망이다. 다만 4월 분양이 상한제 폐지와 건설사들의 눈치작전에 일정이 다수 밀리면서 3월 마지막주 분양은 예상보다 적다. 다만 주말 모델하우스 오픈 소식은 풍성해 4월 분양은 불똥을 이룰 전망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 서울 전셋값, 정권 바뀔 때마다 2배 쯤증

월평균 상승액, 盧 76만원→MB 136만원→朴 270만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2배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가 노무현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지난 12년 동안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을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액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2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은 전셋값이 월간 76만원 올랐고 이명박 정부 136만원, 박근혜 정부는 2배 이상 증가한 270만원에 달했다.

의 전세 지원대책이 저금리로 인한 월세전환과 재건축 이주수요 탓에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서 전세시장의 불안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자치구별 월간 전셋값 상승금액을 보면 강남3구가 상위권에 위치했다. 송파가 한달 동안 358만원 올랐고 강남 437만원, 서초는 무려 536만원이 상승했다. 즉 서초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는 2년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하기 위해서는 1억2864만원의 추가 보증금이 필요한 셈이다.

한편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만성적인 매물 부족에 상승세가 지속됐다. 그러나 상승폭은 0.43%로 둔화했다. 반면 신도시와 경기-인천(신도시제외)은 전주 보다 오히려 떨어졌다. 각각 0.15%, 0.21% 상승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1시간 속성해설 셰일가스 혁명**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저

셰일가스 혁명이 가져올 에너지 패권을 둘러싼 세계의 승자와 패자를 뒤흔든다!  
100년 만에 찾아온 초특급 에너지 혁명이 세상의 승자와 패자를 뒤흔든다!

100년 만에 찾아온 초특급 에너지 혁명이 세상의 승자와 패자를 뒤흔든다!  
셰일가스와 관련된 주요 110개 기업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정체된 IT 산업, 반격에 나선 조선, 철강, 항공, 철도, 소재 산업...  
일본 중후장대(重厚長大) 산업의 대부활!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지음  
UB, J유엔제이 번역  
한국판 199쪽 120,000원

# 꿈의 에너지 셰일가스혁명!!!

100년 만에 찾아온 초특급 에너지 혁명이 세상의 승자와 패자를 뒤흔든다!

- 세계에너지 패권 경쟁과 기업의 흥망성쇠 전망
- 미국·일본 제조업 부활...세계에 미칠 영향 심도있는 분석
- 전기자동차·항공산업·조선산업 '대부흥'예측
- 중동의 발전권 약화...천연가스 대국 러시아 위상 흔들 '다원적 에너지 패권시대' 도래

'제3의 에너지' 셰일가스 전쟁시작... 싸움준비 됐습니까 (조선일보 2013년 5월 23일)  
OPEC '美 셰일가스 대응' 사본오열 (파이낸셜뉴스 2013년 5월 29일)  
유럽까지 셰일가스 혁명... 에너지 독립 부른 꿈 (동아일보 2013년 7월 25일)  
"셰일가스 인프라에 투자할 때" (한국경제 2013년 7월 31일)  
"셰일가스 혁명 대처 못하면 도태" (한국경제 2013년 8월 2일)  
셰일가스 시추장비 대대적 국산화 나선다 (헤럴드경제 2013년 9월 9일)  
가장 비싼가스 쓰는 한국, 셰일가스로 에너지비용 줄여라 (매일경제 2013년 9월 11일)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이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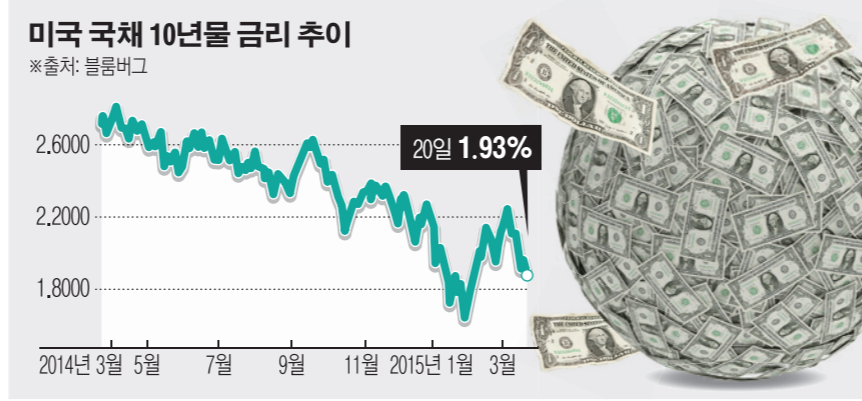
- 일본 경제신문 산교타임즈 대표이사겸 사장
-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출신
- 주오(中央)대학 법학부 정치학과 졸업
- 1977년 산업타임즈사 입사
- 1991년에 반도체 산업 신문 발간, 편집장 취임
- 현재 일본반도체협회 부회장(회장대행)
- 일본 반도체 벤처협회 이사
- 제주시·부산시 명예시민(기업유치공로)

# 글로벌 펀드매니저들 “채권버블” 경고

설문조사서 5명 중 4명 “채권가치 과대평가” 응답  
초저금리 환경·양적완화로 채권시장 투자자 몰려  
금융시장 흔들리면 투매 현상 시장 붕괴 가능성

글로벌 펀드매니저들이 채권버블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영국공인재무분석사협회(CFA UK)가 최근 글로벌 펀드매니저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5명 중 4명은 “채권가치가 과대평가됐다”고 응답했다고 22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응답자들은 회사채가 그 어느 때보다 과대평가됐으며 국채는 가장 가치과도하게 매겨진 자산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6년간의 초저금리 환경과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양적완화(QE)에 투자자들이 채권시장에 몰리면서 버블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고 FT는 분석했다. 미국의 볼커를 등 자본규제 강화로 채권

거래량이 수요만큼 빠르게 늘지 못한 것도 채권버블을 부추기고 있다는 평가다. 볼커를 미국 대형 은행들의 자기자본거래(proprietary trading)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은행들의 채권 거래를 제한해 유동성 부족을 부추기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채권 가격이 갑자기 하락하거나 금융위기가 재발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면 투매 현상이 일어나 채권버블이 붕괴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바다. 은행들이 글로벌 규제강화에 예전처럼 방어벽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투매 현상이 일어나면 이런 충격을 흡수할 기관투자자들이 부족한 상황이다. 미국 국제 10년물 금리는 지난해 4월



2.80%까지 치솟았다고 20일 1.93%로 떨어진 상태다.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올랐다는 의미다. 브래드 크롬비 애버딘자산운용 채권 부문 대표는 “버블은 붕괴되고 나서야 알 수 있지만 지금 시장상황은 언제라도 버블이 터질 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과대평가된 채권 가치에 대한 긴장과 불안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베스텍의 존 스톱포드 멀티에셋 매니

저는 “투자자들이 고금리 회사채에 많이 몰리고 있어 버블로 볼 수 있다”며 “만일 이런 시장 분위기가 역전되면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는 연내에 2006년 이후 첫 기준금리 인상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채권시장의 변동성을 촉발해 긴축정책이 신중하게 잘 진행되더라도 투매가 일어날 수 있다고 FT는 덧붙였다. 배준호 기자 baehj@4

# ‘싱가포르 國父’ 리관유 前총리 타계 멀리 내다본 과감한 투자로 ‘동남아 부국’ 반열에 올려

‘실용성’ 중시 이웃피해 우려  
“사망 후 내 집 없애라” 유언



23일(현지시간) 폐렴 치료 도중 사망한 리관유(91) 전 싱가포르 총리. 신화/뉴스시

리관유 전 싱가포르 총리가 23일(현지시간) 폐렴 치료를 받던 중 향년 91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이날 싱가포르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리 전 총리가 오전 3시18분경 싱가포르 종합병원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고 전했다. 리 전 총리는 지난달 5일 폐렴으로 입원하고 나서 종합병원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며 치료를 받아왔다. 리 전 총리는 싱가포르가 영국 식민지였던 1959년부터 자치정부 시절인 1990년까지 총 31년 동안 총리직을 맡았다. 현재의 싱가포르 기틀을 세워 ‘싱가포르 건국 아시아 부국’으로 탈바꿈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독립 당시 400달러 수준에 머물렀던 싱가포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990년 1만2750달러(약 1436만325원)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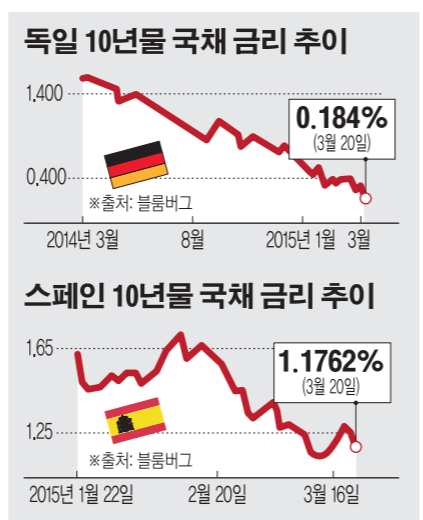
리 전 총리는 ‘실용성’을 매우 중시하던 인물이었다. 지난 2011년 리관유 전 총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죽으면 살던 집을 헐어버리라는 유언을 남겼다. 자신의 집이 국가의 성지로 보존되면 그 주변의 집값이 하락해 이웃 주민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리 전 총리는 “내 집이 남게 되면 주변에 높은 건물들을 세울 수 없게 되지만 내 집이 철거되면 도시계획이 바뀌어 주변 건물들이 높아지고 토지 가치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 ‘유로 채권’에 몰리는 글로벌 기업

올 1분기 발행 443억 유로  
리먼 쇼크 이후 최대 수준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유로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올 1분기 글로벌 기업의 유로 표시 회사채 발행 규모가 443억 유로(약 53조30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했다고 23일(현지시간) 일본 니혼케이자이신문이 시장조사업체 토크스모어티 집계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매년 1분기 기준으로는 2008년 리먼 쇼크 이후 최대 수준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코카콜라와 AT&T, 버크셔해서웨이 등 세계 굴지의 기업들은 물론 캐나다와 호주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붐볐 터지듯 유로 표시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다. 코카콜라 등 지난해 85억 유로어치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이는 미국 기업 사상 최대 규모의 유로 표시 회사채 발행이다. 당시 12년 만기

회사채 발행금리가 1.1%로 낮았음에도 응찰률이 2배에 달하는 등 수요가 몰렸다. 버크셔해서웨이도 이달 초 30억 유로 규모의 회사채 첫 유로 채권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은 미쓰이스미토모은행과 미쓰비시도쿄UFJ은행 등이 발행을 결정했다. 기업들이 나서서 것은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QE) 실시로 이 지역 금리가 하락해 이전보다 훨씬 낮은 비용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과 스페인 등 유럽 각국 국제 금리는 미국채를 밀도는 수준까지 하락해 회사채 금리에 대한 하방 압력도 커졌다. 이런 흐름은 ECB가 추가 경기부양을 시사한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다. 미국 프리먼컨설팅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미국 전체 회사채 가운데 유로 채권



비중이 15%를 차지했다. 이는 2년 전에 비해 10%포인트 오른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배준호 기자 baehj@4

했다. 발행금리도 유로가 평균 2% 미만으로, 4% 가까운 달러 표시 채권보다 훨씬 낮다. 전문가들은 ECB의 QE 시행으로 더욱 기업에 유리한 조건이 됐기 때문에 유로 회사채 발행 움직임이 올해 내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미국 투자은행 관계자는 “유럽 주요국 국제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어 많은 투자자가 자금운용 대상으로 우량기업의 유로 표시 회사채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이외 유럽 시장도 금리가 연동된 곳이 많기 때문에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다. 애플은 지난해 유로 회사채에 이어 지난해에는 첫 스위스 프랑 표시 회사채도 발행했다. 배준호 기자 baehj@4

# 세계 여성 금융리더 ① 여성 중앙은행 총재



# 연준 ‘첫 여성 의장’ 옐런 美 넘어 세계경제 대통령

플러그 이스라엘 총재 등 16개국서 우먼파워

전 세계 우먼파워가 거세다. 여성이 최정상을 차지하는 일은 더 이상 이례적이지 않다. 그레도 달려 있는 편이었던 자리가 한 나라의 통화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중앙은행 총재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하 연준) 의장은 특히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자리이다보니 더욱 그랬다. 그러나 나이 자리에도 여성이 올랐다. 제넷 옐런(Janet Yellen, 69)은 지난해 2월 연준 의장에 올랐다. 연준 역사가 100년이나 됐지만 최초의 여성 의장이다. 그가 연준 의장으로 지명될 당시 블룸버그 통신은 고교 동창들의 입을 빌려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는 사람” “정직하고 영리한 사람”이라고 보도했다.

“비둘기파” 성향으로 알려진 만큼 의장 선임 이후 통화 완화 정책을 전개하면서 경기 부양에 노력했다. 연준의 목표이자 정부의 목표였던 실업률 하락으로 그 효과는 나타났다. 지난 2012년 7.8%를 기록했던 실업률은 지난해 말 5.8%로 하락했다. 뉴욕 증시도 대표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그의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이스라엘에서도 최초 여성총재가 탄생했다. 2013년 11월 카니트 플러그(Karnit Flug, 60)가 이스라엘 중앙은행 설립 60년 만에 총재직에 앉았다. 전임 총재였던 스탠리 피셔(Stanley Fischer)가 연준 부회장에 지명되면서 자리를 떠난지 약 4개월 만이다. 플러그는 스탠리 피셔와 같은 비둘기파로 꼽힌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한 차례 경제회의에서 플러그의 발표를 듣고 정책적 시각이 같단, 총재로 임명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플러그 총재는 폴란드계 유대인 출신으로 예루살렘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뒤 컬럼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국제통화기금(IMF)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했고 1988년 이스라엘 중앙은행으로 자리를 옮겨 일하다 미주개발은행(IADB) 이코노미스트를 거쳐 다시 이스라엘 중앙은행으로 복귀했고 총재까지 오르게 됐다. 러시아에도 최초 여성 중앙은행 총재가 재임 중이다. 각진 안경 속 매서운 눈매로 카리스마를 드러내는 엘비라 나비울리나(Elvira Nabiullina, 51)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 총재는 12년간(3기 연임) 총재를 맡아 온 세르게이 이그나티예프의 뒤를 이었다. 총재직에 오르는데는 현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의 깊은 인연이 큰 몫을 했다. 나비울리나 총재는 푸틴이 선거 캠페인을 할 당시부터 조력자 역할을 하며 힘을 보탤 2000년부터 연방정부 경제발전부 차관과 경제자문을 하며 신뢰를 얻었다. 2013년 중앙은행 총재가 됐다. 이밖에 올 1월 기준으로 중동, 아프리카 등 18개국 중 16개국 중앙은행 총재가 여성이다. 김민정 기자 mj\_kim@

# 日 3대 은행도 ‘핀테크’

IT업계 잇단 진출 선언에  
“금융시장 방어” 도입키로

일본 금융계에 ‘핀테크’ 붐이 일고 있다. 일본 3대 은행인 미쓰비시도쿄UFJ, 미쓰이스미토모, 미즈호가 핀테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일본 니혼케이자이신문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핀테크란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로 개인자산관리, 클라우드 펀딩 등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한 금융 기술을 일컫는다. 은행별 계획을 살펴보면 미쓰비시도쿄UFJ은행은 벤처기업과 제휴해 결제 서비스 분야에서 핀테크 도입을 검토 중이다.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은 미국 실리콘 밸리에 은행 직원을 파견하고 해외기술을 파악하는 선제적인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미즈호은행은 지난해에 콜센터에 일본 IBM과 공동 개발한 인공 지능형 컴퓨터를 도입했다. 고객의 문의 사항을 자동으로 인식해 서비스 개선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다. 일본 대형은행의 핀테크 도입은 금융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는 IT기업의 등장에서 비롯됐다. 애플과 페이스북 등이 결제 사업에 진출한 가운데 일본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리쿠텐’은 인터넷 전문은행인 ‘리쿠텐뱅크’를 설립했다. IT 기술의 발달로 금융시장 진입의 벽이 낮아져 기존 시장 장악력을 유지하기 위해 메가뱅크를 역시 핀테크에 관심을 둔 것이다. 미카타니 라쿠텐 히로시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금융 사업은 다시 정의된다”며 “미국 쇼핑몰에서 가상 화폐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는 등 IT 기술을 도입한 금융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 “EU 단기 자금지원 나서라”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23일(현지시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와 만남을 앞두고 유럽연합(EU)이 단기 자금지원에 나서지 않으면 그리스로서는 채무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5일 치프라스 총리는 메르켈 총리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이자 지급이 임박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사진은 2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담에 참석한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 브뤼셀/AP뉴스시

# 중주도 AIB, 美 백기 드나

태도 바뀌 유화적 제스처 선회  
세계은행 “공동 프로젝트 기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B) 개요

설립시기	2015년 말 예정
자본금	초기 500억 달러 (목표액 1000억 달러)
설립의도	미국 및 일본 주도의 세계 금융질서 탈피 및 일대일로(신실크로드 및 해상실크로드) 개혁
역할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도국 인프라 건설
본부 소재지	중국 베이징
최초 참여국	중국, 인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21개국 (작년 10월 기준)
가입 계획 국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등

한국이 이번 주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B) 참여 여부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이 기존의 태도를 바꿔 AIB에 대해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여 비관한 관심이 풀리고 있다. 바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 세계은행(WB), 아시아 개발은행(ADB)을 통해 AIB와 공동금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싶어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동안 미국은 우회적으로 중국이 국제금융기구를 장악하는 것에 대해 달가워하

지 않았다. 이에 호주 등 경제협력국에는 AIB에 참여하지 말라는 압력을 우회적으로 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AIB 참가를 희망한다고 밝히자, 주요 경제협력국의 의견을 우려해 우호적인 태도로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미국 정책연구기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 연구기관들이 “미국은 AIB와 어떤 형태로든 관계 맺어야 한다”고 지적한 부분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AIB 가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지희 기자 jhsseo@



조양호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장과 구닐라 린드버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조정위원장 등 평창조직위와 IOC 관계자들이 19일 오후 강원 강릉시 라카이센드파인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평창올림픽서 HYUNDAI 볼 수 있다

도요타 '톱 스폰서' 독점 계약 불구  
IOC, 차량 후원 협상 예외적 인정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현대차와 스폰서십 협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18 평창올림픽에 한해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기 때문이다.

19일 강원 강릉 라카이센드파인리조트에서 끝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제4차 조정위원회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두 자동차 회사 이야기가 화두였다. 지난 13일 도요타가 IOC와 스폰서십 계약을 한 것이 발단이였다. 이로써 IOC의 12번째 스폰서가 된 도요타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올림픽과 관련된 모든 마케팅 활동에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현대차와의 스폰서 계약을 추진하던 평

창동계올림픽 조직위다. IOC와 도요타의 톱 스폰서 계약은 2017년부터 2024년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결국 평창조직위는 동종 업계의 국내 기업과는 스폰서십을 할 수 없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IOC는 톱 스폰서 권리 보호를 위해 동일 업종의 다른 기업에 대해서는 올림픽 기간 마케팅 활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평창조직위는 스폰서십을 통해 8500억원 마련을 위해 현대차와 협상을 벌이고 있었다. 만약 도요타가 독점 권한 행사를 고집한다면 평창조직위는 8500억원 마련에 난항을 겪을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IOC가 평창동계올림픽에 예외 조항을 둬으로써 평창조직위는 정상적으로 현대차와 협상할 수 있게 됐다. 도요타 역시 2020년 도쿄올림픽에 집중하기로 하는 등 IOC의 입장을 적극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구닐라 린드버그(68·스웨덴) IOC 조정위원장은 "(평창조직위의 현대차 스폰서 유치)는 전혀 문제

가 없다"며 "이미 IOC 마케팅 팀과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상태"라고 말했다.

티모 루메 IOC 마케팅 디렉터는 "조직위가 현대차 자동차와 차량 후원 계약을 한다면 대회 기간 중 현대차 로고를 단 차량이 돌아다니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양호 평창조직위 위원장은 "자동차 부문 스폰서 유치에는 아무런 지장이나 제한이 없다. 현대차가 원한다면 이미 지역 스폰서십 계약을 한 대한항공이나 KT, 영원무역 등과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린드버그 IOC 조정위원장은 지난 17일부터 2박3일간 평창동계올림픽 총 7개 종목 중 3개 종목의 경기장이 있는 강원 강릉에 머물며 대회 준비 진행 상황과 핵심 이슈, 의의 및 계약상 이행 사항 등을 점검했다. 다음 조정회의인 제5차 회의는 9월 열릴 예정이다.

오상민 기자 golf5@

## 골프장 이용객 늘었다? 그런데, 왜 골프장은...



작년 내장객 3314만명... 6.7% 증가  
"손님 끝자" 저가 그린피로 골퍼 유혹  
객단가 떨어지고 회원제 시세도 '뚝'  
회원제 골프장 40곳 법정관리 신청

전국 골프장 이용객 수가 4년 새 740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박정호)가 발표한 '2014년 전국 골프장 이용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473개 골프장을 이용한 내장객은 총 3314만3528명으로 2013년(460개소·3105만7645명)보다 6.7% 증가했다.

이 중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한 내장객은 1792만9604명(226개소)으로 2013년(1754만7634명·228개소)보다 2.2% 증가했고, 퍼블릭 골프장은 2013년(1351만11명·232개소)보다 12.5% 늘어난 1520만4949명(247개소)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골프장 및 내장객 수는 장기 불황 속에서도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2010년에는 382개 골프장에서 2572만5404명이 골프를 즐겼고, 2011년에는 410개소 2690만4953명, 2012년 437개소 2860만5167명, 2013년 460개소 3105만7645명, 지난해 473개소 3313만4553명으로 4년 새 740만9149명이 늘었다.

특히 지난해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골프장 내장객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장객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전국 대부분 골프장은 경영

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전체 내장객 수는 6.7% 증가했지만 한 홀당 내장객 수는 4.4% 증가에 그쳤다. 특히 12.5%의 높은 신장률을 보인 퍼블릭 골프장의 내장객 증가에도 홀당 내장객 수로 따지면 5.2%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체 내장객 수에서 4.1%의 감소를 보인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증가세를 보였지만 홀당 내장객은 제주(-4.1%)를 비롯한 경남(-1.5%), 충남(-3.1%), 전남(-2.5%) 등이 감소세로 나타났다.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건 회원제 골프장이다. 에이스회원권거래소 시세에 따르면 경기 용인의 남부CC는 2008년 21억1500만원까지 치솟았지만 현재(19일) 8억4000만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남춘CC는 한때 17억원이던 시세가 5억8500만원으로 떨어졌다.

김기세 KS레저개발 대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의 10% 이상(40여 개소)은 경영난을 겪고 있다. 현재 법정관리를 신청 중이거나 진행 중인 부실 골프장도 40곳에 이르며, 향후 10여개 골프장이 추가로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골프장 및 내장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골프장 경영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골프장 개체 수 증가로 내장객 유치가 어려워지면서 빈 시간대 영업을 위해 저가 그린피를 내세웠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서천범 소장은 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일부 회원제 골프장은 비회원 모객을 위해 퍼블릭보다 낮은 그린피를 내세우기도 한다. 결국 내장객은 늘었지만 객단가는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오상민 기자 golf5@

각오 높게 춤추라

그 곳이 전쟁터일지라도...

MUSICAL  
**리키수**  
RHO71500

2015. 3. 12 - 5. 31 DCF대명문화공간 1관 비발디파크홀 예매 |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문의 | 02-541-2929

기획 | 김신우, 극작 | 장우성, 작곡 | 신은경, 연출 | 김태형, 음악감독 | 변희석, 출연 | 김태현, 윤나우, 유일, 김중구, 홍우진, 임훈길, 장대용, 오익석, 정순원, 이무중, 임경희, 이지숙, 임경민, 김민건, 김상수, 김자혜, 권중호

주최 | (유)로키수문화산업진흥회사, 기획 | (주)이엔컴퍼니, 공동제작 | (주)이엔컴퍼니, 후원 | (주)에스엔터테인먼트, (주)대명문화공간,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 한국벤처투자(주), 협찬 | 한국로키수

## 박태환 도핑 의혹 청문회 오늘 스위스서

금지약물 투여 고의성 없어도 엄격 규제  
18개월 이상 처벌 댄 올림픽 참가 불투명

'마린보이' 박태환(26)의 금지약물 양성반응에 대한 징계 여부가 23일(이하 한국시간) 가려진다.

박태환은 23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국제수영연맹(FINA) 청문회에 참석한다. 이기홍 회장(57·대한수영연맹)과 김지영 국제위원장(64·대한체육회), 스위스 현지 변호사, 국내 변호사가 박태환의 청문회를 돕기 위해 자리에 함께한다.

이날 청문회 결과에 따라 박태환의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FINA는 금지약물 도핑의 경우 첫 적발에 2-4년의 자격정지를 내린다. 또 도핑 검출 테스트 날짜 이후의 랭킹과 메달, 점수는 무효가 된다. 이는 남기웅(21), 양준혁(21) 등 박태환과 함께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만약 박태환이 18개월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7월에 있을 2015 러시아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와 내년 8월 5일 개최되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다.

박태환 측은 지금까지 네비도(NEBIDO) 주사에 대



해 "금지약물에 포함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다 해도 징계를 피할 수는 없다. FINA 도핑 규정(DC 10.4)에 따르면 "선수에게 알리지 않은 채 주치의가 금지약물을 투여한 경우에도 처벌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선수는 선택한 주치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지난해 도하에서 열린 세계소프트스쿠수영선수권대회에서 3관왕에 오른 루이스 고메스(29·브라질)는 하이드로클로로티아지드가 검출돼 규정(DC 10.4)에 의해 자격정지 6개월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박태환이 투여받은 테스토스테론은 FINA가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는 약물이어서 박태환의 경기계 희망은 밝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수천 기자 intl000@

‘여성 성공신화’ 차상란 상란무역 대표, 이번엔 한국화장품 중국 수출

# “새로운 도전, 재미 없다면 불가능하죠”

금융·부동산 섭렵 ‘팔방미인’  
총판 사무소·안테나숍 오픈  
베이징·상하이에 판매망 확대  
오예그룹과 합작법인도 추진



통은 물론 선양, 베이징, 상하이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판매망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중국 동부 3성 지역을 공략하기 위해 중국의 대표 유통기업인 오예그룹과 손잡고 오예그룹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 대표는 금융·부동산업계 여성 성공 신화로 통한다. 그는 서울여성 수석졸업과 함께 씨티은행에 입사해 산업·기업 분석 담당, 금융산업 리스크 매니저 등 기업금융 부문에서 10년 동안 근무했다. 이어 소비자금융 부문으로 자리를 옮겨 부동산 담보대출 부책임자로 활동했다.  
그는 이후 부동산으로 인생 향로를 바꿨다. 주위에선 외국계 금융회사를 박차고 나와 부동산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걸 선뜻 이해하지 못했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그는 부동산중개건설텐사무소, 부동산개발회사, 감정평가법인, 부동산신사, 가담감정평가법인 등을 두루 거치면서 금융과 부동산을 모두 섭렵한 팔방미인으로 거듭났다.  
지난 2011년 마이에셋자산운용을 끝으로 오프라인 판매망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중국 동부 3성 지역을 공략하기 위해 중국의 대표 유통기업인 오예그룹과 손잡고 오예그룹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확대할

바탕으로 그는 중국에 4년의 시간과 약 50억원의 돈을 투자했다.  
그는 중국서 자체적인 사업 활동을 위해 2010년 한국에 상란무역을, 2011년 5월 중국에 문등상란무역을 설립했다. 종합무역상사를 설립하는 것과 동시에 그는 한국화장품에 주목했다. 그는 "국민브랜드 유단학이 국내 시장에서 예전의 명성을 잃었지만, 유단학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중국에서 사랑을 받을 것으로 확신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3년 3월 한국화장품의 주요 브랜드인 산심, 오선, 유단학 제품의 수입 및 판매를 총괄하는 중국총판법인을 설립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고, 2014년 9월 중국 내 수입 및 판매허가를 취득했다.  
그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되는 것도 없고, 또 안되는 것도 없는 나라였다. 규정이 어려워 되도록 만드는 게 힘들었지만, 함께 일하는 한족 직원들과 노력하면서 중국식으로 접근해 허가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Lsa@

## 허창수 회장 “성별보다 능력”... 경제5단체 첫 여성임원 발탁

한신속 기획본부장 선임



지원실과 경제교육실은 팀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 6본부·2실·21팀에서 6본부·2실·23팀으로 팀이 2개 늘었다.  
전경련은 체제 변화와 함께 전경련 및 경제5단체 최초 여성 임원을 배출했다. 한신속 신입 기획본부장(상무보)이 그 주인공이다. 한 본부장은 2월 말 신규 대상자였으나 전경련 전체 직

원 중 임원이 8명뿐인데다 전경련 역사상 여성 임원 전례가 없어 승진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 여기에 현재 경제5단체 가운데서도 여성 임원이 전무하다는 점도 한 본부장의 승진에 걸림돌이 됐다.  
하지만 허 회장은 임원 승진 후보자 명단과 내부 의견을 전달받고 “여자로 태어난 것이 본인 잘못이냐”며 “능력이 검증됐다면 당연히 여성도 임원으로 발탁해야 한다”면서 직접 한 본부장의 임원 승진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 본

부장은 임원으로 승진해 현재 인사와 재무, 총무를 총괄하고 있다. 한 본부장은 올해 전경련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한 본부장은 이화여대 사범대학과 경제학과 출신으로 1990년부터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근무하다 2000년 전경련으로 옮겨왔으며, 산업정책팀장과 경영지원실장 등을 맡아왔다.  
조남호 기자 spdran@

## 신동빈 롯데회장 장남, 日 여성과 ‘조용한 결혼’

신부, 미용학중 만난 동문  
결혼식 양가 직계만 참석

고 신부는 평범한 집안의 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지난 16일 부산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한 직후 하와이로 가 양가 직계 가족만 참석한 가운데 조용히 아들의 결혼식을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은 부인 시게미쓰 마나미(重光真奈美)씨와의 사이에 유열씨와 규미(27)·승은(23)씨 등 1남2녀를 두고 있다. 이번엔 결혼식을 올린 유열씨는 일본에서 태어나 초

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모두 일본에서 마쳤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기 전에는 신 회장이 다니던 일본 노무라증권에 재직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롯데가 3세 중 가장 유력한 후계자로 꼽히는 유열씨가 아버지의 행보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얘기한다. 학력과 근무 이력이 신 회장이 거쳐 갔던 곳과 일치한다는 것. 신 회장 역시 노무라증권 근무와 컬럼비아대 MBA 과정을 거쳤다.  
윤철규 기자 yoonck@

영 진보 언론 ‘가디언’  
첫 여성편집국장 탄생



영국 일간지 가디언(Guardian)에서 194년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편집국장이 탄생했다.  
바이너 신임 국장은 “가디언은 가장 야심 찬 언론이자 아이디어, 이벤트의 발상지로 만들 것이며 조직원들을 편애하지도 배척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혜인 기자 haerin2558@

## “6년만에 청사 통합, 재도약 발판”

백기승 인터넷진흥원장, 새 CI 선포



고 있는 나주 혁신도시 신청사 건축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오는 5월 초에는 지역 주요 인사와 주민들을 초청해 이전 부지에서 착공식을 가질 계획이다.  
백 원장은 이와 함께 새로운 CI를 개발해 공식 사용하는 등 미래사회의 양대 축인 인터넷·정보보호 진흥으로 ‘안전한 인터넷,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비전을 담았다.  
이번에 확정된 새로운 CI는 앞으로 나아가는 화살촉 모양의 지향성(이)에서 착안한 심벌을 사용했다. CI에서의 청색과 녹색은 각각 인터넷 진흥과 정보보호를 의미한다.  
조성준 기자 tialio@

## ‘신문사진 인간애상’ 본지 최유진 기자



사단법인 대한언론인회(회장 김은구)가 20일 제25회 ‘신문사진 인간애상’ 장려상에 이투데이 최유진 <사진> 기자의 ‘전우여... 잘 지냈는가’ 작품을 선정, 발표했다. 최유진 기자의 ‘전우여... 잘 지냈는가’는 지난해 6월 25일 취재한 내용으로 6·25전쟁 64주년을 맞아 참전용사가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전우의 묘를 찾아 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독자들에게 전우에 대한 향수와 잊혀져가는 6·25전쟁의 참상을 다시금 느끼게 했다.  
‘신문사진 인간애상’은 4·19 민주혁명의 격동의 현장에서 소명의식을 갖고 역사의 기록을 담았던 60년대 사진기자들의 모인인 ‘한국신문사진동우회(회장 박용운)’가 1991년 제정한 상으로 2007년부터 사단법인 대한언론인회가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인간애상 장려상 ‘전우여... 잘 지냈는가’ 6·25전쟁 64주년인 지난해 25일 참전용사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전우의 묘를 향해 경례하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인간애상 시상식은 다음달 7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국회실에서 열린다.  
정세영 기자 phototink@

## ‘건국 1세대’ 근대화 최후의 증인 경제관료·기업경영인 두루 거쳐

송인상 한국능률협회회장 별세  
재무부 장관·수출입은행장 역임  
수력발전소·디젤기관차 도입



재무부 장관과 초대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지냈던 ‘대한민국 근대화 최후의 증인’ 송인상 한국능률협회(KMA) 명예회장이 22일 오후 2시 50분 별세했다. 향년 101세.  
고인은 강원도 회양 출신으로 선린상업학교와 경성고등상업학교(서울대 상대 전신)를 졸업하고 1957년 부흥부(전 경제기획원) 장관, 1959년 재무부 장관 등 주요 경제부처의 수장으로 지내며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추진한 주인공이다.  
1974년 EC대사(벨기에·룩셈부르크 대사 겸임) 시절 유럽 수출을 3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끌어올려 1976년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초대 수출입은행장에 임명됐다. 부흥부 장관 겸 경제조정관을 맡던 시기에는 공업에 투자해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중주 비료공장과 수력발전소, 디젤 기관차 도입 등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후 민간부문에서 동아리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태평양경제협력회(PBEC) 한국위원장 등을 거쳤으며 20여년간 한국능률협회를 이끌어왔다.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전 회장, 고(故) 조

흥재 효성그룹 전 회장 등과 친분이 두터웠으며, 남덕우 총리, 유창순 총리, 홍진기 법무부 장관 등 정관계 인사와도 가깝게 지냈다.  
그는 한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2007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한 것을 비롯해 1991년에는 한미 우호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수교훈장 광화장, 2004년에는 한미협회 한미우호상을 받았다. 2007년에는 국제평화 증진에 힘쓴 공적을 인정받아 국제로타리 최고영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 인사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환경정책과장 이교영
- ◆기획재정부 <승진> △부이사관 △기획재정담당관 강원구 △인사과장 박영각 △예산총괄과장 김운상 △서기관 △기획재정부 남병훈 △총관실 변진완 △인력정책과과 김태훈
- ◆보건복지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 정재용
- ◆해양수산부 △국장급 정보 △감사관 한기준
-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승진 △정보화담당관 황민호
- ◆우정사업본부 △정보 4급 △산안우체국장 이석로 △대전대덕우체국장 박영중
- ◆세방그룹 △세방 대표이사 전무 박홍수 △상무 오익태 △상무보대우 이지훈 △세방전지 대표이사 전무 이용준 박광희 △상무 홍순태
- ◆인터블로그 △그룹 본부 △도약전략본부장 윤용근 △경영지원본부장 임기호 △준법경영본부장 정규성 △자산관리본부장 이상호 △전략홍보실장 최태수 △그룹 계열사 △호텔 인터블로그 대구 대표이사 인재현 △호텔 인터블로그 엑스코 대표이사 구본진 △호텔 인터블로그 원주 대표이사 강석천 △인터블로그 경산CC 대표이사 이문영 △인터블로그 건설 대표이사 김인호 △냉장 인터블로그 대표이사 김봉준 △호텔 인터블로그 서울지역본부장 장운상
- ◆한국학중앙연구원 △전택수 한국학중앙연구원 부원장 △이상훈 한국학대학원장 △박동준 기획처장 △정영순 연구처장 △전성호 교학처장
- ◆KBS △보도본부 △보도국 뉴스제작 1부장 권우신 △보도국 뉴스제작3부장 김주영 △보도국 경제부장 이준희 △보도국 문화부장 박재용 △보도국 과학·재난부장 안세득 △보도국 네트워크부장 이경희 △시사제작국 시사제작1부장 신준범 △스포츠국 스포츠중계부장 이기문 △스포츠국 스포츠제작부장 백정현
- ◆박점문(국가유공자)씨 별세, 박성도(셀트리온제약 부회장)·성인(주부)씨 부친상, 김정근(사업)씨 장인상 = 22일 오후 1시, 김포 우리병원 장례식장, 발인 24일 오전 9시, 장지 국립이혼호국원, 031-999-1300
- ▲천기수(전 동부제철 부사장·전 제일

- 모직 전무)·기원(사업)·기덕(지오디스 전무)·기태(삼성SDI 연구소 부장)·기복(태건산업 팀장)씨 모친상 = 2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4일 오전 7시, 02-3410-6917
- ▲김지현(SK플래닛 상무)씨 부친상, 황준성(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원)씨 장인상 = 2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4일 오전 8시 30분, 02-3010-2238
- ▲이정수(해수상당클리닉 대표)·정향(미국 거주)·정호(파이낸셜뉴스 편집 및 심의위원)·정식(용인정신병원 정신과 전문의)씨 모친상, 장경준(해수소중환아정신과의원 원장)·이재현(현대자동차 책임연구원)씨 장모상 = 22일, 이대목동병원, 발인 24일 오전 9시, 02-2650-2751
- ▲박창현(대림산업 차장)씨 모친상, 정혁훈(메일경제신문 산업부 차장)씨 장모상 = 22일, 서울의료원, 발인 24일 오전 6시, 02-2276-7671
- ▲윤문상(EBS부사장)·호성(자영업)·준상(KBS기술팀장)씨 모친상 = 22일, 서산의료원, 발인 24일, 041-668-6198
- ▲최원창(수원삼성축구단 차장)·원빈(JB우리캐피탈 차장)씨 조모상 = 2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4일 오전 6시, 02-3410-6907
- ▲정희화(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퓨처스 감독)씨 부친상 = 22일 오전, 전북대병원, 발인 24일 오전 9시, 063-250-1439
- ▲유원선(기호일보 파주주재 기자)씨 부친상 = 22일, 경북 영주 성누가병원, 발인 24일 오전 7시 30분, 054-637-4444
- ▲정규림(아주대 임상치의학대학원장)·호림(LS메탈 상무이사)씨 부친상 = 2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4일 오전 9시, 02-3010-2263
- ▲최광남(한국은행 인사경영국 급여후생팀 부국장)씨 부친상 = 21일, 강북삼성병원, 발인 24일 오전 7시, 02-2001-1097
- ▲원경식(전 동부건설 상무)씨 모친상 = 21일,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4일 오전 5시 15분, 02-2227-7594
- ▲장재룡(전 주프랑스 대사)·재규(전 동양그룹 임원)·보윤(프랑스 거주)씨 모친상, 양태중(법무법인 두레 변호사)·한동만(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씨 장모상 = 2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4일 오전 6시, 02-3410-6920
- ▲전준수(자영업)·호수(대림산업 부장)·성원(경향신문 교열부 부장)씨 모친상 = 2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4일 오전 5시, 02-3010-2295
- ▲김민석(중앙임구 부장)씨 부친상 = 21일,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4일 오전 8시, 02-2227-7577



공병호의 독서산책

모이제스 나임 '권력의 종말'

"권력은 지금까지 잘 인식하고 이해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를 겪는 중이다." 권력을 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큰 간격이 존재한다. 권력을 쥐기 전에 사람들은 권력을 잡기만 하면 뭐든 할 수 있을 것처럼 느끼지만 막상 권력을 쥐고 나면 어느 누구보다 자기 권력의 한계를 절실히 깨닫게 된다. 여기서 권력은 다른 집단과 개인들의 현재 또는 미래의 행동을 지시하거나 막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모이제스 나임의 '권력의 종말'(책 읽는수요일)은 거대한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된 거대 권력의 몰락 현상을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새 정부가 등장하면 다들 큰 기대를 갖는다. 이때 시민들은 권력을 잡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지나치게 크게

약1400만명의 이주민이 있다고 추산하는데, 지난 20년 동안 37%가 증가했다. 여행객, 상품교역량, 자본의 이동, 정보 유통 등이 모두 증가했다. 저자는 이동혁명에 대해 "사람들은 이주를 통해 자신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할 거라고 믿는 권력 지역으로 스스로 이동함으로써 권력의 분포 지평을 바꾼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의식혁명은 양적 증가 혁명과 이동 혁명이 낳은 부산물이다. 앞의 두 가지 혁명은 빠르게 성장하는 거대한 신중산층을 낳았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자유로우며 더 많은 성취를 한 것을 아는 사람들의 기대 수준은 높아지게 마련이다. 이런 현상은 권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새로운 심리적 태도와 의식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들 세 가지 흐름은 앞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을까. 없기 때문에 거대 권력의 입지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권력의 쇠퇴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긍정적 효과는 더 자유로운 사회, 유권자가 더 많은 선거와 선택권을 가진 사회, 아이디어를 더 많이 실현할 수 있는 사회다. 하지만 권력의 쇠퇴는 범죄자와 테러리스트, 악의적 비국가 활동가들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추동력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권력의 쇠퇴가 가져오는 위험을 우려가 확인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저자는 책의 끝부분에 의미 있는 경고의 메시지를 더한다. "오늘날 새로운 것이 있다면, 치명적인 생각을 가진 세력들을 포함해 신진 세력이 권력을 잡기가 전보다 훨씬 더 쉬워진 환경이다."

저자는 이런 폐해를 방지하는 수단으로 극단적인 단순주의 세력을 경계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영향력으로부터 시민들이 의도적으로 벗어나야 할 것을 주문한다. 여기서 단순주의 세력은 민중주의(포퓰리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양적 증가·이동·의식 혁명으로 거대권력의 입지 날로 좁아져 '더 자유로운 세계' 긍정적 효과 '범죄·테러 증가' 위험성도 상존

본다. 하지만 막상 권력을 쥔 사람들은 지극히 제한적 영역에서만 권력을 발휘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책은 이런 현상이 일시적인 일이 아니면 법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차근차근 밝힌다.

우리는 흔히 권력 약화의 주요 요인으로 인터넷과 같은 기술발전을 들지만 저자의 분석은 좀 다르다. 더 근본적인 이유를 세 가지, 즉 양적 증가 혁명, 이동 혁명, 그리고 의식 혁명에서 찾는다. 양적 증가 혁명은 사람, 도시, 생산물 등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전 세계가 생산하는 경제 산출물은 1950년 이래로 다섯 배, 1인당 소득은 3.5배 늘었다. 양적 증가 혁명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더 풍족한 삶을 살 때, 그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은 더욱 힘들어진다"는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또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산다. 유엔은 전 세계에 2

### 이민화 칼럼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한국에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몇 가지 특이한 규제들이 있다. 흔히들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얘기하는 규제들이다. 대표적인 규제로는 원격의료와 투자 개방 병원, 공인인증서와 인터넷 실명제 등 금융과 의료 분야의 규제가 있다. 특히하게도 모두가 서비스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더 특이하게도 이들 분야는 대한민국의 최고 인력들이 몰려 간 분야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 분야의 국가 경쟁력이 OECD 상위권이 아니라 최하위권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최고의 인재들이 집중된 분야가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낮추고 있다는 것이 한국의 불편한 진실이다.

자원이라고는 인재밖에 없는 대한민국 최고의 자원이 고급 인력들이 집중된 분야가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커녕 끌어내리고 있다는 아이러니의 이유는 바로 비개방의 문제다. 이러한 문제의 본질을 살펴보면 갈라파고스적 진입 규제가 자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업계의 집단 이기주의로 인하여 국가 전체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국민은 역사적으로 개방적 환경에서는 창의성이 극대화되고 글로벌 경쟁

### 개방, 경쟁력 향상·일자리 창출의 길

역량이 살아나지만, 폐쇄된 환경에서는 양극화로 인한 율령기가 극대화되고 집단 이기주의로 퇴행하는 현상을 보여 왔다.

지난 20년간 한국이 개방한 분야 중에서 국익에 손해가 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 제조업 개방, 유통업 개방, 영화 등 문화 산업 개방, 그리고 FTA를 통한 소고기 개방에 이르기까지 개방 분야는 예외없이 국제 경쟁력이 상승했다. 제조업 개방 시 소니와 마쯔시다에 순식간에 무너져 가려는 삼성, LG는 세계 가전산업의 선두로 올라 섰다. 까르푸와 월마트가 들어오면 추종산업이 될 것이라는 한국의 유통업계에서 정작 짐 싸 들고 떠난 것은 그들 글로벌 기업들이었다. 영화산업이 개방되면 한국의 문화는 종속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후 한국의 영화산업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 일본에 종속될 것이라는 음악은 한류의 시대를 열었다. 이제 K-Pop은 J-Pop에 비해 미국에서 10배 이상 앞서고 있다. 심지어 소고기 개방 이후 한우 생산은 준 것이 아니라 늘어났다.

완전개방 분야인 반도체, 조선, 휴대폰, 자동차, 특허 등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은 세계 5위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개방 서비스 분야인 대형 유통과 게임, 영화산업 등에서도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 법률, 교육, 금융, 행정 등의 비개방 서비스 분야에서는 OECD 최하위권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은 지극히 자명하다.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원직적 개방을 하되, 개방을 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

다는 것이다. 개방은 원론적으로 국가 전체에 이익을 가져오나 특정 집단에는 손해가 될 수 있다. 제조업 중심의 추격형 산업의 성장 시기에서는 개방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서비스 중심의 선도형 산업구조에서는 원직적 개방이 경쟁력을 상승시키는 길이다.

한국의 원격의료 기술은 이미 2000년 세계를 앞서 개발됐다. 당노폰이라는 획기적인 융합제품을 세계 최초로 출시했다. 그러나 폐쇄된 한국의 의료 규제는 엄청난 기회를 상실하게 만들었다. 한국은 페이팔과 알리페이보다 앞서 모바일 결제 기술을 개발했다. 그러나 공인인증서 규제에 막혀 한국은 핀테크 산업 선도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한국의 교육산업도 마찬가지로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한국은 이미 금융, 의료, 교육 등의 서비스 분야에서 중국보다도 비개방적이라는 것이다.

창조경제는 기술과 기술, 기술과 서비스, 기술과 문화가 상호 융합하면서 발전된다. 창조경제는 융합이 아니라 융합이 쉬워지는 경제이다. 이를 위한 대전제는 개방이다. 융합을 위해서는 개방해야 한다. 개방과 경쟁 속에서 융합은 촉진되고 혁신은 가속화해 국가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개방으로 창출된 국부의 일부를 개방 반대 업계의 구조조정에 투입하는 것이 국정 과제일 것이다. 11%를 넘어선 청년 실업을 축소하고 국가 고용률 목표 70%를 달성하는 유일한 길은 개방을 통한 경쟁력 향상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하루 한 생각 3월 23일 坎而後止(감이후지) 구덩이에선 물이 넘치기를 기다려라

오늘의 배국방 www.baekn.com

상선약수(上善若水)가 물의 덕을 말하는 성어라면 감이후지(坎而後止)는 그중 한 가지를 부각시켜 체세법을 일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물은 낮은 데로 흐르고 반자리를 채우지만 구덩이를 만나면 더 나아가지 못한다. 구덩이가 차야만 밖으로 나갈 수 있다. 감이후지 중 '坎'은 구덩이 감자다. 조선 중기의 문신 상촌(象村) 신희(申欽·1566-1628)는 송강 정철, 노계 박인로, 고산 윤선도와 더불어 조선 4대 문장가로 꼽히는 사람이다. 그는 계속속사로 밀려났을 때 김포 가현산(歌峯山) 동봉(銅峰) 기슭에 감이와(坎止窩)라는 한 칸 초가를 지었다. 계속

옥사는 소복세력이 영장대군(선조의 13남)을 옹립하려 한다고 대목 일파가 무고해 벌어진 정변(政變)이었다. 감지와 '감'은 물이 구덩이를 만나 멈춘 곳이다. '와'는 울집, 굴이라는 뜻이니 불뚝없는 집을 말한다. 처음부터 구덩이에 빠지지 말아야 했지만 이미 빠졌으니 발버둥치고 허우적거려 봐야 소용없다. 그는 집을 짓고 감지와명(坎止窩銘)도 썼다. "구덩이에 빠지고야 멈췄으니 행한 일이 부끄럽지만 마음만은 형통하여 평소와 다름없네. 그칠 곳에서 그쳐 낙천지명(樂天知命) 군자 되리라." 주역 간괘(艮卦)를 부연해 쓴 글이다.

그의 아들 낙전당(樂全堂) 신익성(申翊聖·1588-1644)이 아버지를 위해 이곳에 작은 정자를 짓고 이름을 지어 달라고 했을 때에도 상촌은 감지정(坎止亭)이라고 했다. '맹자' 이우하편(離婁下篇)에 영과이후진(盈科而後進)이라는 말이 있다. 물의 흐름은 조금이라도 낮은 곳이 있으면 먼저 거기를 가득 채운 뒤 다시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다. 영과후진이라고도 한다. 학문은 그렇게 모든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감이후지와 용법이 똑같지는 않지만 함께 기억하면 좋을 말이다. 임철순 주필 겸 미래설계연구원장 fusedtree@



데뷔 17년 맞은 그룹 '신화' 백곡남땀검은 22일 그룹 신화를 만났다. 올해로 데뷔 17주년을 맞이한 신화는 3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2만 2000여명의 팬들과 함께 데뷔 17주년 기념 콘서트 'WE'를 펼쳤다. 특히 22일은 신화에게 특별한 날이었다. SBS 음악프로그램 '인기가요' 1위 트로피를 획득하면서 정규 12집 앨범 'WE'를 통해 9관왕을 석권한 것이다. 신화의 애력은 "This Love"가 너무 잘돼 그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런데 'This Love'를 이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신화로 17년간 활동하면서 9관왕은 첫 기록이다"며 팬들에게 큰절을 했다. 신화는 12집 신곡과 더불어 그간의 히트곡까지 총 26곡을 부르며 약 3시간 동안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신화의 이만우는 콘서트를 마무리하며 "그동안 많은 무대와 노래들로 여러분의 사랑을 받았다. 17년 동안 너무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다. 신화는 12집 앨범 활동을 마무리하고 5월부터 아시아 투어에 돌입한다. 오연민 기자 yerin2837@

온라인 와글와글 무허가 캠핑

미등록 캠핑장 1600곳, 소방점검도 안 받는다는데... 캠핑장은 안전 사각지대. 전체 캠핑장 1800여곳 가운데 90%에 가까운 1600여곳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지 않아 소방점검 등 안전실태 조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상에선 "텐트와 식기류 등 시설 일체를 빌려주는 '글램핑'은 소방법 적용도 안 받는다. 소화시설이 없는 경우도 많고, 캠핑장 자주 가지만 항상 긴장된다", "강원도에 무분별하게 캠핑장이 늘어나더라. 어쩐지 등록조차 안 하고 영입하는 거였구먼", "글램핑 시설은 건축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LLE is a trademark owned by HACHETTE FLIPACCHIPRESSE SA, Paris, France. 0260043930 www.elle-shop.co.kr

데스크 칼럼

‘징비록’ 코드읽기

요즘 KBS 주말 드라마 '징비록'을 보는 재미에 흠뻑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필자도 마찬가지. 사극이라면 태생적으로 답답하고 사는 젊은이들도 토요일, 일요일 밤이면 중년의 필자와 마찬가지로 채널을 자기도 모르게 이쪽으로 돌린다 하니 실로 대단한 드라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토록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걸까. 그건 바로 드라마가 전하는 '가슴 후벼 파는 울림' 때문이다. 가히 위인다운 한 성현의 잔잔하지만 크나큰 울림 말이다.



이 은 호 경제국장 겸 정치경제부장

더 의미 있는 건 드라마 '징비록'의 인기가 하늘 높이 치솟으면서 원작에 대한 세인들의 관심도 우뚝 치솟은 점이다.

원작 '징비록'은 임진왜란 당시 전시 총사령관 격인 영의정 겸 도체찰사였던 서애 류성룡이 그 후속하다 후속한 전쟁 7년을 온몸으로 버텨낸 뒤 집필한 전란의 생생한 기록이다. 국정 최고의 요직에 있으면서 전란의 현장에서 목숨이 오늘 내일 하는 조선을 이끌었던 그였기에 누구보다 임진왜란의 참혹함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류성룡이 의도했던, 아니든 이 책이 전하는 절절한 메시지는 그냥 허투루 넘기기 어려운 무게감으로 다가온다.

그건 제대로 된 뇌를 가진 사람이 아닐 것이다.

또 하나 우리에게 깊은 교훈으로 다가오는 것은 다른 과벌에 대해 가까이 정치적 파트너로 인정해준 그의 야망이다. 사실 누구도 늘 자신에게 반대 것발만 높이 흔들었던 사람을 정치 파트너로 인정하진 않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달랐다. 반대한 사람도 인정했다. 그가 항상 하는 말이 "서인(반대파)도 배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다는 점은 그의 넓고도 넓은 야망을 가까이 웅변해준다. 또한, 세자를 세울 것을 주청했다가 임금 선조의 미움을 사서 귀양을 떠난 반대파 서인의 영수 정철에 대해 동인들은 죄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지만, 그만은 유화적인 스탠스를 취했는데, 이 역시 상대를 한 정치 정파로 인정해주는 그의 소신과 무관하지 않다. 이 일로 인해 동인은 강경파 복인과 온건파 남인으로 갈렸지만 이런 연원이라면 갈라서더라도 이를 두고 분파주의라 비난할 수 없을 것이다.

원작 '징비록'과 관련해 필자가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건 바로 이 기록을 쓴 사람이 류성룡이란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류성룡은 전쟁의 모든 권한뿐만 아니라 책임까지 오롯이 짊어지는 영의정이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불귀의 객이 된 사람과 집과 전답 다 잃고 피란민이 돼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았나. 본인 같은 기록 하나 남기더라도 변명으로 철철 넘치는 핑가를 남겼을 터. 그런데 류성룡은 전혀 반대. 후세에 교훈을 남기고자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 글을 남겼다. 자신의 과오조차 거울처럼 투명한 눈으로 후속한 비판의 칼을 가하는 그의 모습에서 서늘한 공포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백성에 대한 애뜻한 사람도 류성룡이 '징비록'을 통해 전하

는 중요한 교훈이다. 류성룡은 당시 특히 폐단이 컸던 공납 대신 토지 면적에 따라 쌀로 받는 작미법을 시행했다. 작미법은 이이가 주장한 대공수미법을 손본 것으로 후일 대동법으로 이어진다. 나아가 사노비도 균역을 지도록 하고 공을 세우면 면전과 벼슬을 보장했다. 류성룡은 백성을 위한 시책이라면 당시 매우 혁명적이라고 저어할 수 있는 것도 마다치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작금의 정치인은 어떤가. 류성룡처럼 아름다운 정치인은 좀처럼 볼 수가 없다.

우선 지금 정치인은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어도 한 번도 자기 책임이라고 흔쾌히 인정할 적이 없는 족속들이 다. 더 황당한 건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상대에게 돌리는 이들의 태도다.

아울러 더 안타까운 게 있다. 현재 정치인 그 누구도 반대편을 정치를 함께하는 파트너로 인정한 경우가 없다. 그냥 저자는 우리와 한배를 탈 수 없는 인간이라는 식으로 상대를 철저히 배제해버릴 뿐이다. 이 점에서 여당도, 야당도 한 치의 예외 없이 똑같다.

현재 정치인을 보며 가장 섭섭한 대목은 이들 그 누구도 국민에게 일말의 사랑이라도 준 적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선거 때는 국민에게 자기 자식까지 바칠 거 같이 하지만 그것도 단지 그때뿐이다.

물론 한국이란 지극히 비정상적 사회에서 정치해야 하는 정치인들의 고충을 모르는 건 아니다. 그리고 정치인 가운데 존경할 대목이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한국 정치가 좀 더 소망스런 무언가가 되길 바라는 범인의 소소한 희망을 대변해 조금 쓴소리해봤다.

leeunho7@

차상업의 시선

온라인뉴스부 차장

챔피언스리그는 끝나지 않았다

올시즌 유럽 최고의 클럽을 가리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가 8강 대진을 확정했다.

지난 20일(한국시간) 챔피언스리그 8강 대진 추첨이 완료되면서 우승에 대한 팬들의 관심은 더욱 증폭됐다. 첼시, 아스날, 맨체스터 시티 등 16강에 합류했던 잉글랜드 팀들이 모두 탈락하며 8강에 단 한 팀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이변을 연출했다.



반면 지난 시즌 우승팀 레알 마드리드는 2차전 홈경기에서 샤키에에게 3-4로 패했지만 득실차로 힘겹게 8강에 올랐고 데비 라이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바이어 레버쿠젠과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리해 레알과 8강에서 만난다.

아쉬운 점은 더 이상 한국 선수의 모습을 '꿈의 무대에서 볼 수 없는 점이다. 레버쿠젠은 아틀레티코와 승부차기까지 펼쳤지만 안타깝게 패해 유럽 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올시즌 손흥민은 챔피언스리그를 통해 플레이오프 2경기 포함 10경기에 출전해 5골 1도움을 기록했다. 지난 시즌 득점과는 인연이 없었지만 올시즌 확연히 성장한 모습이 보인 점은 고무적이었다. 박지성 이후 오랜만에 챔피언스리그에서 존재감을 드러냄으로써 다음 시즌을 기대하게 한 점도 만족스러웠다.

냉정하게 말하면 손흥민은 한국을 대표하는 간판 공격수지만 아직은 기량이 더 향상될 여지가 많은 선수다. 여전을 다하지만 모든 경기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일 수는 없음도 당연하다.

아틀레티코와의 마지막 경기에서 손흥민은 후반 중반 톨레스와 교체됐다. 이날 움직임은 그다지 인상적이지는 않았고 팀이 기록한 7개의 슈트 중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은 단 한 개의 슈트뿐이었다.

이에 일부 국내 팬들은 손흥민을 불

러들이 로저 슈미트 감독을 질타하기도 했다. 손흥민의 플레이를 살려주지 못한 동료 선수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일례로 혼자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한 벨라라베는 국내 팬들에게는 공공의 적이기도 하다. 하지만 레버쿠젠은 손흥민을 위한 팀이 아니다. 개개인의 조직력이 만들어낸 팀이다.

축구 팬의 입장에서 한국 선수를 응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자칫 지나친 애정으로 인해 '레버쿠젠=손흥민'으로 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레버쿠젠이 8강 문턱까지 가는 데는 손흥민은 물론 동료 선수들의 고른 활약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같은 경우는 단지 손흥민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 선수가 속한 팀이면 종목에 관계없이 나타난다.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나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 등 미국 프로야구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에게도 마찬가지다. 한국 선수들과의 특별한 친분이 있을 경우 최고 선수로 찬사받고 한국 선수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선수는 역적이 되기도 한다.

적지 않은 시차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열리는 경기를 직접 시청하며 응원하는 것은 분명 엄청난 열정이다. 하지만 한국 선수라는 이유만으로 맹목적인 응원을 보내는 것은 자칫 해당 종목에 대한 편협한 시각을 가질 우려가 있음에 상기해야 한다.

sycha@

한 나 명 다산네트웍스 커뮤니케이션팀 대리



나는 당신과 대화하고 싶다

최근 스마트폰 중독의 문제를 지적한 기사가 눈에 띄었다. 영국에서 스마트폰 사용자 2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들은 하루 평균 3.6시간을 스마트폰 사용에 할애하고 있었다. 60%의 응답자는 스마트폰이 의사소통을 비롯한 대인관계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보다 편리하게 소통하기 위해 발명된 스마트폰이 어느 순간 소통의 단절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출퇴근 지하철 모습을 보자. 일제히 누가 명령이라도 한 듯 모두가 스마트폰을 훑어저러 쳐다본다. 삼삼오오 모여 앉은 식당 안 무리들은 음식을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고 초조한 각자의 스마트폰을 훑어저러 쳐다보고 있다. 잠시의 자투리시간에도 대화는 없고 스마트폰 속 개인의 세상만이 있을 뿐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만남을 통해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안부를 물었다. 첫 만남의 자리에서는 상대방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외적인 모습에서부터 작은 습관 하나까지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분명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더 많은 소통의 기회와 편리한 세상을 열어줬음에 틀림없다. 하지만 스마트폰 없는 공간에서 우리는 누구와 얼마나 양질의 대화를 나누며 소통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 멀리 당신에게 가까워지는 사람과의 인사가 결코 그리워 급하게 스마트폰을 향해 눈길을 돌린 적은 없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혹은 잠시의 여유를 온전히 즐기지 못하고 작은 스마트폰 세상 속을 헤매고 있지 않은지 말이다.

최근길 무렵 방송되는 저녁 생활 정보 프로그램에는 늘 맛집 소개 코너가 있다. 매일 소개되는 맛집은 방송당 두세 개가 넘는다. 뿐만 아니라 MBC '찾아라 맛있는 TV', 올림프 '테이스티로드', Y-STAR '식신로드', tvN '수요미식회' 등 예능프로그램에서도 매주 맛집을 찾아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 맛집 개수도 놀랍지만 이를 소개하는 프로그램 개수도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다큐멘터리 영화 '트루맛쇼'는 실제 맛집이 아닌 음식점들이 홍보 수단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는 내용을 다뤄 화제가 됐다. '트루맛쇼'가 아니더라도 방송에서 다른 맛집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맛집 논란이 늘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맛집 프로그램을 향한 대중의 관심은 뜨겁다. 이에 수많은 맛집 프로그램들의 천원일물적인 진행 방식은 늘 아쉬웠지만 하다. 맛집 프로그램들의 패턴은 시간이 지나도 한결같다.

기자수첩

오 예 린 문화부/yerin2837@



'도긴개긴' 맛집 프로그램

Advertisement for the book '영영이별 영이별' by Kim Byeol.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the author, Kim Byeol, and the book cover. The text asks, 'Do you have a sudden realization of love?' and describes the book as a collection of love stories. I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Hainaim.com and the publisher's address.

Advertisement for the book '영영이별 영이별' by Kim Byeol. It features a smaller image of the author and the book cover, along with promotional text and pricing information.

메밀꽃 필 무렵  
**봉평촌**

산하리근 일출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꽃이  
 소금올 뿌린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  
 봉평촌 메밀 30종

# 메밀꽃 필 무렵 '봉평촌'은 국내산 메밀만 사용합니다.

메밀에도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제 메밀 제품 고르실 때는 꼭 '메밀꽃 필 무렵 봉평촌'을 확인하세요.  
 100% 국내산 메밀만 쓰는 짙은맛, 365일 색다른 메밀 먹거리로  
 가족을 위해 건강하고 맛있는 식탁을 만들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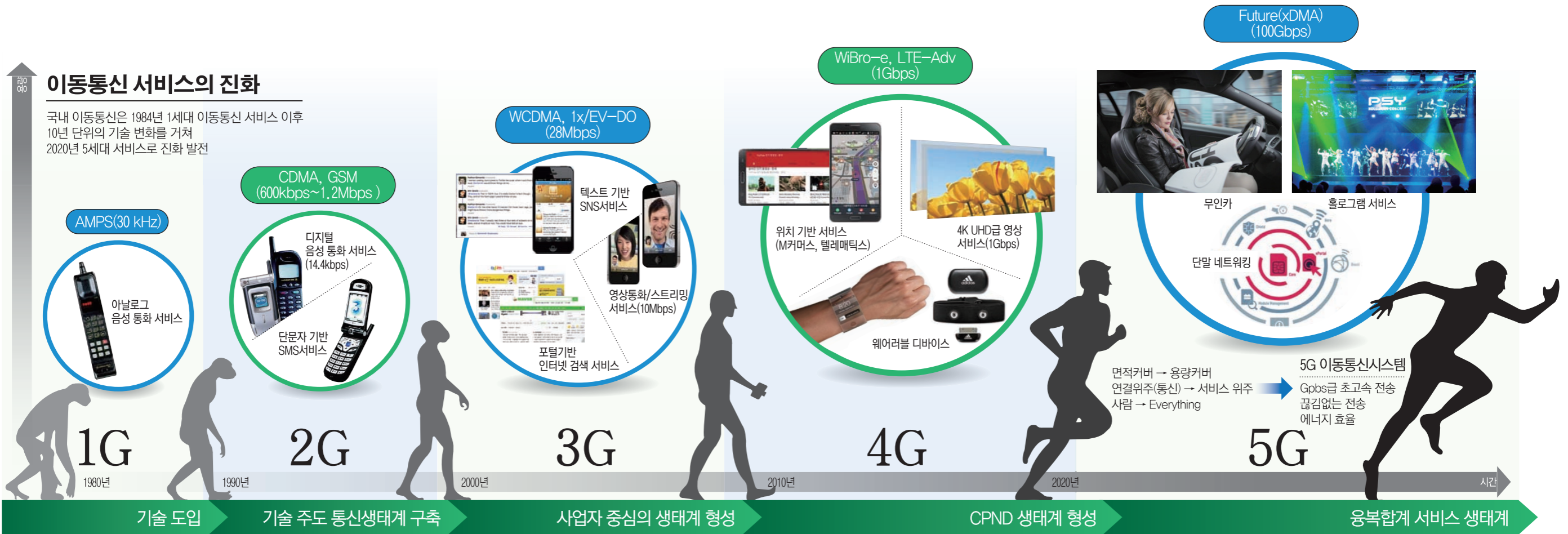
■ 봉평촌 모델 : 최양락, 팽현숙 부부



메밀꽃 필 무렵 '봉평촌'이  
 2014년 대한민국 식품대전 소비자 품평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메밀하면  
 「봉평촌」





# 무인차로 출근, 재난구조는 로봇이... '5G 신세계'

상상과 꿈이 현실이 되는 5세대(5G) 통신기술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5G기술은 기존 4G 기술인 롱텀에볼루션(LTE)보다 100배 이상 빠른 속도이다. 5G는 개인에게 초당 17기비트(Gbps)급, 기지국에서는 100기비트급 전송 속도를 구현하는 서비스다. 2시간짜리 영화 한 편을 단 1초 만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5G가 보유한 엄청난 힘은 무엇보다도 파생효과다. 통신인프라 수준을 넘어서 실생활부터 산업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 특히 미래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핀테크, 무인자동차 등의 핵심 인프라가 모두 5G 기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주요 국가에서 5G에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이유다.

이미 유럽, 일본, 중국 등은 일찌감치 5G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발 빠른 행보에 나섰다. 수년 전부터 영국은 5G 혁신센터 설립을 추진했고, 중국은 5G 프로모션 그룹을 결성했다. 일본은 NTT도코모가 앞장서서 5G 기술선점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 역시 향후 대변혁을 일으킬 5G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오는 2020년까지 5G 분야에 민관 공동으로 1조6000억원을 투입해 통신망 등 관련 기술 개발과 국제 표준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통신3사를 필두로 5G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오는 2018년 시범서비스 뒤 2020년 5G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라 전망이다.

## 차세대 이동통신 각축전

**#출근을 위해 무인자동차에 탑승한 뒤 '사무실'이라고 말하자 차량은 5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최적의 경로를 산출해 이동을 시작한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도중 화상전화로 미국-중국의 사업자와 회의를 갖는다. 모든 자료와 대화는 실시간 자동 번역된다.**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접근할 수 없는 고립된 재난현장. 이곳에 잠시 후 재난 전문 로봇이 투입되고 고립된 재난현장에서 사람을 안전하게 구조한다.**

현실과 가상의 벽이 허물어지는 5세대(5G)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공상과학(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구현되는 세상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5G 시대에서는 누가 시장의 패권을 쥐느냐가 글로벌 주도권을 잡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예측한 향후 글로벌 5G시장 규모는 상용화 첫 해인 오는 2020년 378억 달러에서 6년 뒤인 2026년에는 1조 1588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미 글로벌 시장은 5G 시대를 선점하기 위한 소리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5G 시장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유럽, 중국, 일본, 미국이다.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앞선 5G 이동통신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오는 2020년 12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 서비스를 이루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LTE보다 100배 빠른 전송속도  
 2시간 분량 영화 1초에 다운로드  
 미래산업 IoT·핀테크 모두 5G 기반  
 실생활-산업현장 활용 방안 무한  
 .....  
 英 혁신센터... 中 프로모션 결성  
 日 NTT도코모 앞장서 기술 주도  
 정부, 2020년까지 1조6000억 투입  
 국제 표준화 놓고 '총성 없는 전쟁'

한국은 2020년까지 민간과 공동으로 약 1조6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초 구성된 '5G 전략추진위원회'를 통해 전략적인 기술개발과 국제 표준화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5G 전략추진위원회는 미래부 2차관과 관계 부처, 이동3사, 단말기제조사, 중소중견기업, 5G 포럼 대표, 외부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민간 고위급 협의체다. 한국은 상용화에 앞서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5G를 첫 시연하겠다'는 구상이다.

유럽의 행보도 적극적이다. EU집행위원회(EC)는 지난 2013년 12월 5G 기술에 대한 연구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7억 유로(약 1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 업계 파트너들이 30억 유로 이상을 제공해 5G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이 중 영국은 지난 2012년 8월 삼성전자와 화웨이, 텔레포니카, 보다폰, BBC 등과 산업 컨소시엄으로 서레이대학(Surrey) 내에 5G 혁신센터를 설립했다. 이후 대규모 5G 테스트베드 구축했다.

뿐만 아니라 스웨덴·핀란드·독일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2018년 시연을 목표로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이 시범서비스로 잠은 일과 비슷하다. 중국 역시 오는 2020년을 5G 상용화의 원년으로 잡고, 연구개발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중국은 중국산업정보기술부와 과학기술부가 5G 협의체인 IMT-2020과 퓨처포럼(Future Forum)을 통해 각각 R&D(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980년 1G 서비스 도입을 시작으로 10년마다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 중국 내부적으로도 2020년을 5G 상용화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일본은 오는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에 맞춰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13년 9월 표준화기구 산하에 '2020 앤드 비욘드 에드훅(2020 and beyond ad hoc)'을 설립하고, 5G에 대한 기업 중심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또 지난해 1월 설립한 전략정책위원회를 통해 5G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할당 계획을 수립하고, 5G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5G 대응은 다른 국가보다는 다소 더딘 편이다. 이는 미국의 영토가 광활해 상용화를 위한 기술적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류가 바뀌고 있다. 차츰 5G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작용했다는 시각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모바일 반도체 전문기업인 퀄컴을 중심으로 뉴욕대(NYU), 캘리포니아주립대 버클리교(UC버클리) 등 민간과 학계가 힘을 모아 5G 핵심 기술을 연구하며 5G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5G시대를 어떤 국가가 주도할지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5G시장을 놓고 벌이는 각 국가별 기술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에 남아야 할 산은 있다. 5G의 국제 표준화 작업이다. 표준은 상호 운용성과 호환성을 위한 약속이다. 아무리 뛰어나고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국제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대표적으로 일본이 그렇다. 과거 한때 휴대전화 강국의 이미지를 지녔던 일본은 CDMA 방식(미국)과 GSM 방식(유럽)이 아닌 독자기술 방식을 채택하면서 고립됐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와이브로도 잘못된 선택이었다. 한국형 무선인터넷 기술인 와이브로는 4세대 이동통신의 주력기술로 LTE가 되면서 존재감을 상실했다. 이 때문에 글로벌시장에서는 5G 표준을 주도하기 위한 주도권 싸움이 한창이다. 5G 기술 표준이 정해지면 세계 각국의 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통신장비업체까지 모두 기술표준을 따라야 한다. 양창규 기자 yangck@

## 이통3사 CEO 승부수

# 5G시대 주도권은 우리가 잡는다



장동현 SK텔레콤 사장

원격수송 새 영역 서비스  
IoT '모비우스' 5월 상용화



황창규 KT 회장

홀로그램·4D기술 선보여  
2018평창올림픽 첫 시연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노키아·시스코 등 제휴  
홈 IoT솔루션 이미 시작

이달 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화려하게 개막한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5'에 국내 통신사 CEO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MWC에 참석한 CEO들의 각오는 어느 때보다 비장했다. 5G 시대의 전초전 성격이 짙게 묻어났다. '혁신의 끝(The Edge of Innovation)'이라는 주제를 내건 이번 MWC는 5G 네트워크 기술과 5G 기반의 사물인터넷(IoT) 등 5G의 향연장이었다.

MWC에서 국내 통신사 CEO(최고경영자)들의 목소리 역시 향후 도래할 5G시대를 리더로 자리잡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표출됐다. 한발 더 나아가 통신사 CEO들은 모든 영역의 패러다임 기록제가 될 5G 기반의 사업모델 발굴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에 따라 국내 통신3사 CEO들의 5G시대를 겨냥한 발언들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MWC에서 취임 후 첫 글로벌무대 데뷔전을 치른 장동현 SK텔레콤 사장. 장 사장은 5G 시대를 선도하는 동시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앞세워 시장의 리더로서 자리를 확고히 할 뜻을 내비쳤다. 장 사장은 "5G 시대는 속도뿐만 아니라 레이턴시(대기시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통신하는 사이에 길게는 10초까지 지연 현상이 발생하는데 5G 시대가 되면 지연없이 실시간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끝 놓고서 10초 후에 보는 정도인데 5G가 되면 거의 동시에 이뤄진다는 의미다. 그는 또 "LTE 때부터 느꼈지만 네트워크로 뿔 할

것인가는 네트워크가 진화할 때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재난 상황이나 원격수송 등 레이턴시가 있으면 안되는 영역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5G시대에 맞는 신사업모델 개발 의지를 보였다. 같은 선상에서 SK텔레콤은 오는 5월 IoT 플랫폼인 모비우스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황창규 KT 회장은 5G 통신 네트워크가 가져올 '놀라운 미래상'을 제시하며 5G 시대의 주역으로 나섰다. 황 회장은 "글로벌 통신기업들이 오는 2020년 5G 기술을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으나, KT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첫 시연을 할 것"이라며 "홀로그램이 4차원(4D) 기술 등 5G와 관련이 있

는 기술들을 선보이겠다"고 자신했다. 특히 "IoT 시대에서는 수많은 기기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초실시간, 초대용량의 네트워크인 5G가 필수적"이라며 "방대한 미래의 데이터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 새로운 5G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5G 시대에 새로운 리더로 등극하겠다는 목표다. 이 부회장은 "글로벌 기업들과 전략적 제휴를 강화할 것"이라며 "차별적인 IoT 서비스 발굴과 차세대 기술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5G 리더로 발돋움하겠다"고 역설했다. 실제 이 부회장은 노키아, 시스코 등 글로벌 제조사들의 경영진과 직접 만나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는 등 5G 시장 선점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그는 "홀IoT 시대가 오면 통신 네트워크에 연결된 20억개의 디바이스가 1000억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며 "급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재보다 수십 배 빠른 네트워크 전송속도와 디바이스간 간섭제거가 가능한 다양한 5G 기술을 적극 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5G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으로 노키아의 핵심 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5G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통신3사 CEO들의 보폭이 넓어지면서 관련 신기술과 다양한 서비스 개발도 속속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정부와 통신3사는 오는 2018년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데 이어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잡고 있다. 양창규 기자 yangck@

# ‘상생 시너지’로 속도·플랫폼·상품 ‘세토끼’ 잡기



MWC SK텔레콤 부스의 5G 코너에선 사람과 센서가 연결된 로봇이 전시됐는데 이 로봇은 옆사람이 움직이는 즉시 똑같은 자세로 움직여 5G의 낮은 지연 속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사진제공 SK텔레콤

## SK텔레콤

◇5G의 전략은 협력업체들과의 상생 = SK텔레콤의 5G를 향한 전략은 기술 개발에 집중돼 있지만, 이외의 곳에도 있다. 바로 상생이다. 이는 장동현 SK텔레콤 신임사장이 당시 현장 기자회견에서 강조했던 말이다.

장 사장은 5G 전략에 대해 “표준 경쟁을 하기보다는 고객을 중심으로 놓고 네트워크, 디바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구조로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큰 그림 안에서 SK텔레콤은 5G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기술을 속속 내놓고 있다. SK텔레콤은 초고주파 대역을 이동통신 송수신에 활용하는 ‘밀리미터 웨이브’라는 네트워크 기술을 통해 LTE보다 100배 빠른 최대 7.55Gbps의 속도를 시연하는데 성공했다.

이를 위해선 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한 안테나 기술인 ‘3D 빔포밍’이 사용된다. 이 기술은 특정 방향으로 강한 전파를 송신하고, 전파방향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초고주파 대역의 전파 감쇄를 해소하는 기술이다.

현재 이동통신에서 사용되는 6GHz 이하의 주파수 대역은 포화되고 파편화된 상태인데, 초고주파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는 밀리미터 웨이브를 대안으로 5G 시대에 다가갈 것이라는 전략이다.

5G 이동통신의 가능성은 3월 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인 ‘MWC 2015’에서 확실하게 제시됐다. SK텔레콤이 중소기업체 로보빌더와 함께 개발해 MWC 현장에서 선보인 ‘5G 로봇’은 전 세계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등 5G의 미래를 제시했다는 평가다. 이 로봇은 사용자와 무선으로 연결돼 사용자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데, 데이터 전송이 지연되는 현상을 극소로 줄인 ‘초저지연(Ultra Low Latency)’ 기술이 적용돼 끊김 없이 실시간으로 로봇을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 MWC서 ‘5G 로봇’ 기술로 큰 호응 기존 주파수 활용해 속도 2배 높여 날씨 예측 기술·구글글라스 활용 등 사용자에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SK텔레콤은 기존에 쓰던 동일한 주파수 대역에서 데이터 전송 속도를 2배 이상 높일 수 있는 기술도 내놓았다.

노키아와 함께 개발한 이 기술의 비밀은 안테나에 있다. 현재 LTE는 단말기 간 송·수신에 각각 2개의 안테나를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각각 4개의 안테나를 활용하게 되면 기존 주파수 대역 안에서 다운로드 속도를 기존보다 2배 빠른 150Mbps의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 양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단일 광대역 LTE 주파수에서 4X4 MIMO 기술을 적용해 기존 대비 2배의 속도인 300Mbps를 구현한 뒤, 2개의 광대역 주파수를 묶는(CA) 방식으로 600Mbps 시연에 성공한 것이다.

이 LTE 기술은 앞으로 1~2년 안에 상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회사는 예상하고 있다.

◇5가지 플랫폼으로 생활편의 향상에 주력 = SK텔레콤이 단순히 전송속도만 끌어올린 것은 아니다. 5G의 핵심가치인 △고객경험 △연결성 △지능화 △효율성 △신뢰성 등을 고려해 고객편의를 사전에 감지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네트워크를 위한 빠른 데이터 플랫폼’ 등 네트워크 지능화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또 vRAN, vEPC, vIMS, vVAS 등 각종 네트워크 장비를 가상화해 마치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 사용하는 것처럼 신속한 신규 네트워크 서비스 구축·운영·관리할 수 있게 하는 ‘T오픈’도 있다.

SK텔레콤은 향후 5G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IoT △위치기반 △인텔리전스 △커머스 △빅데이터 등 5가지 플랫폼을 선보이며 5G 시대에서의 편리해진 생활상도 제시하고 있다.

기지국에 부착하는 센서를 통해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 ‘웨더플래닛’, 작업 매뉴얼 등을 구글 글라스 화면에 띄우는 ‘비콘+구글글라스’ 앱 활용 정보 등을 활용해 사용자에게 1:1 맞춤형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텔리전스 플랫폼 ‘Be-Me 플랫폼’ 등은 상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박성재 기자 psj@

## LG유플러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15를 찾은 관람객이 LG유플러스 전시장에서 매직 미러를 시연하고 있다. 매직 미러는 사용자가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피부 타입을 측정할 수 있다. 측정된 결과는 거울 화면에 표시된다. 현재 사용자의 피부 상태에 맞는 피부 관리법과 미용 제품도 추천해주는 사물인터넷(IoT) 서비스이다. 사진제공 LG유플러스

www.hauri.co.kr

꼼짝마라!

당신의 스마트폰 안전은 바이로봇이 책임집니다!

**스마트폰의 보안 업그레이드**

**바이로봇 Mobile for Android**

바이로봇 모바일 1.0 은 안드로이드(android) OS지원 토털 보안 솔루션으로 안전성 검사, 스팸차단, 네트워크 감시 및 도난방지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모바일용 차세대 통합 보안 솔루션입니다.

신제품 출시

**도난방지 기능**

- 폰 분실이나 도난시 원격 잠금/삭제 가능
- SIM 카드 변경시 잠금 가능
- 파일 및 디렉터리 단위 파일암호화
- SDCard 영역에 대한 파일브라우저 기능
- 프로그램 실행시 인증 가능

**안전성검사 기능**

-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 코드 차단
- 행위기반 위험 애플리케이션 차단 및 취약환경 점검
- 업데이트 기능

**네트워크감시 기능**

- Wi-Fi의 AP(Access Point) 접근제어
- 3G망의 데이터 통신량 감시 및 차단

**스팸차단 기능**

- SMS에 대한 번호 및 텍스트 기반 차단
- white list/black list 를 이용한 전화 발신/수신 차단

# 홈 IoT 서비스 차별화 글로벌 ‘5G 시대’ 선도

##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 5G 첫선 국내 첫 차세대 기지국 구축도

LG유플러스는 홈IoT 서비스와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개발에 집중해 5G 시대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한다는 구상이다. LG유플러스는 MWC에서 ‘홀메니저’ ‘매직미러’ 등 차별화된 홈 IoT 서비스와 함께 최대 50Gbps의 속도가 가능한 5G 기술 등 차세대 기술과 서비스를 대거 선보였다. 또한 노키아, 씨스코 등 글로벌 장비 제조사들과 만나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는 등 5G 시장 선점을 위한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초 스페인에서 열린 ‘MWC 2015’에서 30~300㎒의 고주파인 밀리미터 웨이브(mmWave) 대역을 활용한 5G 기술을 세계 처음으로 선보였다.

LG유플러스는 이와 함께 IoT 서비스에 최적화된 사양의 저력한 M2M 모델도 선보였다. 이 모델은 LTE 주파수 경계대역 500㎒폭 중 200㎒를 이용해 저속으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NB(Narrow Band)-M2M’ 기술이 적용됐다. 또한 드론·차량 등과 연계한 IoT 상품이나 원격검침 등 다양한 서비스 활성화도 기대된다. LG유플러스는 이러한 장비들이 상용화에 적용되는 시점에서부터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LG유플러스는 2월 국내 처음으로 5G 네트워크 구현을 위한 차세대 기지국을 구축했다. LTE 기지국 장

비인 RRH(Remote Radio Head, 주파수 송수신인호 디지털 변환장치)와 안테나를 기존 크기보다 50% 가량 줄여 75cm 크기의 원통형 장비 하나로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장비다.

LG유플러스의 이 장비는 2개 이상의 LTE 대역을 하나의 장비로 통합 운영해 기존 기지국 대비 소비전력을 50% 가까이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기지국의 주파수 처리 대역폭도 345㎒폭(다운링크 기준) 이상으로 늘릴 수 있어 5G에서 요구하는 50Gbps 수준의 빠른 전송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차세대 기지국 구축으로 기본보다 4배 이상 넓은 주파수 대역폭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도심이나 관광지 등 트래픽이 집중되는 지역에서 안정적 3밴드 LTE-A 서비스 제공과 5G 선행 기술들을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노키아와 손잡고 5세대 무선통신 선행기술인 NFV 기반의 네트워크 핵심장비 ‘CSCF(Call Session Control Function)’를 업계 처음으로 도입한다. CSCF는 VoLTE(Voice over LTE)를 포함한 올(All)-I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IMS(IP Multimedia Subsystem)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핵심 장비다.

NFV가 네트워크에 적용되면 하드웨어로 동작하던 각각의 네트워크 장비를 대용량 가상화 서버 위에 운영할 수 있어 간단한 소프트웨어 설치만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망에 적용할 수 있다. 조성준 기자 ttiatio@

# 1000배 빠른 인터넷 세상 구현 '기가토피아' 꿈꾼다

## KT

KT가 잇따라 5세대 통신기술을 선보이며 IT강대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특히 기존 LTE 주파수 대역보다 높은 28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해 100배 이상의 빠른 전송속도를 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KT는 이 기술을 발전시켜 LTE보다 1000배까지 속도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5G 전략은 '기가토피아'의 연장선 = KT가 추진하고 있는 5G 전략은 황창규 KT 회장 취임 후 무선 네트워크의 혁명이 가져다 줄 새로운 미래상으로 제시한 '기가토피아'의 연장선이다. 황 회장은 'MWC 2015' 기조연설을 통해 "무인자동차는 물론 웨어러블과 홀로그램까지 아우르는 사물인터넷(IoT) 시대는 수많은 기기가 연결되도록 초고속·초대용량 네트워크인 5G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KT는 2018년 5G 시대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로봇 원격 조종이 가능하고 무인자동차로 도로를 주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통신 속도가 지금보다 100-1000배가량 빨라지기 때문에 가능하다. 무인자동차가 주변을 파악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1초당 1기가바이트(GB)의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데, 수십억대의 자동차가 동시에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현재의 네트워크로는 부족하다. 황 회장은 "방대한 미래의 데이터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네트워크인 5G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계 최고 수준 5G 핵심기술 대거 선택 = KT가 삼성전자와 손잡고 개발한 밀리미터파(Millimeter Wave)는 5G의 핵심 기술이다. 지금까지의 주파수 대역보다 높은 28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해 100배 이상 빠른 전송 속도를 구사할 수 있다. 앞으로 이 기술을 발전시킨다면 LTE보다 1000배까지 빠른 속도를 낼

## 삼성전자와 밀리미터파 기술 개발 28GHz 사용 LTE 10배 빠른 속도 노키아와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시연 '2018년 5G시대' 구현 목표 구슬땀

수 있다. KT는 'MWC 2015'에서 이 기술을 통해 홀로그램이 전송되고 구동되는 장면을 직접 시연했다. 또한 미래형 미디어 서비스를 5G와 접목하는 기술도 함께 선보였다. KT는 앞으로 홀로그램뿐만 아니라 초고화질 동영상과 360도 다중 초점 카메라 영상 등 실제와 유사한 증강현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에릭슨과 공동으로 개발한 5G UDN(Ultra-Dense Network)은 KT가 보유한 광 인프라와 망 운용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형태의 스텔셀을 밀집 구축하는 기술이다. 기존 대비 100배 이상의 사용자 수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선 품질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5G기술을 경기장과 선수촌, 미디어센터 등 트래픽이 밀집하는 지역에 구축하고,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통신 후원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IoT 시대 위한 다양한 서비스 = KT는 'MWC 2015'에서 노키아와 함께 LTE-M(Machine) 기술도 시연했다.

LTE-M은 LTE를 이용해 각종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기술이다. 센서가 부착된 사물이 LTE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나 사물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상호 통신을 통해 제어도 가능하다. 별도의 장비를 구축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IoT 네트워크에 비해 비용 부담이 적은 것도 특징이다.

KT와 노키아는 스카프 등 제어 스쿠터 관리 스케줄링 점검 △교통정보 수집 서비스를 시작으로 앞으로 생활 밀착형 원격제어 솔루션뿐만 아니라, CCTV와 같은 공공서비스 영역까지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황 회장은 "5G가 선사할 미래는 한 기업이나 국가의 힘으로 이뤄낼 수 없기 때문에 글로벌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통신사업자 주도의 5G 로드맵에 대한 상호교감을 통해 표준화에 대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MWC에 참석한 KT 신입사원들이 현지 참가자들과 전시장 앞에서 5G를 이용한 인터넷 접속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제공 KT

## SK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가 지난해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월드IT쇼(WIS) 2014'에서 10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10기가 인터넷은 1기가 HD 영상을 0.8초 만에 내려받을 수 있는 기술이다. 사진제공 SK브로드밴드

# '1초에 1기가' 꿈의 속도 UHD TV 시대 이끈다

## 10기가 인터넷 시범서비스 세계 첫 시연 고품질 CDN 서비스 해외 진출도 가속

5G 통신의 속도는 통상 1기가비트(GBps)가 넘는 속도를 말한다. 현재 전문가들은 10Gbps 속도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1Gbps는 영화 한 편 받는 데 1초면 된다. 눈이 돌아갈 정도의 빠른 속도다. SK브로드밴드는 이통3사 가운데 꿈의 속도를 가장 먼저 시연한 회사다.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장에서였다.

◇세계 첫 10기가 인터넷 시범서비스 시연 = 당시 SK브로드밴드와 다산네트웍스는 부산 벡스코에서 세계 ICT 장관들과 전문가가 지켜보는 가운데 세계 최초 10기가 인터넷 시범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시연했다. 공개된 기술은 국내 통신장비 1위 기업인 다산네트웍스가 SK브로드밴드와 함께 정부 과제로 진행한 '10기가 인터넷 시범망 구축'의 하나로 개발된 것이다.

10기가 인터넷은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100Mbps와 견줘 100배의 속도다. 기가인터넷은 앞으로 사물인터넷(IoT), 초고화질(UHD) TV, 3차원(3D) 홀로그램 통신 등 차세대 인터넷 서비스의 기반이 된다.

현재 SK브로드밴드는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파생기술을 만들어 승승장구하고 있다. 특히 영화·뮤직비디오·스포츠 등 대용량 콘텐츠를 인터넷망을 통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콘텐츠 전송망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서비스가 국내외 시장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콘텐츠 전송망 해외진출에도 가속도 = SK브로드밴드의 CDN서비스는 국내 최대 트래픽 대역폭을 제공하고 3중화로 안정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상세한 통계를 지원함과 동시에 트래픽 폭주 시에도 신속한 시스템 확장이 가능하다.

SK브로드밴드의 CDN 서비스는 국내 주요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EBS 사이트 내 모든 콘텐츠에 대한 CDN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SBS의 인터넷방송 서비스 제공사인 SBS콘텐츠허브도 SBS, 보이노라디오 등의 라이브·VoD서비스에 SK브로드밴드 CDN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해외진출 속도도 가파르다. 지난 2년 동안 일본 오사카와 도쿄, 미국 LA와 뉴욕, EU 룩셈부르크, 동남아시아 필리핀과 싱가포르 등에서 네트워크 거점을 구축하고 CDN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중국 최대 CDN 사업자인 차이나넷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한중 간 CDN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이번 협약으로 차이나넷센터가 중국 전역에 보유하고 있는 600개의 네트워크 거점을 확보해 고품질의 서비스를 보다 넓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SK브로드밴드는 향후 적극적 동남아 시장 공략을 위해 베트남, 태국 등에 CDN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거점을 추가로 구축, 글로벌 CDN사업자의 위상을 굳혀 나갈 계획이다.

박성재 기자 psj@



## 사랑합니다

아껴주고 사랑하고 웃음 넘치는  
당신의 아름다운 삶 속에  
애경이 언제나 함께 합니다

## 존경합니다

나누고 손잡아주고 배려하는  
당신의 아름다운 삶을  
애경이 언제나 응원합니다

# 꽃따라 걷다보니 어느새 정상 장거리도 강한 단거리화 '지그'

## 몽벨

LS네트웍스의 아웃도어 브랜드 몽벨은 2015년 신제품으로 단거리 미드컷 트레킹화 '지그(Zig)'를 출시했다.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올라가면서 봄꽃맞이 산행을 준비하는 이들이 많다. 산행에 앞서 등산화를 장만하려면, 어떤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을까? 2015년 봄 시즌의 아웃도어 슈즈 신상품들은 경량성은 기본이고, 고어텍스 소재 사용으로 방수와 통기 기능을 추가해 장시간 착용해도 쾌적함을 강조한다.



몽벨이 새롭게 선보인 미드컷 트레킹화 지그는 미국 특수부대 제품에 사용되는 슈퍼페브릭 원단을 써 가볍고 내구성이 좋으며, 쉽게 때가 묻지 않고 스크래치나 불에 강한 것이 특징이다. 방·투습 기능이 뛰어난 고어텍스 소재를 적용해 눈 또는 비에도 쾌적한 산행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오소라이트(Ortholite) 인솔(깔창)을 사용했으며, 외부 충격을 흡수하는 쿠셔닝 기술을 적용해 장시간 산행으로 인한 발의 피로도를 최소화했다.

남성용인 카키 색상은 255~285mm, 여성용인 머스터드 색상은 230~255mm로 구성된다. 가격은 각각 21만9000원이다.

몽벨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아웃도어 제품 소비자들은 용품이나 의류 사용에 있어 이미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가급 소비자층이 대부분"이라며 "몽벨 지그는 트레킹 제품으로 경등산화로 손색없는 기능을 갖춘 제품인 만큼 합리적 소비자층의 선택을 받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철규 기자 yoonck@

## '스포츠+라이프' 기능성 아웃도어

올 봄 아웃도어 업계의 키워드는 '실용성'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아웃도어 시장이 성숙 단계로 접어들고 소비자층의 소비 패턴이 보다 합리적으로 변모함에 따라 올 봄에는 아웃도어 브랜드 간 '생활 기능'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년 전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화소 경쟁에서 미러리스 카메라 등장을 계기로 시장 자체가 새로운 트렌드로 전환된 것처럼, 아웃도어 시장 역시 올 봄을 기점으로 필파워 등 고사양 제품 출시 경쟁에서 소비자의 생활에 꼭 필요한 기능을 반영한 제품의 출시가 잇따를 전망이다. 더불어 아웃도어 업체들은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멜라지 컬러나 플라워 프린트 등의 디테일을 폭넓게 사용해 지난 몇 년간 지속됐던 힐링 바람을 이어 나간다는 전략이다.

윤철규 기자 yoonck@

자연과... 도시와...

감성과... 실용과...

# 아웃도어 양의 뇌구조



# 메마른 도시... 땀을 허하라! '방수·방풍' 매일 입어도 산뜻

## 라푸마

빠르게 돌아가는 각박한 삶에서 옷을 통해 안정을 찾고자 하는 소비자층의 욕구는 최근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아웃도어 제품에도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멜라지 컬러'나 '플라워 프린트' 등의 디테일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LF 라푸마 감지해 CD는 "국내 아웃도어 시장에서 아웃도어 의류는 이제 일상복과 같이 '매일 꺼내 입는 옷'으로 그 의미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올 봄 아웃도어 브랜드들의 라이프스타일 제품군이 눈에 띄게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푸마는 이번 시즌, 과거 방풍, 방수 등 기능별로 각각 단일 제품을 구매해야 했던 소비자의 불편을 덜어줄 '아리아-플로스 재킷'을 출시했다. 이 재킷은 비나 눈에 노출될 수 있는 후드부터 어깨 부위까지 방수 소재를 사용하고, 바람에 노출되는 목관 부위는 방풍 소재를 사용한 라푸마의 올 봄 주력 제품이다.

아리아 초경량 하이브리드재킷(16만8000원)은 제품 구조 형태의 기술력으로 어깨, 후드의 방수 원단과 목관의 방풍 원단을 각각 다르게 제작한 것이 특징이다. 목관은 초경량 고밀도 방풍 소재를 사용하고, 어깨와 후드에는 2.5L 방수 처리된 원단을 적용해 방풍성 및 방수성이 탁월하다. 특히 어깨와 후드의 방수 원단은 우수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땀이 나도 피부와 붙지 않는 기능성으로 등산 및 아웃도어 활동 시 땀을 많이 흘려도 쾌적함을 제공한다.

플로스 하이브리드 재킷(17만원)은 목관 초경량 고밀도 방풍 소재로 바람은 막아주고, 우수한 통기성으로 체온을 조절해 쾌적함을 유지시켜 준다. 우천 시 비를 직접적으로 맞는 후드와 어깨 부위는 2.5L 코팅 방수 소재를 사용하고, 배와 등 나머지 부위는 초방수 소재를 사용했다. 플라워 패턴을 디지털 프린트 기법으로 처리해 여성스러운 매력을 극대화시킨 것이 눈에 띈다.

장효진 기자 js62@

# 기능 따라 색 따라 '레이어링' 하나 벗어도 스타일은 그대로

## 코오롱스포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아웃도어 활동에 나서고 싶은 계절이다. 그러나 꽃샘추위가 때때로 기습을 부리고 있는 만큼, 옷차림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코오롱인더스트리의 패션 브랜드 코오롱스포츠는 일교차가 크고 기상 변화가 심한 아웃도어 환경에서 최적의 기능성을 발휘할 수 있는 레이어링을 추천하고 있다. 레이어링은 안쪽에 땀을 잘 배출할 수 있는 기능성 언더웨어, 아우터로 갈수록 바람과 눈·비를 막아줄 수 있는 방수 재킷을 입어 각자의 기능을 잘 살릴 수 있는 옷차림이다.

보색이나 비슷한 계열의 컬러를 겹쳐 입으면 스타일까지도 살릴 수 있다.

올 봄 코오롱스포츠는 아웃도어용 레이어링 스타일을 연출하기 가장 적합한 고어 재킷을 다양하게 선보였다. 남성 팩라이트 데님 프린트 고어재킷(35만원)은 방수 투습 기능이 뛰어난 '고어텍스 2L PACLITE' 소재를 적용했다. 심플한 절개 라인에 데님 프린트를 전체적으로 적용해 캐주얼한 디자인을 강조했다. 가슴 포켓을 추가해 수납성을 강화했으며, 내부에 방수 포켓인 일명 패니툼을 추가 구성해 실용성을 높였다.

여성용 3L 프로셀 최전선형 재킷(히말라야, 85만원)은 '고어텍스 프로 멘브 레인' 소재를 사용해 방수 및 투습 기능이 뛰어나다. 아울러 팔꿈치와 갈라진 부분에 코오롱의 특허 기술인 지오프린팅 기법을 사용해 내구성이 탁월하다. 소매 부분은 내마모성 보강인체 패턴을 적용해 아웃도어 활동 시 최적의 편안함을 제공한다. 또 커덕라이프 부분은 벤트레이션을 구성해 통기성 또한 강화했다.

이선애 기자 Lsa@

# 특특 털면 다시 새 옷으로... '비박 필수품' 서플렉스 재킷

## 빈폴아웃도어

제일모직의 빈폴아웃도어는 2015년 봄-여름 시즌 여반 아웃도어를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 고객을 대상으로 캠핑을 생활화하는 문화를 반영한 아웃도어 스타일링을 제안했다.



이번 시즌에는 서플렉스와 경량 바람막이 재킷이 한층 업그레이드돼 보기에 좋고 입기에도 편한 상품으로 변신했다. 서플렉스 재킷은 면처럼 부드럽지만 강도가 높고 마찰에 강해 나무에 걸리거나 넘어져도 찢기거나 구멍이 생기지 않는다. 특히 피부에 닿는 느낌이 부드러워서 가벼운 캠핑이나 등산 시 착용해도 무방하다.

더불어 장시간 착용 시 땀 배출이 잘되도록 등쪽에 벤트레이션 기능의 메시 소재를 활용했다. 이와 함께 구김이 가지 않고 오염에 강할 뿐만 아니라 세탁 후에도 변하거나 줄어들지 않아 보관 및 손질이 용이하다.

가벼운 봄바람이 불 때면 경량 바람막이 재킷도 땀을 흘릴 수 없다. 빈폴아웃도어는 스트레치 소재를 활용해 활동성을 높였다. 암홀 부분에 메시 소재를 사용해 땀 배출을 용이하게 했으며, 땀이 나도 끈적이지 않고 산뜻함을 유지토록 했다. 또 벗어서 넣을 수 있는 패커를 주머니를 제공해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빈폴아웃도어는 이번 시즌 통기성을 대폭 강화한 V60 라인의 워킹화-트레킹화를 선보이며 여반 아웃도어를 선호하는 고객 잡기에 나섰다.

빈폴아웃도어의 V60 워킹화는 신발의 옆과 뒷부분은 물론 밑부분에도 투습 기능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했다. 또 걸창과 밀창 사이에 별도의 메시 형태의 프레임을 삽입시켜 투습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이로써 360도 투습이 가능해져 차별화된 통기성을 경험할 수 있다.

조승매 기자 sysy@

# 굴곡에 굴하지 말자... '퍼펙트 핏 시스템' 워킹화

## 레드페이스

아웃도어 브랜드 레드페이스는 올 봄 워킹화 시장 공략을 위해 새로운 개념의 '퍼펙트 핏 시스템(PFS)' 시리즈를 출시했다.

레드페이스의 퍼펙트 핏 시스템은 49년간 축적된 레드페이스의 신발 제조 기술과 생체역학 원리를 적용한 최첨단 기술이다. 신발을 울퉁불퉁한 인체의 발 모양에 정확하게 일치시켜 착용감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발과 완벽한 일체감을 구현한 '굴곡형 라스트'와 지지력을 향상시킨 '아치 서포트'와 힐킵이 적용돼 발의 피로도를 줄여준다. 더불어 쾌적성과 쿠셔닝을 제공하는 '퍼펙트 핏 폼 인솔'을 적용, 발과 신발 사이의 공간이 밀착돼 장시간 신어도 편안하다.

레드페이스 상품개발팀 이용준 차장은 "콘트라 PFS 씨미트 워킹화와 PFS 플렉스 워킹화는 '신발을 신는 순간부터가 아웃도어'라는 생각에서 시작해 도시와 거친 아웃도어 환경에서 모두 사



용할 수 있도록 경량성과 안정감을 확보한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PFS 워킹화 라인을 더욱 다양화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레드페이스는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지난 16일 서울 역삼동 분사 1층에 위치한 본점에서 포토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포토 행사는 PFS 워킹화 라인의 대표상품인 콘트라 PFS 씨미트 워킹화(11만1000원)와 PFS 플렉스 워킹화(9만9000원)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모델들은 레드페이스가 추구하는 활동적이고 편안한 워킹화를 표현하기 위해 각양각색의 표정과 포즈를 취했다.

이선애 기자 Lsa@

# 오락가락 변덕쟁이 봄날씨엔... 오매불망 'VX재킷'

## 노스페이스

노스페이스는 올 봄 슬림하면서도 활동적인 입체 설계에 경량성과 통기성을 더해 어떤 날씨에도 최적의 신체 컨디션 유지가 가능한 국가대표 트레이닝 기어 'VX재킷'을 선보인다.

지난해 FWA시즌에 첫선을 보인 노스페이스 VX재킷은 2015 SSS 시즌을 맞아 기후 및 체온 변화에 따라 최적의 보온성을 제공하는 고성능 충전재와 경량 원단을 혼용해 기후 대응력을 높이고, 보다 다양한 아웃도어 및 스포츠 활동에 입을 수 있도록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또한 이번 시즌에는 더욱 다양한 패턴과 색상을 적용하고, 카디건과 베스트 형태의 제품을 함께 선보여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대표 제품은 노스페이스 VX 다이내믹 하이브리드 재킷이다. 재킷 안쪽에 VX 액티브 충전재를 사용해 체온 유지와 쾌적성을 더했다. 목관 좌우 옆선과 소매 안쪽에는 신축성이 우수한 니트 소재의 써모라이트 스킨 원단을 사용해 활동성을 높였다. 전면엔



적용된 반원형의 퀼팅라인은 세련되면서도 슬림한 실루엣을 살려준다. 남성용은 다크 네이비, 파스텔 블루, 라이트 그레이, 블랙 색상을, 여성용은 코랄, 옐로, 라이트 그레이, 다크 네이비, 블랙을 선보인다.

노스페이스가 올 시즌 새롭게 선보인 '뉴 텔러스 재킷'은 쾌적함과 활동성을 배가시킨 윈드 재킷으로, 지난해 선보였던 '텔러스 재킷'을 업그레이드한 제품이다. 방수·방풍 및 투습 기능이 한층 향상된 하이브리드 소재와 얇고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이 탁월한 나일론 립스탑 원단을 혼용해 활동성과 쾌적성을 더욱 높였다.

조승매 기자 sysy@

# 에코·힐링·내추럴... 내 몸에 착한 '봄테리어'



## 한화L&C '릴렉스 인테리어'

### 세균·곰팡이 막는 바닥재 '참숯' 인테리어 필름 '보닥' 400여종

한화L&C는 올 봄을 '자연'을 소재로 한 신제품을 출시하고 집을 휴식 공간으로 꾸밀 수 있는 '릴렉스 인테리어'를 제시했다. 한화L&C의 PVC 바닥재 '참숯'은 지난 1월 녹색소비자연대 조사에서 유일하게 프탈레이트 가스제 함량 제로 판정을 받아 안정성을 입증한 바 있다. 바닥재 뒷면의 천연 참숯 성분을 통해 세균과 곰팡이의 번식을 막아주고, 실내공간도 쾌적하게 만들어 준다. 한화L&C는 2015년형 참숯에 천연 나무의 질감을 극대화한 7종을 새롭게 추가했다. 사용자의 피부와 직접 닿은 UV코팅층뿐 아니라 필름층에도 친환경 물질을 적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고강도 패브릭층을 추가해 바닥재의 수축과 팽창도 최소화했다. 인테리어 필름인 '보닥'은 400종 이상의 디자인으로 주방과 신발장, 옷장 등 가구와 아트월을 쉽게 꾸밀 수 있는 제품이다. 올해 리뉴얼된 보닥은 친환경 원재료와 가소제를 확대 사용해 안정성을 강화했다. 프리미엄 강화 천연석인 칸스톤과 인조 대리석 '하네스'는 올해 선보인 대표적 신제품으로 흐름 무늬를 강조하고 있다. 자연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독특한 흐름 무늬를 통해 인위적인 디자인을 배제하면서도 풍부한 색감과 역동적인 디자인을 강조했다. 두 제품 모두 세계 최대 규모의 주방 및 욕실용품 전문 전시회인 'KBIS 2015'에 소개돼 호평받았다. 칸스톤은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경도가 뛰어난 석영이 99% 함유돼 있어 강한 내구성과 위생성을 자랑한다. 유지만 가자 redpill@



조남호 기자 spdran@

## 현대리바트 '나무플러스 드레스룸'

### 서랍·옷걸이·선반형 모듈로 '붙였다 뗐다' 수납공간 최대화



현대리바트는 올해 봄 시즌 혼수가구를 신혼 때 잠깐 사용할 제품이 아닌 출산, 육아, 이사까지 고려해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나무플러스 드레스룸'은 작은 방을 수납공간으로 바꾸거나 자녀 출산, 이사 등으로 공간의 변화가 많은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제품으로 기존의 드레스룸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수납 솔루션이다. 기존의 하나의 측면으로 연결되어 있던 드레스룸과 달리 모든 모듈이 별도의 단독 제품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쌓아올리거나 좌우를 붙여 자신만의 드레스룸을 완성할 수 있다. 공간에 가구를 맞추는 것이 아닌 가구로 공간을 채워 나가는 모듈형 드레스룸으로 버려지는 공간을 최소화했다. 서랍형, 옷걸이형, 선반형 모듈을 기본으로 상부 공간이나 코너의 버려지는 공간까지 활용해 수납공간을 최대치로 늘려준다. 필요한 모듈만 구매해 개인 맞춤형 드레스룸을 꾸밀 수 있는 것도 남다른 장점이다. 분리와 조립이 쉬워 공간과 용도에 따라 신혼 때는 드레스룸으로 사용하다가, 자녀 출산 후에는 제품을 분리해 낮은 아이방 수납장으로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마인 장롱에 사용된 목재는 합집 모양 골판지를 목재 사이에 넣은 플러시 공법을 활용, 가구 무게를 30% 이상 줄이는 동시에 견고함을 높였다. 자체 사용량을 줄이는 만큼 가격도 한결 가벼워졌다. 조승예 기자 sysy@

## 에이스침대 '아넬로 III'

### 낮은 헤드보드 넓은 침실 연출 매트리스 사이즈 겸용도 가능

에이스침대가 본격적 혼수 시즌을 맞아 원목, 가죽, 패브릭 등 다양한 소재와 색상이 적용된 신제품을 출시했다. 특히 메인 모델인 아넬로 III, BMA-1121-T 등은 모던한 디자인 뿐만 아니라 LQ와 K 사이즈의 매트리스를 겸용할 수 있도록 제작돼 눈길을 끈다. 침대업계 최초로 HS마크에 이어 국가가 친환경 상품임을 공인하는 환경마크를 획득한 에이스침대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전 제품에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평균 0.5mg/l 이하인 'E0'등급의 친환경 목재를 사용하고 있다. 여유로운 헤드보드 디자인으로 안락함을 더한 '클라젠'은 모던 시티 스타일의 명품 프리미엄 제품으로 헤드보드의 자연스러운 주름이 월넛 내추럴 색상의 프레임과 어우러져 한층 더 포근함을 느끼게 해준다. 최고급 소파를 모티브로 두툼하게 디자인한 헤드보드는 편안함과 안락감을 더한다. 낮은 헤드보드로 넓어 보이는 침실 연출이 가능한 '아넬로 III'는 트렌디한 마감이 돋보이는 프리미엄 모던 스타일 침대다. 안전하고 탄탄한 스틸 구조로 K와 LQ 사이즈 매트리스를 겸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헤드보드가 낮아 공간이 넓어 보이고, 섬세한 마감 처리로 고급스러움을 강조했다. 심플하고 내추럴한 디자인이 강조된 모델로 미니멀한 디자인의 헤드보드와 프레임으로 심플하고 K 사이즈와 LQ 사이즈 매트리스를 겸용으로 쓸 수 있어 사용이 편리하다. 조승예 기자 sysy@



## 코웨이 '제가습공기청정기'

### 공기청정·가습·제습 일체형... 사계절 내내 'ON'



인테리어 수요가 늘어나는 봄철, 코웨이 제가습공기청정기가 다양한 기능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방지는 물론, 세련된 공간까지 연출해 주는 만큼 인테리어에 신경 쓰는 소비자에게도 관심을 받고 있다. 코웨이 제가습공기청정기는 공기청정·가습·제습

기능을 하나에 담은 일체형 제품이다. 국내 최초로 한국공기청정협회로부터 공기청정(CA인증)·제습(HD인증)·가습(HH인증) 관련 품질 인증을 모두 받았다. 습한 여름철에는 제습 기능을, 건조한 가을·겨울철에는 가습 기능을 맞춤형으로 선택 가능하다. 일체형 제품인 만큼 많은 제품으로 복잡했던 실내공간도 보다 넓게 활용할 수 있다. 이 제품은 초미세먼지도 걸러 주는 4단계 헤파이러스 공

기청정필터를 탑재해 위생적인 실내환경을 만들어 준다. 기능성 필터에 필터와 코웨이의 차별화된 헤파이러스 헤파필터를 적용해 각종 유해물질을 2중으로 제거한다. 또한 하루 최대 10L의 강력한 제습 능력도 특징이다. 방·거실·주방 등 습기에 민감한 모든 공간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며 최대 2시간 이내에 적정 실내습도를 맞춰준다. 일반제습 때보다 약 33% 빠르게 건조되는 의류 건조

기능도 사용 가능하다.

가습 성능에선 살균제가 필요 없는 자연기화 방식을 적용해 세균 걱정 없이 습도조절이 가능하다. 또한 세척시 불편이 따르는 디스크 방식이 아닌, 시기에 따라 교체해 사용하는 가습필터를 적용했다. 이 가습필터는 서비스 전문가인 코디가 4개월에 한 번씩 가정을 방문해 교체, 위생적 관리가 가능하다.

한편 코웨이 제가습공기청정기(APT-1014E)는 일시불 판매가 125만원이며, 월 렌탈료는 4만1900원(등록비 10만원 기준)이다. 김정유 기자 thec98@



# HERNO

이탈리아 프리미엄 패딩, 에르노

# 상폐 루머 '로엔케이'·투자 주의 '에스티오' 휘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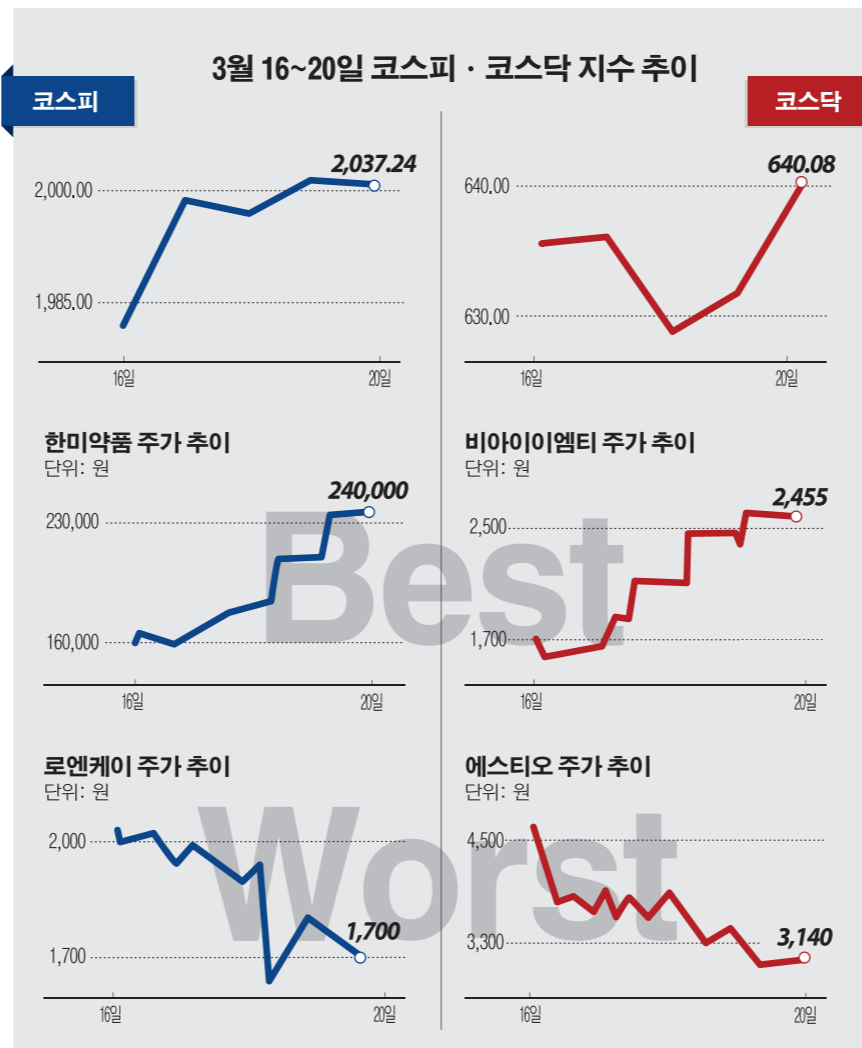
**베스트&워스트**  
**3월 16~20일**

3월 셋째주(13~20일) 코스피지수는 파죽지세로 2000선을 돌파한 뒤 단숨에 2030선 고지를 밟았다. 지난 20일 코스피지수는 전 주말 대비 51.45포인트(2.59%) 오른 2037.24로 마감했다. 특히 지난 17일은 전 거래일대비 42.58포인트 오르며 하루 만에 2% 이상 상승했다. 기관과 개인은 각각 5366억원, 8610억원 순매도에 나섰지만 외국인이 약 1조4946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를 이끌었다.

코스닥지수는 6년9개월만에 640선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 20일 코스닥지수는 전 주말 대비 5.83포인트(0.92%) 오른 640.08로 마감했다. 640선을 눈앞에 두고 고점 논란이 나오며 강한 지지선이 형성되는 듯했지만 마지막 날 640선 고지를 밟았다. 외국인과 개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132억원, 1948억원어치를 사들였다. 반면 기관은 1724억원어치를 순매도해 코스닥의 추가 상승을 저지했다.

◇한미약품, 사상 최대 기술 이전 계약에 61.07%↑ = 23일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지난주 유가증권시장에서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한미약품이었다. 한미약품 주가가 강세를 보인 것은 사상 최대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발표 한 데 따른 것이다. 한미약품은 13일 증가 61.07% 급증했다. 지난 19일 한미약품은 일라이릴리와 변역질환 등과 관련해 자사의 BTX 저해제 'HM71224'의 개발과 상업화에 관한 라이선스 및 협력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릴리는 이번 계약으로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전세계 지역에서 HM71224의 모든 적응증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임상개발 허가·생산·상업화를 진행하게 된다. 한미약품은 계약금 5000만 달러와 단

2만4700원으로 25.38% 상승했다. 이밖에 대림B&CO(43.21%), 한미사이언스(41.92%), 동방(39.06%), 진흥기업(31.25%), 다운인큐브(28.46%), 극동유화(22.90%), 광전자(22.49%) 등이 지난주 큰 상승폭을 보였다. ◇로엔케이, 상장폐지 루머에 16.05% 하락 = 지난주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종목은 로엔케이이다. 로엔케이는 지난 13일 증가 2025원에서 20일 1700원으로 16.05% 하락했다. 지난 19일 로엔케이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상장폐지가 될 것이라는 루머로 급락했다. 여기에 일부에선 4년 연속 적자인 상황에서 지난해에도 적자를 기록해 관리종목이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감사보고서 제출이 안 된 상황이라는 루머까지 더해졌다. 로엔케이



'한미약품' 일라이릴리와 기술이전 계약 61.07% ↑  
'한국주철관' 자회사 엔프라니 中 인기 55.28% ↑  
'포스코플랜텍' 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 8.37% 하락

계별 임상개발·허가·상업화 등에 따른 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로 총 6억4000만 달러 등 개발 성공시 최대 6억9000만 달러(약 7800억원)를 받게 된다. 또 상업화 이후에는 별도로 두 자릿수 퍼센트의 판매 로열티(정상기술료)를 받는다. 중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연일 치솟으며 화장품주 주가도 급등했다. 매섭게 늘어나는 중국인 수요가 면세점 매출과 수출을 양쪽에서 뒷받침하면서 화장품 업체의 1분기 실적 기대감이 커진 덕분이다. 한국주철관은 화장품 자회사 엔프라니의 중국 내 인기에 지난주 3거래일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강세를 보였다. 자회사 엔프라니가 생산하는 코팩과 비비크림이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해당 부문 1위를 차지하는 등 중국 내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화장품제조도 13일 증가 1만9700원에서 20일

이는 18일 중국 최대 미디어 그룹 중 하나인 유쿠그룹과 콘텐츠 공급계약 등 추진 발표로 회사 내부적으로는 잔칫집 분위기다. 하지만 19일 로엔케이에 대한 루머로 주가는 초상집 분위기다. 당일 장중 한 때 하한가까지 곤두박질 치기도 했다. 이에 로엔케이는 20일 '적정의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적정의견에도 불구하고 주가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루머를 퍼트리는 일부 세력이 있었다"며 "앞으로 이러한 사태에 대해 강력히 법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포스코플랜텍도 하락폭이 컸다.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의 포스코플랜텍 고가 인수 과정에 대해서 전방위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포스코플랜텍은 13일 증가 3885원에서 20일 3560원으로 8.37% 추락했다. 송영록 기자 syr@

**코스피 상승 10종목**

종목명	20일 시가총액	3월 13일	3월 20일	주가등락률 (%)
한미약품	2,455	149,000	240,000	61.07
한국주철관	352	9,950	15,450	55.28
대림B&Co	176	8,030	11,500	43.21
한미사이언스	1,733	21,350	30,300	41.92
동방	70	2,330	3,240	39.06
진흥기업	400	2,000	2,625	31.25
다운인큐브	65	3,180	4,085	28.46
한국화장품제조	112	19,700	24,700	25.38
극동유화	127	29,700	36,500	22.90
광전자	177	2,490	3,050	22.49

**코스피 하락 10종목**

종목명	20일 시가총액	3월 13일	3월 20일	주가등락률 (%)
포스코플랜텍	644	3,885	3,560	-8.37
햇택	65	2,800	2,560	-8.57
신세계건설	226	61,700	56,400	-8.59
신세계푸드	492	139,000	127,000	-8.63
한일화학	424	17,300	15,700	-9.25
한인시스템즈	58	53,400	48,250	-9.64
동부CNI	57	3,555	3,125	-12.10
성문전자	26	1,945	1,705	-12.34
키스톤글로벌	132	1,910	1,660	-13.09
로엔케이	101	2,025	1,700	-16.05

※자료 : 에프엔가이드

**코스닥 상승 10종목**

종목명	20일 시가총액	3월 13일	3월 20일	주가등락률 (%)
비아이이엠티	89	1,590	2,455	54.40
오리콤	99	6,320	9,150	44.78
네이처셀	103	1,845	2,600	40.92
차디오스텍	91	3,500	4,830	38.00
에스앤더블류	37	3,870	5,100	31.78
오스코텍	67	2,265	2,960	30.68
동화기업	568	28,500	37,000	29.82
에이씨티	201	25,400	32,950	29.72
네오팜	166	17,200	22,250	29.36
케이디미디어	31	1,620	2,070	27.78

**코스닥 하락 10종목**

종목명	20일 시가총액	3월 13일	3월 20일	주가등락률 (%)
파이오링크	72	15,750	13,650	-13.33
대창솔루션	27	2,815	2,420	-14.03
현진소재	54	3,955	3,400	-14.03
인포피아	134	17,950	15,400	-14.21
티에스엔텍	26	2,840	2,425	-14.61
국일신동	26	2,775	2,365	-14.77
케이비제약소스텍	38	2,770	2,360	-14.80
파워로지스	117	4,840	4,110	-15.08
루보	25	1,640	1,200	-26.83
에스티오	26	4,460	3,140	-29.60

※자료 : 에프엔가이드

◇비아이이엠티, 작년 영업이익 급증에 54.40% 상승 = 23일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닥시장에서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종목은 비아이이엠티다. 비아이이엠티 주가는 지난 13일 증가 1590원에서 20일 증가 2455원으로 54.40%나 급등했다. 지난 13일 작년 연결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514.7% 증가한 46억28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연결 매출은 1.2% 늘어난 732억6700만원, 당기 순이익은 30억270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 작년 호실적에다 올해 실적 기대감이 이어지며 주가가 탄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오리콤은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 장남인 박서원 크리에이티브 총괄(CCO) 부사장 영업 후 두산그룹내 입지 확대 및 사세 확장 기대감으로 13일 증가 6320원에서 20일 증가 9150원으로 44.78% 상승했다.

난 한 주간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에스티오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4거래일 연속 상한가로 무려 74.56%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 13일 '15일간 소수계좌 매수 관여과다' 등으로 투자주의 종목을 지정을 받은 후 상승폭이 줄어들었고, 16일 하한가를 기록하며 급등세에 제동이 걸렸다. 추가 하락세가 이어지며 13일 증가 4460원에서 20일 3140원으로 무려 29.60%나 주가가 빠졌다. 인포피아는 동아쏘시오홀딩스 인수 계약 철회 루머로 인해 하락세가 컸다. 인포피아는 지난 13일 증가 1만7950원에서 20일 1만5400원으로 14.21% 하락했다. 이는 동아쏘시오홀딩스 인수 실사를 진행하는 도중 비자금에 발견돼 계약이 취소됐다는 증권가 루머 탓으로 풀이된다. 인포피아 측은 이 같은 소문에 대해 사실이

'비아이이엠티' 작년 연결영업이익 1514% 급등 54.4%↑  
'네이처셀' 줄기세포 관련사업 기대감에 40.92% 상승  
'인포피아' 동아쏘시오 인수 철회설에 14.21% 떨어져

네이처셀은 줄기세포 사업 기대감에 주가가 40.92% 올랐다. 지난 12일 뉴프라이드는 네이처셀이 발행하는 23억원 규모 전환사채(CB) 중 20억원어치를 인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네이처셀은 케이스템셀(과거 알앤엘바이오)의 계열사로, 케이스템셀은 바스코스템이라는 버거씨병 치료제 임상3상을 승인받은 상태다. 뉴프라이드는 미국 상장 기업으로 네이처셀의 미국 임상을 포함한 다양한 줄기세포 관련 사업에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밖에 차디오스텍(38%), 에스앤더블류(31.78%), 오스코텍(30.68%), 동화기업(29.82%), 에이씨티(29.72%), 네오팜(29.36%), 케이디미디어(27.78%) 등이 지난주 큰 상승폭을 보였다. ◇'이상 급등' 에스티오 투자주의 종목 지정에 29.60% 하락 = 에스티오는 지

아니며 현재 동아쏘시오홀딩스와의 인수계약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하락세를 막지 못했다. 추가 급락과 관련해 인포피아 관계자는 "한울회계법인의 감사과정에서 실적이 보수적으로 반영돼 적자가 났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3일 회사 자체에서 실시한 실적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일신동은 19일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등의 사유로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됐다고 공시하며 20일 주가가 7.07% 하락했다. 지난 주 전체적으로도 주가 하락이 이어지며 13일 증가 2775원에서 20일 2365원으로 14.77% 하락했다. 이밖에 루보(-26.83%), 파워로지스(-15.08%), 케이비제6호스팩(-14.80%), 티에스엔텍(-14.61%), 현진소재(-14.03%), 대창솔루션(-14.03%), 파이오링크(-13.33%) 등이 지난주 큰 하락폭을 보였다. 송영록 기자 syr@

## 압도적 1위 반기문 리더십의 실체를 증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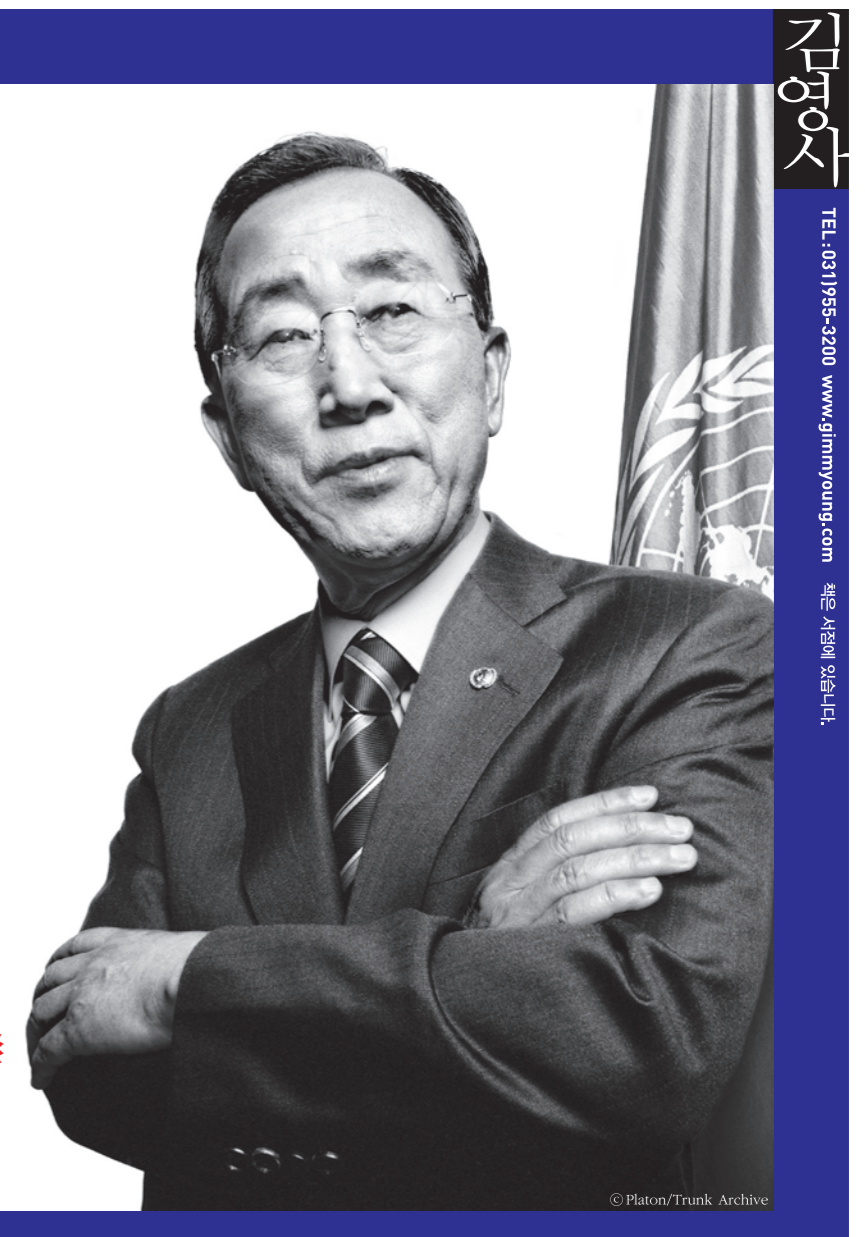


세계를 설득해낸 반전 드라마! 반기문의 유엔 7년을 밀착 취재한 단 하나의 기록

- 6대 유엔 사무총장 취임
- 기후대변 중요 의제 설정
- 세계 언론 집중 공격 연일 심해온 대응
-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 국적 함의
- '아랍의 봄' 적극 비호 독재자들의 연쇄적 몰락 강연해 리더십 증명
- 코펜하겐 이후 전방위 사무총장 연임 확정
- 유엔 총재로 선출된 남수단 유력
- '아랍의 봄' 대공세 전 세계 언론의 극한 무력충돌 증명
- 기후대변, 시공간을 가로 노획 평화상 후보 추천

**반기문, 나는 일하는 사무총장입니다**

중앙일보 부국장·국제선임기자 남정호 지음 | 396쪽 | 값 16,000원



김영사  
TEL: 031)955-3200 www.gimyoung.com  
책은 상황에 맞습니다.



# 한일진공, 삼성 '갤S6' 업고 실적 턴어라운드 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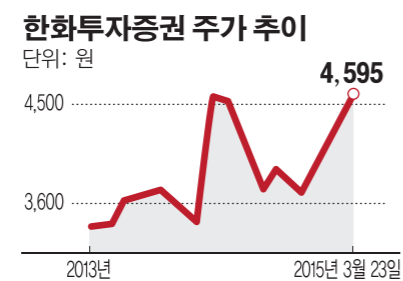
스마트폰 진공 증착장비 삼성전기 베트남 공장 설치 반짝이는 케이스... '코팅 장비도 공급했다' 루머도

전방산업의 설비투자 급감에 따른 실적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는 한일진공이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삼성전자의 신제품 갤럭시S6와 옛지 생산라인에 진공 증착장비를 공급했기 때문이다. 23일 관련업계 관계자는 "한일진공이 삼성전기 스마트폰 신제품 진공 증착 장비를 삼성전기 베트남 공장 내부에 설비라인을 갖추고 갤럭시S6·옛지 등에 공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한일진공은 카메라 렌즈 관련 진공 증착장비를 삼성전기 베트남 공장에 라인을 깔았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6와 옛지 호평을 받으면서 출시 이후 기대감이 커지면서 AP시스템, 알에프텍, 크로바하이

텍 등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한일진공의 코팅 장비 공급은 현재로서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카메라 모듈의 진공 증착 장비는 삼성전기 베트남 공장에 공급 돼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 말 키움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카메라 렌즈 신규 거래선 확보와 신제품 출시 등이 주가 모멘텀(동력)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삼성전기 진공증착 장비 공급에 이어 신제품 출시 등으로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은 점점 현실 가능성으로 바뀌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일진공 관계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정공시 대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 한화투자증권, 올 세전이익 68% 증가 전망

기업설명회서 수익 극대화 밝혀 지점 11곳 통폐합... 효율화 집중



부의 세일즈 가능 결합을 통해 시너지를 제고하고, 트레이딩 조직은 자기자본운용과 고객자산운용으로 구분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영업조직을 재정비를 바탕으로 성장한다는 방침이다. 권해근 한화투자증권 S&T본부 부사장은 "올해 수익 전망에서 S&T본부가 1000억원 이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올 1분기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오고 있어 하반기에 역량을 키워 좋은 실적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IB본부는 부동산·구조화 부문의 전문성을 더욱 키워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현일 한화투자증권 IB본부 부사장은 "전통적인 IB보다는 부동산과 구조화 집중해서 수익을 상당히 창출하고 있다"며 "제한된 자본으로 극대화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취약했던 ECM쪽에 역량을 강화해 수익을 신장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S&T본부는 법인영업 조직과 S&T본

부인 영업조직을 해체하고, 트레이딩 조직은 자기자본운용과 고객자산운용으로 구분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영업조직을 재정비를 바탕으로 성장한다는 방침이다. 권해근 한화투자증권 S&T본부 부사장은 "올해 수익 전망에서 S&T본부가 1000억원 이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올 1분기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오고 있어 하반기에 역량을 키워 좋은 실적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IB본부는 부동산·구조화 부문의 전문성을 더욱 키워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현일 한화투자증권 IB본부 부사장은 "전통적인 IB보다는 부동산과 구조화 집중해서 수익을 상당히 창출하고 있다"며 "제한된 자본으로 극대화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취약했던 ECM쪽에 역량을 강화해 수익을 신장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S&T본부는 법인영업 조직과 S&T본

## SK브로드밴드 정보 유출?...공시 전 거래 늘어

'SKT와 주식 맞교환'... 금융당국 관리 감시 강화 나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주식 맞교환 공시 전 SK브로드밴드의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하면서 불공정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이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관리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일 전일보다 7.41% 뛰어난 536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브로드밴드 주

가는 한 때 12.22%까지 급등했으며, 거래량도 1980만주로 직전 거래일(355만주) 대비 6배가량 치솟았다. 이 기간동안 기관투자자가 SK브로드밴드 주식 63만7000주를 순매수했고 외국인도 15만7000주를 순매수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SK텔레콤이 주식 맞교환 방식으로 SK브로드밴드를 100%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발표를 하기 전 정보가 미리 새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

는 것. SK텔레콤은 지난 20일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주식 맞교환 소식을 시장에 알렸다. 한국거래소는 특정 종목의 거래량이 급증하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 아래 SK브로드밴드의 미공개 정보 이용 관련 사항을 살펴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미공개 정보 이용 관련 사항을 분석한 뒤 문제가 발생하면 금융원에 분석 결과를 통보하고, 이후 증권위에서 사안의 경중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 검찰 고발 등의 판단을 취한다. 김경아 기자 kakim@

## SP 주간동향

### '디에이치피코리아 신제품 출시 보도'에 5.45% 올라

3월 셋째 주 본지 유료회원들에게 먼저 공개하는 스타프리미엄(http://www.etoday.co.kr/stockpremium)에는 종목 돋보기 9건, 공시 돋보기 5건, 루머속살 1건, e포커스 1건 등 총 16건의 기사가 게재됐다.

기사명	당일 주가 등락률	주간 주가 등락률
디에이치피코리아, 상반기 신제품 2종 출시... 라인중심도 마무리	5.45%	5.45%
SK컴즈 '싸이메라' 매각?... 올해 매출 확대 나선다	2.77%	5.33%
이엘코리아, TBM 제품 매출 20억 달성... '올해 200억 목표'	0.97%	1.36%
휴니드, 하반기 군정보통신체계 양산... 7년간 1조원 매출 전망	0.69%	1.55%
라온시큐어, 모바일 백신 구글 스토어 1위 등극... 100만 다운로드 돌파	-3.63%	-2.64%

이 가운데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기사는 지난 20일 작성된 '디에이치피코리아, 상반기 신제품 2종 출시... 라인중심도 마무리'기사였다. 디에이치피코리아는 보도 당일 전 거래일보다 5.45% 오른 1만 645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타프리미엄은 이날 디에이치피코리아가 상반기 2종, 하반기 1종 등 3종의 신제품을 올해 출시한다고 보도했다. 3분기에는 신규 3라인 완공에 따른 외형성과 수익성 개선에 기대된다고 전했다. 특히 시장에서는 제품 수요가 늘어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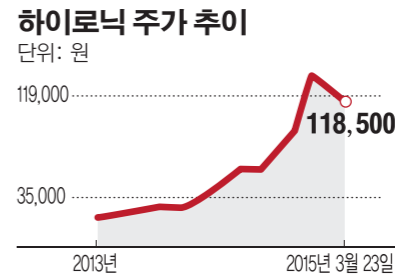
상황에서 디에이치피코리아가 생산량을 확대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디에이치피코리아는 지난해 1억3000만권의 일회용 안구점안제를 생산했다. 올해 3분기 3호 라인 공장이 완공돼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생산량이 연간 2억5000만관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디에이치피코리아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일회용 안구점안제 시장에서 42%의 점유율로 1위다. 시장에서는 디에이치피

코리아의 올해 실적을 매출액 425억원, 영업이익 119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30.3%, 30.8% 성장한 수치다. 지난 16일 보도된 SK컴즈 역시 상승세를 보였다. 'SK컴즈 싸이메라 매각' 올해 매출 확대 나선다' 기사가 보도된 후 당일 1.07% 상승한 채 거래를 마감했다. 이후 18일(-1.27%)을 제외하고 꾸준한 상승세를 타며 주간 상승률은 5.33%를 기록했다. 송영록 기자 syr@

## 3대주주 블루런벤처스, 보호예수 물량 처분 하이로닉 '고공행진'에 날개?

공시 돋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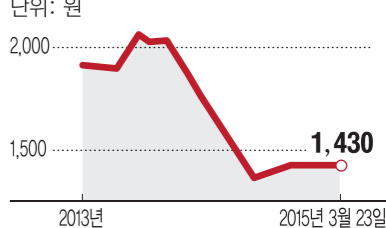
16만주 매도 160억 차익 예상 "불확실성 해소" 오히려 반겨



코스닥 이전 상장 이후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하이로닉의 3대주주인 블루런벤처스(BRV LOTUS LIMITED)가 보호예수로 묶여있던 주식 상당수를 처분하면서 그 배경과 향후 주가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블루런벤처스 'BRV LOTUS LIMITED' 펀드가 지난 16일 하이로닉의 주식 16만주를 장의매도해 보유 지분이 10.18%(28만2485주)에서 4.41%(12만2485주)로 감소했다. 거래 상대방은 NH투자증권 등 국내외 법인 20개이며 처분단가는 주당 11만9200원으로 총 190억7200만원 규모다. 블루런벤처스의 이번 지분 매각은 최근 하이로닉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신청한 하이로닉은 이후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였다. 이전 상장 약 2달 만에 3배 가까이 주가가 급등한 것. 이에 블루런벤처스 측은 이번 지분 매각으로 상당한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블루런벤처스의 하이로닉 주식 매입 단가는 1만7000

원대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처분단가(12만원)와 무려 1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금액이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160억원 가량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하이로닉 측은 "블루런벤처스 측이 대규모 지분 정리에 나선 것은 차익 실현을 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번 지분 매각과 관련해 회사 측과 따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블루런벤처스가 대규모 보호예수 물량을 처분했지만 회사 측에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대규모 보호예수 물량 대기에 따른 주가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 측 관계자는 "블루런벤처스의 지분 매각으로 오버행 이슈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유통물량이 적다는 지적을 받아왔던만큼 수급 측면에서도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선영 기자 moon@

## 참엔지니어링 주가 추이



## 참엔지니어링 '고발전'

한인수 회장측 배임 혐의로 고발 최종옥 전 대표 명예훼손 맞고말

최종옥 전 참엔지니어링 대표는 지난 20일 배임과 알선수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과 관련 "사실 무근이며 근거 없는 고발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 전 대표는 이날 "고발장을 살펴봤지만 일방적인 허위 주장 말고는 어떤 증거자료도 첨부되지 않은 소살"이라며 "만약 내가 단돈 1원이라도 부정하게 받은 게 있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내가 직접 고소·고발을 한 적은 없었다"며 "하지만 이번엔 윤점복(참엔지나인 김사)과 실질적 지시자인 한 회장을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오늘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최 전 대표는 "한 회장이 김성수 비디올 팀스 대표의 지인을 매수해 거짓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최 전 대표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도현씨는 관련자인 김성수 사장(비디올 팀스 대표)의 지인 브로커"라며 "한 회장 측에 매수돼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혜진 기자 sinembargo@

## 슈퍼개미 요구에... 영화금속 배당 확대

손명완씨 제안... 전자투표 한 몫

영화금속이 슈퍼개미 손명완 씨의 주주제안으로 배당금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했다. 소액주주들이 손씨에게 힘을 실어준 것도 한 몫했다. 이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영화금속은 주주총회를 통해 당초 1주당 25원으로 상정된 배당액을 30원으로 올렸다. 소폭이지만 배당이 확대된 것. 이는 이 회사 지분 약 10%를 보유하고 있는 슈퍼개미 손명완 씨의 제안에서 시작했다. 당초 회사측은 1주당 배당액을 25원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주주결권을 가진 손명완 씨의 배당액 50원을 요구했다. 반면 회사측은 이에 대응해 황금낙하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황금 낙하산 제도는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M&A가 성사될 경우 기존 경영진에게 거액의 보수를 주도하는 제도다. 이때부터 소액주주들은 손명완 씨에게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다. 전자투표를 이용해 손명완 씨의 의견에 힘을 실어준 것. 안건 상정 이후 180여명의 주주가 자신들의 지분 17%를 앞세워 손명완 씨 의견에 찬성표를 던졌다. 김준형 기자 junior@

## 삼성공조, 유경PSG와 주총 표대결 승리

사측서 지분 20% 이상 확보 "저평가 요인 개선 노력 계속"

일찌감치 관심을 모았던 유경PSG운동과 삼성공조간 주주총회 표대결이 사측의 승리로 마무리 됐다. 그러나 유경PSG운동은 인내심을 갖고 장기적인 주주 가치 개선 활동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0시부터 경남 창원시의 삼성공조 본사에서 열린 주총은 양측간의 공방으로 약 2시간 반 넘게 진행됐다. 이날 지분 4%를 보유한 유경PSG운동은 배당 증액 확대와 감사 교체 등을 주장하며 표 대결을 펼쳤다. 사측이 20% 이상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표대결에서는 결국 지고 말았다. 다만 주주들이 모인 자리에서 유경PSG운동은 그동안 삼성공조측의 주가 저평가 요인과 경영상 폐쇄성, 불투명성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전달했다는 후문이다. 강대권 유경PSG운동 운용본부장은 "그동안 회사 저평가 요인과 문제점에 대한 당시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 앞으로는 회계장부 열람을 비롯 주가 저평가 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경영진 역시 앞으로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그 부분에 기대를 걸어 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경PSG운동이 법원에 신청한 삼성공조의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 심리는 당초 지난 13일에서 27일로 연기된 상태다. 한편 업계에서는 저평가된 기업 가치를 개선하기 위해 외로운 싸움을 벌인 유경PSG운동의 행보에 대해 기대만 아쉬움만 가득한 표정이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비록 결과는 졌지만, 이같은 움직임들이 크게 모여 그동안 주주 가치에 개념없이 살아온 기업들에게 반면교사를 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경아 기자 kakim@

삼성전자는 Windows 를 권장합니다.

# 삼성 노트북 9, 당신의 첫 페이지가 되다

950g의 가벼움, 풀메탈의 강렬함에  
눈부신 실버라이닝 까지-  
삼성 노트북 9을 펼치는 순간  
당신의 멋진 새 학기도 펼쳐집니다.



## 삼성 노트북 9 2015 Edition

- 950g 초경량, 11.8mm 초슬림, 30.9cm 컴팩트 사이즈
- 풀메탈 바디, 실버라이닝으로 빛나는 디자인
- 최신 인텔 코어 M 프로세서, SSD 탑재로 빠른 작업 속도
- WQXGA 초고해상도, 광시야각으로 선명한 화면

삼성전자 **S'** 아카데미 20<sup>TH</sup> 스무살의 아카데미가 모두의 아카데미로!

삼성전자의 최신 IT제품을 다양한 혜택과 함께 만나보세요.(1/7~3/31) ▶ 자세한 내용은 [www.s-academy.co.kr](http://www.s-academy.co.kr) 을 참조하세요.

업무는 완벽하게. 여가는 즐겁게. Windows

